
I 금오도





I. 금오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금오도의 주요 항으로는 우학항, 여천항, 송고항, 함구미항, 유송항, 직포항 등이 있다. 남면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우학항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직선거리로 25.7km 떨어져 있으며, 안도의 안도항까지는 3.7km 떨어져 있다.

여천항에서 돌산 신기항까지는 5.5km 떨어져 있으며, 송고항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21km 떨어져 있다. 함구미항에서 백야도의 백야항까지는 직선거리로 11.22km 떨어져 있으며, 직포항까지는 4.4km, 송고항까지는 2.1km 떨어져 있다.





우학항



남면 여객선터미널



여천항



여천 여객선터미널



함구미항



함구미 여객선터미널



직포항



유송항



두포항



송고항

2) 토지 및 인구현황

금오도의 총면적은 27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64.5km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오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887세대 1,360명이 살고 있고 이중 남자는 696명이고, 여자는 664명이다. 리별로 인구를 살펴보면 우학리에 289세대 454명이 살고 있고, 심장리에는 224세대 330명, 두모리 150세대 214명, 유송리에 224세대 362명이 살고 있다. 수향도에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인구현황(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우학리	289	454	233	221
심장리	224	330	166	164
두모리	150	214	111	103
유송리	224	362	186	176
계	887	1,360	696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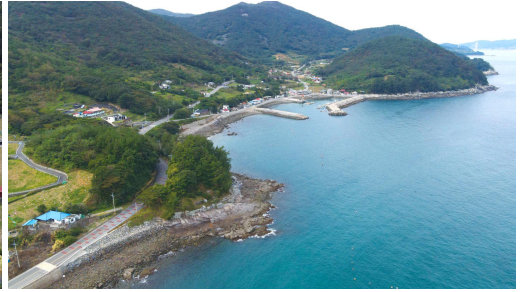
우학리



심장리



두모리



유송리

3) 공공기관

(1) 남면사무소

1894년 당시에는 금오면으로 우학리 218번지(현 우학교회 사택)에 목조초가 23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집강(執綱)이 면정(面政)을 개시하였다. 이후 1917년 현 위치인 남면 우학리 649-3번지에 목조와가 28평으로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49년 8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천군 남면사무소로 바뀌었으며, 1960년 사라호 태풍으로 청사가 붕괴되면서 석조슬레이트로 본관, 회의실 및 창고(2층) 등 40평을 신축하였다. 이후 1985년 철근콘크리트슬라브로 2층 규모로 신축(2층 면장실, 회의실, 1층 사무실)하였다.

1998년 4월 1일 3여통합으로 여수시 남면사무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2023년 11월 같은 자리에 새로운 사무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도중계민원처리소, 연도중계민원처리소, 화태중계민원처리소 등 3개의 중계소가 있다.

-
- 1894. 금오면 우학리 218(현 우학교회 사택) 에 목조초가 23평을 신축
 - 1917. 03. 01. 여수군 남면사무소 설치, 우학리 649-3번지(목조와가 28평)로 신축 현 위치로 이청
 - 1949. 08. 15. 여천군 남면사무소 명칭 변경
 - 1960. 석조슬레이트로 본관 28평, 회의실 및 창고(2층) 40평 신축
 - 1985. 철근콘크리트슬라브 2층 신축(2층 면장실, 회의실, 1층 사무실 신축)
 - 1998. 04. 01. 3여통합으로 여수시 남면사무소로 명칭 변경
 - 2007. 07. 01. 3개 출장소(안도, 연도, 화태)를 중계민원처리소로 명칭 변경
 - 2023. 11. 사무실 신축



남면사무소



남면사무소(2020년)

(2) 여수경찰서 남면파출소

1946년 3월 우학리 우실마을에 여수경찰서 남면지서가 설치되었다. 1966년 우학리 693-1번지에 벽돌슬레이트 구조로 17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75년과 1979년에 개축하였다가 1981년 우학리 657번지에 사택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 남면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 1946. 03. 05. 우학리(우실) 188번지에 여수경찰서 남면지서 개설
 - 1966. 우학리(내외진) 693-1번지에 벽돌슬레이트 17평 건물 신축 이전
 - 1974. 05. 30. 안도지서 신청사 준공(대지 227평, 건평 23평)
 - 1975. 우학리 693-1번지에 벽돌슬라브 7평 건물 개축
 - 1979. 우학리 693-1번지에 벽돌슬라브 11평 건물 개축
 - 1981. 우학리 657번지에 벽돌슬라브 7평 사택 신축
 - 1995. 01. 25. 남면파출소 명칭 변경



남면파출소



남면파출소(2008년)

(3) 수향도경찰출장소

1981년 10월 유송리 172번지에 수향도경찰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9년 유송리 산 6번지에 벽돌슬라브 9평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으나 3년 후인 1992년 3월 폐소하였다.

-
- 1981. 10. 13. 유송리 발 172번지에 수향도경찰출장소 설치
 - 1989. 유송리 산 6번지에 벽돌슬라브 9평 건물 신축 이전
 - 1992. 03. 13. 수향도경찰출장소 폐소

(4) 여수해양경찰서 우학리출장소

2003년 12월 21일 현 위치인 남면 금오로 891에 신축하였다. 관할하는 주요 항포구로는 우학항, 송고항 등이 있다.



여수해경 우학리출장소

(5) 남면 119지역대

1950년 1월 남면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고, 1971년 벽돌슬라브 5평 격납고를 신축하였다. 2006년 8월에 청사를 남면 금오서부로 21(우학리 280)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147.55㎡ 규모로 신축하였다.

-
- 1950. 01. 01. 남면의용소방대 설치
 - 1971. 벽돌슬라브 5평 격납고 신축, 의용소방대 체제 운영
 - 2006. 08. 10. 청사 준공
 - 위 치 : 여수시 남면 금오서부로 21(우학리 280)
 - 규 모 : 대지 676㎡, 건물 147.55㎡(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층)
 - 2010. 01. 11. 소방공무원 및 장비 배치(직원 2명, 소방차 1대)
 - 2018. 05. 28. 남면119지역대 소방공무원 증원 [2명⇒6명(2인 1조)]
 - 2018. 08. 02. 남면119지역대 전라남도 행정기구 승인



119지역대



소방차



남면의용소방대

4) 교육기관

(1) 여남고등공민학교

1951년 3월 25일 우학리 652-3에 학생 90명으로 여남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다가 1958년에 임시 폐교하였다. 2년 후인 1960년 3월 1일 여남국민학교(현 급식실)에 재설립하였다가 1964년 여남중학교가 설립되자 폐교하였다.

(2) 여남중고등학교



여남중고등학교



여남중고등학교(2008년)

1965년 12월 여남중학교가 설립인가되어 1966년 3월 6학급 규모로 개교하였다. 1981년 1월 여남중학교 연도분교장이 병설인가되어 1981년 3월 연도국민학교여남중학교연도분교장이 개교하였다. 1983년 1월에는 여남중학교 화태분교장이 설립인가되어 1983년 3월 화태국민학교여남중학교화태분교장이 개교하였다. 1984년 11월 여남고등학교가 설립인가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여남중학교 안도분교장이 설립인가 되었다. 1985년 4월 여남고등학교가 9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며, 같은 달에 여안국민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이 개교하였다. 1999년 3월 연도초등학교여남중학교 통합운영학교로 개칭하였다가 같은 해 9월 여남중학교 여남고등학교 통합학교로 인가되었다.

2014년 3월 연도초등학교여남중학교연도분교장이 폐교하였고, 2018년 3월 여안초등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이 휴교하였다. 2020년 3월 여안초등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이 여남중으로 통폐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965. 12. 24. 여남중학교 설립인가
- 1966. 03. 28. 여남중학교 개교(6학급)
- 1966. 05. 23. 여남중학교 초대 강우섭 교장 취임
- 1981. 01. 31. 여남중학교 연도분교장 병설인가
- 1981. 03. 01. 연도국민학교여남중학교연도분교장(병설)개교
- 1983. 01. 22. 여남중학교 화태분교장 설립인가(6학급)
- 1983. 03. 18. 화태국민학교여남중학교화태분교장(병설) 개교
- 1984. 11. 27. 여남고등학교 설립인가
- 1984. 12. 24. 여남중학교 안도분교장 설립인가
- 1985. 03. 01. 여남고등학교 초대 박동균 교장 취임
- 1985. 04. 18. 여남고등학교 개교(9학급)
- 1985. 04. 25. 여안국민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병설) 개교
- 1999. 03. 01. 연도초등학교여남중학교 통합운영학교 개칭
- 1999. 09. 01. 여남중학교여남고등학교 통합학교 인가
- 2014. 03. 01. 연도초등학교여남중학교연도분교장 폐교
- 2018. 03. 01. 여안초등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 휴교
- 2018. 03. 01. 화태초등학교돌산중학교화태분교장으로 교명 변경
- 2020. 03. 01. 여안초등학교여남중학교안도분교장 여남중으로 통폐합

- **교목** : 동백
- **교화** : 장미
- **교색** : 녹색
- **교가** : 강우섭 작사, 김형주 작곡

남해의 푸른물결 우리의 기상
 새 세대 눈을 뜨고 닦은 녀들이
 옥녀봉 아침햇살 희망을 품고
 밝은 슬기 맑은 마음 함께 갈아서
 내일에 깃을 치는 우리의 전당
 아아 그 이상도 드높은 여남중고등학교

누리에 뻗은 동백 타는 기상에
 자유와 굳은 의지 세찬 몸들이
 겨레의 등불되어 길을 밝힌다
 새 역사의 힘찬 맥박 울린 성중에
 세기에 동이트는 우리의 모교
 아아~ 그 이상도 드높은 여남중고등학교

(3) 여남초등학교

1921년 3월 남면 우학리 213번지에 남면사립보통학교로 인가되어 1924년 4월 여남공립보통학교로 승격하였다. 1938년 4월 여남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고, 3년 뒤인 1941년 4월에는 우학리 265번지로 이전하면서 여남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해방 후인 1950년 6월 여남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1991년 3월에는 유포분교, 1992년에는 두모분교가 편입되었다가 1995년 3월 두모분교장이 통폐합되고, 이어서 1999년 3월에는 장지, 유송분교장이 통폐합되었으며, 2000년 3월에는 유포분교와 항금분교가 통폐합되었다.

2022년 3월에는 여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여남초등학교병설연도분교장유치원 1학급이 인가되었으며, 같은 날 여남초등학교가 통폐합되어 연도분교장이 편입되었다.



여남초등학교



여남초등학교(2008년)

-
- 1921. 03. 08. 남면사립보통학교 인가(남면 우학리 213번지)
 - 1924. 04. 01. 여남공립보통학교로 승격
 - 1938. 04. 01. 여남심상소학교로 개칭
 - 1941. 04. 01. 여남공립국민학교로 개칭(우학리 265번지)
 - 1950. 06. 01. 여남국민학교로 개칭
 - 1990. 04. 26. 문교부 급식학교로 지정
 - 1991. 03. 01. 유포분교 편입
 - 1992. 03. 01. 두모분교 편입
 - 1995. 03. 01. 두모분교장 통폐합
 - 1999. 03. 01. 장지, 유송분교장 통폐합
 - 2000. 03. 01. 유포분교, 항금분교 통폐합
 - 2018. 03. 01. 여남초등학교 6학급, 특수학급 1학급, 계 7학급 인가
 - 2022. 03. 01. 여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1학급, 여남초등학교병설연도분교장유치원 1학급, 계2학급 인가
 - 2022. 03. 01. 여남초등학교 통폐합, 연도분교장 편입

- **교훈** : 맑은 품성 / 밝은 슬기
- **교목** : 향나무
- **교화** : 동백꽃
- **교색** : 파랑
- **교가** : 최순판 작사, 김영훈 작곡

양양한 바다를 앞에다 두고
 우뚝한 옥녀봉 뒤에 솟았네
 평화로운 동백꽃이 울타리되어
 자유 찾아 배우는 우리 여남교

우리나라 힘이 될 여남어린이
 행진곡에 발맞춰 노래 부르며
 질서있고 씩씩한 몸짓하면서
 자유 찾아 배우는 우리 여남교

나의 일신 빛내며 민족을 위해
 더한 걸음 나아가 세계만방에
 정의의 횃불이 되려고 하여
 자유찾아 배우는 우리 여남교

(4) 여남초등학교 두모분교장

1949년 11월 여남공립국민학교 두포분교장으로 설립인가 되었다. 1960년 3월 두모리 393번지에 두포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72년 3월 두모국민학교로 개칭한 후 학생 수 감소로 1992년 3월 여남국민학교 두모분교장으로 격하되었고, 1995년 3월 여남국민학교 두모분교장이 통폐합되었다.

-
- 1949. 11. 28. 여남공립국민학교 두포분교장 설립인가
 - 1960. 03. 24. 두포국민학교로 승격(두모리 393번지)
 - 1972. 03. 01. 두모국민학교로 개칭
 - 1992. 03. 01. 여남국민학교 두모분교장으로 격하
 - 1995. 03. 01. 여남국민학교 두모분교장 통폐합



여남초 두모분교



여남초 유송분교

(5) 여남초등학교 유송분교장

1946년 3월 유송공립국민학교로 설립인가되어 같은 해 4월 유송리 667번지에 개교하였다. 1950년 6월 유송국민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69년 유송리 702-2번지에 벽돌슬레이트 123평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이후 학생 수 감소로 1990년 3월 여남국민학교 유송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가, 1999년 3월 여남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
- 1946. 03. 25. 유송공립국민학교 설립인가
 - 1946. 04. 15. 유송공립국민학교 개교(유송리 667번지)
 - 1950. 06. 01. 유송국민학교로 개칭
 - 1969. 유송리 702-2번지에 벽돌슬레이트 123평 건물 신축 이전
 - 1990. 03. 01. 여남국민학교 유송분교장으로 격하
 - 1999. 03. 01. 여남초등학교 유송분교장 통폐합

(6) 여남초등학교 항금분교장

1939년 4월 유송리 1070번지에 항금사립간이학교로 처음 설립되었다. 1948년 9월 유송공립국민학교 항금분교장으로 설립 인가되어 다음 해인 1949년 5월 유송리 1071-2번지에 유송공립국민학교 항금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1962년 11월 항금국민학교로 승격하였고, 1984년 3월 유송국민학교 항금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1990년 3월 여남국민학교 항금분교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00년 3월 여남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다.

-
- 1939. 04. 01. 항금사립간이학교 설립(유송리 1070번지)
 - 1948. 09. 30. 유송공립국민학교 항금분교장 설립 인가
 - 1949. 05. 06. 유송공립국민학교 항금분교장 개교(유송리 1071-2번지)
 - 1962. 11. 30. 항금국민학교로 승격
 - 1984. 03. 01. 유송국민학교 항금분교장으로 격하
 - 1990. 03. 01. 여남국민학교 항금분교장으로 변경
 - 2000. 03. 01. 여남초등학교 항금분교 통폐합



여남초 항금분교



여남초 유포분교

(7) 여남초등학교 유포분교장

1960년 3월 여남국민학교 유포분교장으로 설립인가되어 같은 해 4월 여남국민학교 유포분교장이 유송리 214-1번지에 개교하였다.

1963년 7월 유포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가 학생 수 감소로 1991년 3월 여남국민학교 유포분교장으로 격하되었으며, 2000년 3월 여남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다.

-
- 1960. 03. 14. 여남국민학교 유포분교장 설립인가
 - 1960. 04. 16. 여남국민학교 유포분교장 개교(유송리 214-1번지)
 - 1963. 07. 31. 유포국민학교로 승격
 - 1991. 03. 01. 여남초등학교 유포분교장으로 격하
 - 2000. 03. 01. 여남초등학교 유포분교 통폐합

(8) 여남초등학교 장지분교장

1960년 3월 여남국민학교 장지분교장이 설립인가되어 같은 해 1960년 7월 심장리 104번지에 여남국민학교 장지분교장이 개교하였다. 1965년에는 심장리 104-1번지에 벽돌슬레이트로 49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으며, 1983년에 심장리 37번지에 벽돌슬라브 12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였다. 1999년 3월 여남초등학교에 통폐합되었다.

- 1960. 03. 14. 여남국민학교 장지분교장 설립인가
- 1960. 07. 13. 여남국민학교 장지분교장 개교(심장리 104번지)
- 1965. 심장리 104-1번지에 벽돌슬레이트 49평 건물 신축 이전
- 1983. 심장리 37번지에 벽돌슬라브 120평 건물 신축 이전
- 1999. 03. 01. 여남초등학교 장지분교 통폐합



여남초 장지분교



남면어린이집

(9) 시립 남면어린이집

2012년 1월 1일 남면 우학리 금오로 860에 시립 남면어린이집이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의료기관

(1) 남면 보건지소

1967년 우학리 680-7번지에 벽돌슬레이트 구조로 12평 건물을 신축하여 남면 보건진료소를 설립하고 진료를 개시하였다. 1976년 남면보건지소로 승격하였고, 1986년 우학리 680-13번지에 벽돌슬라브 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2020년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 1967. 남면보건진료소 우학리 680-7번지에 벽돌슬레이트 12평 건물 신축 진료 개시
- 1976. 남면보건지소로 승격
- 1986. 우학리 680-13번지에 벽돌슬라브 50평 건물신축 이전, 일반 및 한방, 치과 진료 병행
- 2020. 리모델링 공사



남면 보건지소



유송 보건진료소

(2) 유송 보건진료소

1989년 8월에 유송리 633-2번지에 벽돌슬라브 구조로 23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송고보건진료소를 개소하였다. 2010년 9월 현위치인 솔고지길 71-11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유송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1년 리모델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1989. 08. 25. 유송리 633-2번지에 벽돌슬라브 23평 건물 신축, 송고보건진료소 개소
 - 2010. 09. 10. 솔고지길 71-11 신축 이전
 - 2021. 리모델링 공사

6) 기타

(1) 여수남면우체국

1937년 3월 심장리 126번지에 심장우편소를 설치하였다. 1939년 9월 안도리 859번지에 안도우편소로 이설하였다가, 1949년 7월 우학리 649-4번지에 여남우편국을 설치하였다.

1950년 1월 여남우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81년 9월에는 우학리 657번지에 벽돌슬라브 구조의 63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98년 5월 여수남면우체국으로 개칭하고, 2013년 11월 청사를 개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면우체국



남면우체국(2008년)

(2) 여수농협 남면지점

1969년 7월 9개의 이동조합을 합병하여 우학리 692-4번지에 남면단위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1972년 상호금융을 개시하였다. 1972년 10월 사무실을 50평 규모로 신축하였으며, 1974년 자립조합으로 승인되었다. 1974년 12월 우학 판매장(28평)과 두포 판매장(50평)이 준공되었다. 1982년 6월 연쇄점이 개장하였고, 1998년 2월 여수농협으로 합병되어 남면 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 3월에 직원 관사를 준공하였고, 2017년 6월 하나로마트를 확장 이전하였다. 2018년 4월 사무실을 신축해 이전하였다.

-
- 1969. 07. 26. 9개 이동조합 합병 남면단위농업협동조합 설립(우학리 692-4)
 - 1972. 02. 01. 상호금융 개시
 - 1972. 10. 30. 사무실 50평 신축
 - 1974. 01. 01. 자립조합 승인
 - 1974. 12. 31. 우학 판매장(28평), 두포 판매장(50평) 준공
 - 1975. 09. 17. 남면단위농협 연도본소 개설, 연도판매장(50평) 준공
 - 1982. 06. 18. 본소 연쇄점 개장
 - 1989. 03. 16. 남면단위농협 안도지소 개설
 - 1989. 04. 12. 남면단위농협 화태지소 개설
 - 1992. 01. 01. 남면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
 - 1992. 08. 18. 장제사업 실시
 - 1998. 02. 10. 여수농협에 합병되어 남면지점 명칭 변경
 - 2015. 03. 12. 직원 관사 준공
 - 2017. 06. 23. 하나로마트 확장 이전 개점
 - 2018. 04. 13. 사무실 신축 이전



여수농협 남면지점



하나마트와 주유소

(3)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오도분소

2013년 4월 18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금오도분소가 남면 금오로 44-1(유송리)에 개소하였다가 2020년 10월 현 위치인 남면 금오로 687로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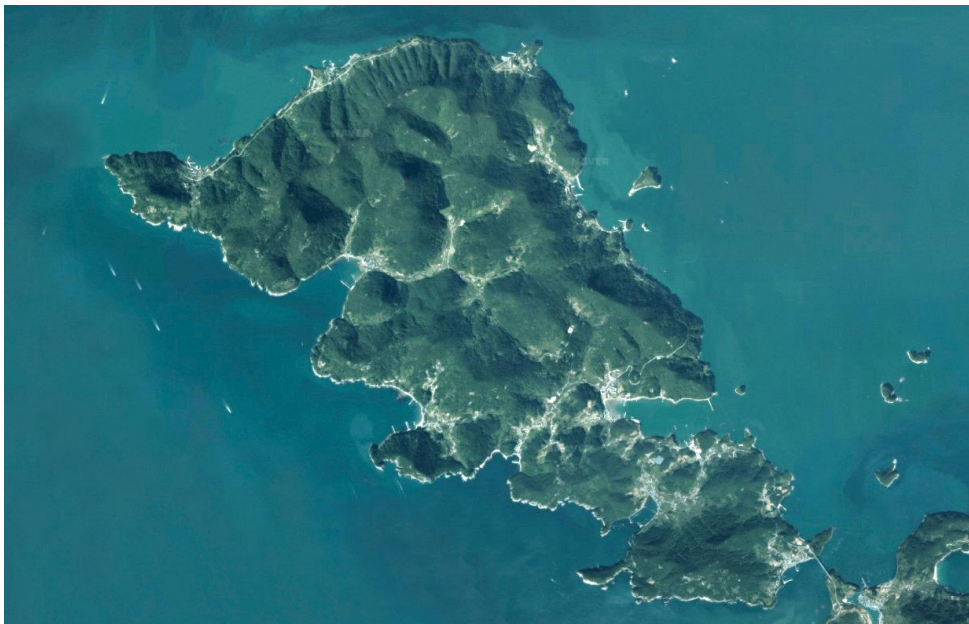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오도분소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금오도는 북으로 화태도와 대두라도 그리고 남으로 안도와 연도를 잇는 금오열도의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이다. 돌산도 남단에 위치한 금오산과 금오열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금오도는 주로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해식애와 파식대, 해식동 등 다양한 해안경관을 제공하고, 북쪽에 매봉산, 동쪽에 옥녀봉, 남쪽에 망산 등이 연속적으로 분포하여 경사가 급한 편이다.



금오도 위성지도¹⁾

(1) 해식애

금오도에는 다양한 해식애가 나타나는데 먼저 유송리 소유마을 부근에 바다로 돌출된 부분은 해식애의 경사가 60° 내외로 급한 편이지만, 육지로 들어간 부분은 해식애의 경사가 완만해지기 시작하여, 가장 안쪽에서는 경사가 20° 내외로, 파식대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또한 돌출된 부분은 표면의 요철이 심하지만, 들어간 부분은 표면이 매끄러운 편이다.

1) 다음지도

금오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망산은 금오도 남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경사가 급한 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사면의 상부는 대부분 기반암이 노출된 암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면의 하부는 상부에서 공급된 암설들이 흘러내려 매우 넓은 면적의 애추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이 해안과 접하는 곳은 높이 20m 내외의 해식애가 절경을 이루면서 해안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금오도 북동쪽 해안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가지는 높이 10m 이상의 해식애가 해안을 따라 연속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해식애 사이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만의 형태를 이루는 부분에는 해식애의 전면에 수m의 폭을 이루는 모래 및 자갈해안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곳의 기반암인 응회암과 안산암의 복잡한 절리면을 따라 파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식애의 표면은 요철이 심한 편이다.

두모리의 서쪽 해안에 발달한 해식애는 매봉산에서 이어진 급사면의 산지가 바다와 접하여, 외해에 열려 있기 때문에 파도의 침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따라서 두모리의 서쪽 해안은 사진과 같이 해식애가 매우 연속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육지로부터 돌출되어 있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에서는 해식애의 높이가 10m 이상에 달한다.



함구미 해식애



소유마을 육계사주

(2) 육계사주

유송리의 소유마을과 연목마을 사이에 바다로 돌출된 작은 헤드랜드의 전면에는 육계도가 발달되어 있다. 이 육계도와 금오도 사이의 거리는 약 30m로 매우 가까운 편이며, 두 섬을 연결하는 육계사주는 자갈 및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어 두 섬을 연결하고 있으며,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다. 현재는 육계도와 육계사주의 북쪽을 어항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육계사주를 따라 제방이 쌓여 있다.

(3) 애추

두모저수지 동쪽에 위치한 사면에서 관찰되는 애추는 금오도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지형으로, 사면의 경사가 급한 곳이나, 외해에 접한 남쪽 해안에 위치한 사면에서는 애추의 규모와 분포 면적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 이곳 암석은 안산 암질응회암으로 암설의 크기는 지름 30cm~1m의 범위이고, 형태는 장방형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모서리는 매우 각이 져 있다. 암설의 표면에는 이끼류가 서식한 흔적이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으며, 애추의 내부까지 식생이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화석 지형이라기보다는 신생대 홀로세의 최근까지 애추의 발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장지 애추



(4) 갯벌

우하리의 해안은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내만을 이루고 있으며, 이 일대 여러 소하천의 하구에 해당하여 퇴적물 공급이 상대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경사가 완만한 간석지 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간석지는 모래와 점토가 혼합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의 하구와 육지에 가까운 곳에는 10cm 이하의 지름을 갖는 각력이 퇴적층의 상부를 덮고 있다.

2) 지질

금오열도 지질분포는 중생대 백악기 말에서 제3기초의 변성암 복합체 중 지리산 편마암과 이를 덮고 있는 퇴적층을 관입한 중성화성암류인 안산암이 존재한다.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안산암은 사장석 반정을 지닌 암녹색이나 암회색 안산암, 비현정질 안산암 및 행인상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황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돌산도 중앙부에 분포하는 알카리장석 화강암은 후기 백악기의 관입암으로 여수시 북동부의 영취산과 남해도에도 잘 나타난다. 석영과 정장석이 구성광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문상 화강암으로 유색광물의 함량이 적은 조립 또는 중립질 암석이다.

3) 토양

산지에 숲이 잘 보존되어 식생으로 피복이 양호한 금오도와 같은 섬의 산지는 기반암의 풍화와 식물에서 공급된 부식의 영향으로 갈색의 삼림토를 이루고 있다. 급경사를 이루는 곳이 많아 풍화에 의해 공급된 물질이 사면 이동에 의해 쉽게 제거되어, 산지의 토양은 비교적 두께가 얇은 편이다. 산록의 하부와 꼭두부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고 기복이 완만한 지역의 토양은 기반암인 화산암류가 화학적 풍화를 활발히 받아서 형성된 적색의 풍화토가 상대적으로 두껍게 나타난다. 이러한 곳은 대부분 밭이나 취락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4) 기후²⁾

금오도를 포함한 남면은 여름에는 해양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열대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겨울에는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이거나 전반적으로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연교차가 22.6°C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4.9°C, 8월 평균기온 26.11°C, 1월 평균기온 3.48°C이며 강수량은 1,427.9mm 내외이고 무상기일은 332일, 안개 끼는 날은 20일, 맑은 날은 70일, 흐린 날은 100일, 강수일은 70일 정도이다.

2) 남면지(2018)

남면의 평균기온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C)
2017	4.9	5.5	6.7	14.3	17.9	20.3	25.3	27.1	22.9	18.6	11.7	5.1	15.2
2016	4.3	5.7	9.6	14.2	17.9	21.0	24.7	27.2	23.3	19.2	12.6	8.0	15.6
2015	5.3	5.6	8.9	13.1	17.3	20.1	23.0	25.3	22.3	18.2	14.1	8.6	15.2
2014	4.6	5.9	9.4	13.2	17.0	20.0	23.1	23.4	22.2	17.8	12.6	5.0	14.5
2013	2.7	4.3	8.7	11.4	16.5	20.2	24.8	26.0	22.9	18.3	11.1	5.9	14.4
2012	3.8	3.4	8.5	13.1	17.9	21.1	-	27.0	22.2	17.5	10.7	3.0	13.5
2011	0.0	5.9	6.9	12.2	16.2	20.0	24.6	25.0	23.2	17.3	14.6	5.4	14.3
2010	3.0	5.7	8.2	11.2	16.7	21.2	25.1	27.7	24.5	18.2	11.0	5.7	14.9
2009	3.9	8.3	9.7	13.4	17.8	21.0	23.9	25.9	23.5	19.0	11.1	5.6	15.3
2008	4.8	3.8	9.8	14.1	17.6	20.3	26.9	26.5	24.7	20.0	12.4	6.8	15.6
평균	3.48	5.41	8.64	13.02	17.28	20.52	22.14	26.11	23.17	18.41	12.19	5.91	14.85

남면의 평균강수량(2017~2008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mm
2017	16.0	52.0	24.5	77.0	29.0	113.0	290.0	130.0	205.0	118.0	0.5	20.5	1075.5
2016	51.5	64.5	115.0	310.5	131.0	150.0	140.5	43.0	615.0	222.5	94.5	147.5	2085.5
2015	57.0	44.0	123.0	197.0	186.5	127.5	237.0	240.0	121.5	78.5	102.0	53.5	1567.5
2014	24.5	41.0	153.5	76.5	150.5	63.0	174.0	519.0	66.0	111.0	55.0	14.5	1448.5
2013	24.5	95.0	71.5	102.5	181.5	91.5	182.0	174.0	48.5	118.5	42.0	7.0	1138.5
2012	13.0	33.5	148.5	258.0	60.5	90.5	127.5	478.5	381.0	47.0	88.0	109.5	1835.5
2011	-	84.5	41.5	128.5	148.5	206.0	247.0	349.5	71.5	108.5	147.5	7.0	1540.0
2010	18.5	72.5	145.0	182.0	105.5	124.0	285.0	198.5	282.0	44.0	-	34.5	1491.5
2009	13.0	57.0	76.0	84.0	173.0	97.5	344.5	235.0	60.0	52.0	49.0	11.5	1041.0
2008	35.0	10.5	88.0	95.0	275.0	251.5	41.5	105.5	73.5	47.0	27.5	5.0	1055.0

5) 주변 해역조류

여수 인근 지역의 평균 해수면은 약 1.87m이고, 2015년도 연평균 고조위는 3.94m, 저조위는 -0.22m이다. 그리고 연평균 해수온도는 18.8℃, 최저온도는 8.3℃, 최고온도는 27.7℃로 해수온도 변동폭은 약 19.4℃이다. 연평균 염분농도는 29.2PSU, 연간 염분농도 변화는 27.7~30.4PSU이다.

6) 주변 환경

금오도는 돌산도 남쪽부터 금오열도에 이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섬이다. 금오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환경 훼손과 경관 파괴는 심하지 않아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자연환경 보전도 비교적 잘 되어 있다.

매봉산(382m)은 금오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산세가 험하지 않고, 해안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안 절경이 나타나며, 내륙의 산지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금오도의 북쪽에 돌산도, 북서쪽에 개도, 남쪽에 소리도가 있으며, 섬의 지형이 자라를 닮았다 하여 큰 자라라는 뜻으로 금오도라 한다. 여수반도 남쪽에서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줄지어 나타나는 섬들로서 금오열도라 하는데, 각 섬들의 남쪽 해안과 바다로 돌출된 부분에는 크고 작은 해식애가 연속적으로 분포하여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헤드랜드 사이의 작은 내만에는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퇴적해안이 나타난다.



금오도 서부 해안

7) 주변 도서

송고마을 북쪽으로는 대두라도가 위치하며, 여천마을 북쪽으로는 소두라도와 소황간도가 있고, 여천마을 동남쪽으로 문여와 가리여가 있다. 대유마을 동쪽으로 수항도가 있으며, 소유마을 동쪽으로는 물목섬과 형제도가 있다. 미포마을 북쪽으로는 오동도(오도), 동쪽으로는 초삼도, 중삼도, 외삼도가 있다. 장지마을과 대부도 사이에 소부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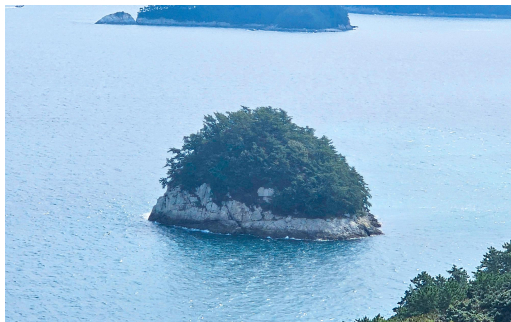
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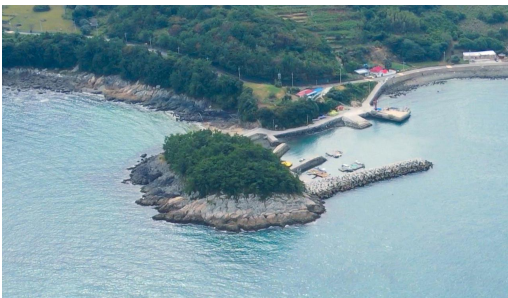
가리여



형제도



오동도



물목섬

다. 식생과 생태

금오도는 ‘거무섬’이라는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식생이 잘 발달하였던 도서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 금오도는 궁궐을 짓거나 보수할 때, 임금의 관(冠)을 짜거나 판옥선 등의 전선(戰船)을 만들 재료인 소나무를 기르고 가꾸던 황장봉산(黃腸封山)이었다. 소나무의 중요성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기간도 길었는데, 봉산으로서 금오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나타난다. 남면의 금오도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금오열도 지구로 국립공원법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호받고 있어서 비교적 산림이 잘 보존되고 있다. 남면의 섬들은 모암이 주로 현무암, 암산암, 유문암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식물이 살기 좋은 토양이어서 그 식생이 다양할 뿐 아니라 건강하다.

남면지역의 삼림군락은 곰솔군락, 소나무군락, 떡갈나무군락, 철쭉군락, 후박나무군락, 동백군락, 다정큰나무군락, 까마귀쪽나무군락 등이 있으며 아직은 곰솔군락이 전 지역에서 고루 분포하고, 도서지역에서는 드물게 소나무(참솔)군락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의 남면 유인도의 식생은 원래의 난대성 및 소나무속 수종의 훼손에 의하여 형성된 이차식생으로서 대상식생의 특징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반자연림의 이차식생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난대성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식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방풍림 소나무



금오치자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이 보이는 참나무군락이나 철쭉군락이 거의 보이지 않고 곰솔군락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전역에 흔치 않은

붓순나무와 금오도 특산종인 금오치자가 있다. 또한 금오도 장지마을 돌을별펜션 마당에 자라는 동백에서는 온화한 이 지역의 기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동백 겨우살이가 열린다. 남면사무소 앞마당에 북방한계선이 제주도라는 난대식물인 붓순나무가 예쁘게 꽃을 피우며 잘 자라고 있다. 금오도 심포마을에는 가정집 담장을 아왜나무로 울타리를 만든 가정이 있다.

금오도 쪽 경작지에서는 자급자족할 식량만을 주로 심지만 판매용 경작 식물로는 주로 ‘방풍’, ‘고사리’를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온난화로 난대식물인 천선과와 모람은 무화과로서 우리지역의 특화식물로 상품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백 겨우살이



방풍

1) 식물상

금오도에 출현하는 관속식물은 45목 133과 445속 636종 3아종, 101변종, 9품종 등 총 749종이 보고되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왕지네고사리, 곰비늘고사리, 처녀고사리, 참개별꽃, 산평의다리, 붉은대극, 궁궁이, 단풍취, 개미취, 석창포, 두루미천남성, 금난초, 은난초, 키다리난초, 일엽초 등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스레피나무가 분포역이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민가 주변으로 쇠뜨기, 실고사리, 주름조개풀, 띠, 억새, 보춘화, 짚신나물 등의 초본류와 예덕나무, 검양옻나무, 단풍나무, 음나무, 작살나무, 병꽃나무, 우묵사스레피, 리기다소나무, 노간주나무, 국수나무, 자귀나무, 팔배나무 등의 목본류가 출현하고 있다.³⁾

3) About 전남의 섬

금오도의 귀화식물

학명	우리 이름
Saururaceae <i>Houttuynia cordata</i> Thunb.	삼백초과 약모밀
Polygonaceae <i>Rumex acetocella</i> L. <i>Rumex conglomeratus</i> Murr. <i>Rumex crispus</i> L. <i>Rumex obtusifolius</i> L.	마디풀과 애기수영 묵발소리쟁이 소리쟁이 돌소리쟁이
Chenopodiaceae <i>Chenopodium album</i> L. <i>Chenopodium ficifolium</i> Smith	명아주과 흰명아주 쑤명아주
Amaranthaceae <i>Celosia argentea</i> L.	비름과 개맨드라미
Phytolaccaceae <i>Phytolacca americana</i> L.	자리공과 미국자리공
Caryophyllaceae <i>Cerastium glomeratum</i> Thuill.	석죽과 유럽점나도나물
Cruciferae <i>Brassica juncea</i> var. <i>integrifolia</i> Sinsk. <i>Barbarea vulgaris</i> R.Br. <i>Lepidium apetalum</i> Willd. <i>Lepidium virginicum</i> L.	십자화과 갯 유럽나도냉이 다닥냉이 콩다닥냉이
Leguminosae <i>Astragalus sinicus</i> L. <i>Medicago hispida</i> Gaertner <i>Mellilotus suaveolens</i> Ledeb. <i>Robinia pseudo-acacia</i> L. <i>Trifolium repens</i> L. 토끼풀	콩과 자운영 개자리 전동싸리 아카시아나무 토끼풀
Oxalidaceae <i>Oxalis articulata</i> Sav. <i>Oxalis corymbosa</i> Dc.	괭이밥과 덩이괭이밥 자주괭이밥
Euphorbiaceae <i>Euphorbia supina</i> Rafin.	대극과 애기땅빈대
Malvaceae <i>Malva sylvestris</i> var. <i>mauritanica</i> Mill.	아욱과 당아욱
Onagraceae <i>Oenothera biennis</i> L.	바늘꽃과 겹달맞이꽃
Convolvulaceae <i>Ipomoea purpurea</i> Roth	메꽃과 동근잎나팔꽃
Labiatae <i>Scutellaria baicalensis</i> Georgi	꿀풀과 황금

Solanaceae <i>Solanum nigrum</i> L.	가지과 까마중
Scrophulariaceae <i>Veronica arvensis</i> L. <i>Veronica persica</i> Poir.	현삼과 선개불알풀 큰개불알풀
Compositae <i>Ambrosia artemisiifolia</i> var. <i>elatior</i> Descourtil <i>Bidens frondosa</i> L. <i>Comos bipinnatus</i> Cav. <i>Coreopsis lanceolata</i> L. <i>Crassocephalum crepidioides</i> (Benth.) S. <i>Moore Erechtites hieracifolia</i> Raf. <i>Erigeron annuus</i> (L.) Pers. <i>Erigeron bonariensis</i> L. <i>Erigeron canadensis</i> L. <i>Erigeron sumatrensis</i> (Retz.) E. Walker <i>Helianthus tuberosus</i> L. <i>Rudbeckia bicolor</i> Nutt. <i>Senecio vulgaris</i> L. <i>Sonchus asper</i> (L.) Hill <i>Sonchus oleraceus</i> L. <i>Tagetes minuta</i> L. <i>Taraxacum officinale</i> Weber <i>Xanthium strumarium</i> L.	국화과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코스모스 큰금계국 주홍서나물 붉은서나물 개망초 실망초 망초 큰망초 뚱딴지 원추천인국 개쑥갓 큰방가지뚱 방가지뚱 만수국아재비 서양민들레 도꼬마리
Gramineae <i>Avena fatua</i> L. <i>Bromus unioloides</i> H.B.K. <i>Dactylis glomerata</i> L. <i>Eragrostis curvula</i> Nees <i>Festuca myuros</i> L. <i>Lolium multiflorum</i> Lam. <i>Lolium perenne</i> L. <i>Poa pratensis</i> L.	벼과 메귀리 큰이삭풀 오리새 능수참새그렁 들목새 쥐보리 호밀풀 왕포아풀

출처: 김하승·오장근(2010년)을 재구성함.

2) 육상동물⁴⁾

금오도에 분포하는 포유류는 5목 9과 12종이 서식하는데 두더지, 너구리, 수달, 고양이, 대륙사슴, 고라니, 염소, 집쥐, 생쥐, 등줄쥐, 관박쥐, 청솔모 등이다. 이 중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I급이면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대륙사슴(꽃사슴)이 방사로 인하여 서식하고 있다. 조류는 58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 멸종위기 II급에 해당하는 종은 붉은해오라기, 새홀리기, 수리부엉이, 팔색조, 삼광조 등 5종이며 특정종은 흑로,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검은등뺨꾸기,

4) About 전남의 섬

뼈꾸기, 병어리뼈꾸기, 두견, 쪽독새, 물총새, 할미새사촌, 노랑때까치, 검은딱새, 피꼬리 등 13종이 서식한다. 멸종위기 II급인 붉은해오라기는 두모저수지 인근 저지대 난대림 활엽수림 지대에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홀리기는 남면에서 서식한 개체가 확인되었다. 수리부엉이는 두모저수지 인근 야산 바위절벽에서 소리를 통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팔색조는 옥녀봉 능선에서, 삼광조는 유송리 활엽수림지대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섬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는 종은 꿩이갈매기, 참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제비, 직박구리 등이다. 양서파충류로는 도롱뇽, 청개구리, 참개구리, 도마뱀, 줄장지뱀, 유혈목이, 무자치,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15종이 분포한다. 금오도 작은 하천에 서식하는 줍수수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 해당한다. 줍수수치는 서식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이어서 서식지 보호가 필수이다. 수계에 분포하는 어류로는 붕어, 미꾸리, 자가사리, 풀망둑, 꼭저구, 날망둑, 사백어, 미끈망둑, 밀어, 복섬이다. 금오도에 서식하는 곤충 중 나비목은 12과 76종, 딱정벌레목은 11과 17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붉은칠납작벌레, 녀점박이송장벌레, 떡그림가지나방, 줄점불나방, 남방갈고리가 지나방, 넓은띠담흑수염나방, 네눈가지나방은 흔하게 발견된다.



줍수수치



수달

3) 해양생물

(1) 해조류의 분포

남면 해역의 해조류 분포는 2004년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한 Kang and Kim(2004)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해역을 금오도 서측(H1), 소리도 서측(H2), 소리도 동측(H4), 금오도 동측(H5)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부 정점 S1~S30을 나누어 암반조하대의 해조류 군집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해역에서는 해초류를 제외한 총 36종의 해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각 조사해역에서 피도가 평균 1%이상으로 출현한 종은 우뚝가사리(*Gelidium amansii*), 작은구슬산호말(*Corallina pilulifera*), 넓은게발(*Amphiroa dilatata*), 붉은까막살(*Carpopeltis cornea*), 잎꼬시래기(*Gracilaria textorii*), 비틀대모자반(*Sargassum sagamianum*), 구멍갈파래(*Ulva pertusa*), 개도박(*Pachmeniopsis lanceolata*), 미역(*Undaria pinnatifida*), 그리고 가시뼈대그물말(*Dictyoperis prolifera*)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남대 조사 연구인 수산자원감소에 따른 자원회복 방안 연구용역(발주처 : 여수시)에서 남면 화태리, 두라리, 함구미, 여천, 유송리, 안도 해역을 조사정점으로 2014년 10~11월(추계), 2015년 6월(하계) 2차례에 걸쳐 해조상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출현종은 총 69종으로 녹조류 4종, 갈조류 19종, 홍조류 46종으로 출현하였으며, 조사정점별 출현종수는 화태리에서 36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 두라리, 유송리, 안도에서는 비슷한 출현종수를 보였으나, 여천에서는 25종으로 가장 적은 종수를 보였다.

출현 생물량 분석결과 평균 합계 3051.8 gWWt/m²로 녹조류 208.2 gWWt/m²(6.8%), 갈조류 1187.9 gWWt/m²(38.9%), 홍조류 1655.7 gWWt/m²(54.3%)로 나타나 홍조류에서 가장 많은 생물량이 나타났다. 생물량에 의한 우점종 분석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팽생이모자반, 지층이, 툫 등의 갈조류와 우뚝가사리, 진두발, 두갈래분홍치 등의 홍조류가 우점하였다.

2015년 남면해역 조사정점별 해조류 출현종수(전남대. 2015)

	함구미	여천	유송리
녹조류	3	2	3
갈조류	9	5	8
홍조류	19	18	24
합계	31	25	35

2015년 남면해역 조사정점별 출현 생물량(gWWt/m²)(전남대. 2015)

	함구미	여천	유송리
녹조류	285.5	200.0	184.0
갈조류	259.6	402.5	1517.2
홍조류	490.0	504.8	1415.0
합계	1035.1	1107.3	3116.2

2015년 남면해역 생물량에 의한 우점종(전남대. 2015)

지역	우점종	준우점종
함구미	우뭇가사리	구멍갈파래, 청각, 톳, 긴까막살, 두갈래분홍치
여천	지층이	괭생이모자반, 고리마디게발, 서실, 우뭇가사리, 두갈래분홍치
유송리	미아베모자반	고리마디게발, 우뭇가사리, 긴까막살, 두갈래분홍치, 괭생이모자반

(2) 무척추동물의 분포

금오도를 비롯한 남면 지역에서 1998년도에 4회에 걸쳐 실시된 7개 암반조건대 조사정점에서 해면동물, 자포동물, 편형동물, 유형동물, 태형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및 척색동물 등 총 11문 176종 이상의 저서무척추동물들이 채집되었다. 이중 총 5문 9강 24목 65과에 속하는 158종의 무척추동물이 동정(同定)되었으며,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연체동물이 100종, 절지동물이 38종, 극피동물 12종, 해명동물 5종, 자포동물이 3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2011년 여수시 무인도실태조사(국토해양부, 2010, 2011)에서는 여수시 남면 소재 무인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남면 소재 조사 대상 무인도인 소부도, 외삼도, 중삼도, 초삼도, 알마도, 오동도, 물목섬, 대구몽암, 배다여, 소배다여, 구몽여, 작도, 소알마도, 검둥여, 기름여, 형제도, 문여, 대가리여, 후도, 소가리여, 몽여, 납작여, 동담여, 소구몽암 등 24개 무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24개 무인도서 암반조건대에서 채집된 저서무척추동물 중 연체동물에 속하는 종은 다판류 2종, 복족류 24종, 이매패류 10종 등 총 36종이 채집되었다. 이는 한국의 서·남해안 암반조건대에서 출현하는 연체동물 종으로 구성되었다.



잘피



해양생물

4) 보호수

남면 심장리 144번지(장지)에 팽나무, 631번지(심포)에 곰솔이 각각 지정번호 15-2-5-2, 15-2-5-3로 1982년 12월 3일 각각 지정되었다. 수령 약 200년, 150년과 높이 17m 정도의 크기이다. 남면 심장리 458번지(미포)에 동백나무가 2019년 3월 26일 지정번호 15-2-5-10으로 지정되었다. 수령은 300년, 수고는 10m, 둘레는 140cm이다. 두모리 945-16번지에 곰솔이 지정번호 15-2-5-1로 1982년 12월 3일에 지정되었다. 수령은 약 200년 높이 1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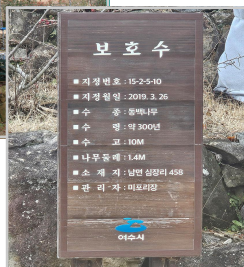
심장리 장지 보호수와 표지판(팽나무)



심장리 심포 보호수와 표지판(곰솔)



심장리 미포 보호수와 표지판(동백나무)



두모리 보호수(곰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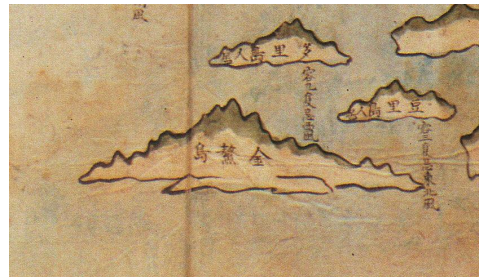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금오도는 1396년까지 순천부에 소속되었고, 1413년 내례포 만호진 관할 아래 있었으며, 1479년 전라좌수영의 관할이었다. 황장봉산으로 조선 후기 명성황후가 이 섬을 사슴목장으로 지정하여 출입·별채를 금하였다. 1885년(고종 22년) 선민회 반포로 봉산이 해제되었다. 이때 당시 관의 포수였던 박씨가 아들 3형제를 데리고 섬에 들어와 두포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1896년에는 두라도, 화태도, 횡간도, 안도와 함께 돌산군 금오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는 여수군에 소속되었다가, 1917년 금오면을 남면(南面)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여천군에 편입되었으며,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 남면으로 개칭되었다. 섬의 모양이 자라 같이 생겼다하여 '자라오(鰲)'자를 써서 금오도라 하였다.



대동여지도



호남연해형편도



순천방담진지도

나. 마을 유래와 연혁

1) 우학리(牛鶴里)

우학리는 내외진마을, 우실마을, 학동마을,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실마을에서 ‘우 자’, 학동마을에서 ‘학 자’를 따와서 우학리라 칭했다.

(1) 내외진(內外軫)마을

내외진마을은 남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로써 다시랑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북동쪽으로 능선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으며, 동쪽에는 안산이 있어 아담한 정취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북쪽으로



내외진마을

우실, 서쪽으로 학동, 남쪽으로 심포마을이 있고, 지형이 완만하게 우학항 내만에 자리잡고 있다.

1860년 인근 도서인 안도에서 화재(경신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 살던 함양여씨 응섭이 생활터전을 찾아 당시 봉산으로 조선 왕실에서 민간인 입주를 금지시켰던 이곳에 몰래 숨어들어와 정착하였는데 뒤를 이어 안도에서 김해김씨 재화와 돌산에서 밀양박씨 흥언이 이주해 와서 마을을 형성해 살던 중 서기 1885년 선민회(鮮民會) 혹은 허민회(許民會) 반포에 의거 봉산 해제로 민유화가 시작되어, 죽산안씨 무서와 성주배씨 윤영 등이 이주해 와 개척을 시작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2) 우실(牛室)마을



우실마을

오도를 개척할 때 주민들이 바다와 마을 사이에 우실을 만들어 ‘우실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우실마을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우실마을은 1868년 화양면에 거주하던 전주이씨 화숙이 생계가 어렵게 되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다니다 금오도의 건바위 끝 해안에 내려 몰래 밭을 일구고 처음 정착했으며, 이후 김해김씨, 밀양박씨 등이 이주해 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금

(3) 학동(鶴洞)마을



학동마을

되었다고 한다. 마을 서쪽에 ‘큰 멀개’와 ‘작은 멀개’가 있고 동쪽에 있는 산의 모형이 학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원학이라고 부르다가 해방 후 학동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남쪽에 ‘못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는 오래전 이곳에 못이 있었다하여 못동으로 불렀다고도 하고, 잔디밭이 넓게 깔려 있어 못동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못동은 떠실로 ‘띠밭마을’이 못동으로 잘못 와전된 것이다.

학동마을은 1878년경 화양면 장등에 살던 김녕김씨 화봉 형제가 도피하여 들어왔다가 아주 숨어 살게 됐다고 전한다. 이후 1880년경 삼산면 손죽도에 살던 김해김씨 유원이 들어오고 이어서 창원황씨, 밀양박씨, 경주최씨 등이 이주해 와 마을이 형성

2) 두모리(斗母里)

두모리는 모하마을과 두포마을, 직포마을, 3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두포마을에서 ‘두 자’, 모하마을에서 ‘모 자’를 따서 두모리라 하였다.

(1) 모하(母賀)마을

모하마을은 고흥군 외나로도 창포에 살던 김녕 김씨 승백이 금오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일가를 인솔하고 건너왔으나, 해변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내를 따라



모하마을

깊숙이 들어와 처음 정착했다 한다. 이후 전주이씨, 밀양박씨 등이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전한다.

마을 북부에 ‘누에머리’, ‘석문동’, 동부에 ‘사장골’, ‘연화동’이 있으며, 원래 이 마을에는 목화가 잘 되었던 곳으로 ‘목화동’이라 했다고 한다.

옛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이 주로 길쌈이어서 누에고치와 목화를 상징하는 ‘母’자와 옷이 귀한 자식에게 의복을 입혀줌이 경사스러워 ‘賀’자를 써서 마을 이름을 모하라 지었다고 유래한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남면 내에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유일한 마을로 과거에는 남면 내에서 가장 많은 쌀이 생산된 마을이었다.

(2) 두포(斗浦)마을



두포마을

두포마을은 관의 도포수(都砲手)였던 박치안이 1885년 처음 입주했고, 같은 해 금오도 조정에서 권농관이 파견되어 지금의 두포리 1367번지에 관사를 짓고 살았다. 1889년 6월 최순익이 초대 금오도 둔장(屯長)으로 임명받아 두포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두포는 초기 금오도 개척의 중심지였다. 금오

도가 봉산이었을 당시 사슴 수렵을 위해 내려오는 관포수들이 처음 도착한 개라하여 ‘첫개(한자어로 初浦)라 부르다가 그 후 옥녀봉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해 두포라 하였다 한다. 옥녀봉의 옥녀가 이곳 상거리(뽕나무 키우는 곳)에서 뽕을 따다 누에를 치고 누에고치는 말(斗)로 양을 측정하므로 인접마을인 모하가 곡창지대라 하여 곡식과 누에의 부피를 확인하는 말(斗)이 있어야 한다고 두포라 했다고 한다.

(3) 직포(織浦)마을



직포마을

직포마을은 1835년 화정면 개도에서 살던 천안김씨 인준과 밀양박씨 운구가 몰래 숨어 들어와 처음 정착했다 한다. 현재 마을의 노송 30여 그루는 그들이 정착 당시 방풍림으로 심었던 것이라 전해진다. 마을 동쪽 옥녀봉에 살던 선녀인 옥녀가 인근 모하, 두포마을에서 목화와 누에고치를 가져와 이곳에서 베를 짰다는 전

설이 있다. 그로 인해 베틀에서 날실의 틈을 고르게 해주는 도구인 보디(보대)에서 이름을 따 ‘보대’라 불렀고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직포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다. 지금도 주민들은 보대라고 부르고 있다.

3) 유송리(柳松里)

유송리는 함구미마을, 송고마을, 여천마을, 대유마을, 소유마을,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유마을의 ‘유자’와 송고마을의 ‘송자’를 따와서 유송리라 하였다.

(1) 함구미(含九味)마을

함구미마을은 1885년 화정면 개도에서 살던 김해김씨 익지 부부가 배를 타고 건너와 처음 정착했으며, 이후 성주배씨, 남평문씨, 전주이씨, 나주나씨 등이 들어와 숲을 굽고 땅을 일구어 살며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마을 서쪽에 대대산 줄기 끝부분이 용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가



함구미마을

여 용두라는 지명과 함께 해안변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아홉 골짜기의 절경을 이뤄 이를 상징해 함구미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함구미는 한구미가 변한 말로 큰 포구를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2) 송고(松高)마을

송고마을은 1879년경 소라면 달천에 살던 김해김씨 양단이 조정의 명으로 금오도에 사슴 사냥을 나왔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해 와 처음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후 밀양박씨, 나주김씨 등이 들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예로부터 ‘솔고지’라 부르다가 송고(松高)라고 이름지었다 한다. 솔고지는 ‘가늘고 긴 곳’이란 의미로 마을 서북쪽에 위치한 지형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유자나무를 1~3주씩 가지고 있는 등 유자단지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송고마을

(3) 여천(汝泉)마을



여천마을

여천마을은 1886년 돌산도에 살던 4형제 중 막내인 전주이씨 영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곳에 들어와 처음 정착했으며 이후 김해김씨, 전주이씨 등이 들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마을 뒤편에 대부산의 줄기를 타고 대목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산이 뿔이 내리면서 작은 봉우리 2개를 형성하고, 그 모양새가 여자의 젓가슴처럼 생겼으며, 그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계곡물이 맑고 깨끗해 여천(女泉)으로 불리다가 여천(汝泉)으로 고쳐 사용했다고 한다. 경작지가 협소하여 낙후한 마을이었으나 40여 년 전부터 동력선에 의한 연근해어업이 발달하였으며, 돌산 신기항에서 출발하는 차도선이 운행되면서 마을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여천마을은 1886년 돌산도에 살던 4형제 중 막내인 전주이씨 영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곳에 들어와 처음 정착했으며 이후 김해김씨, 전주이씨 등이 들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마을 뒤편에 대부산의 줄기를 타고 대목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산이 뿔이 내리면서 작은 봉우리 2개를 형성하고, 그 모양새가 여자의 젓가슴처럼 생겼으며, 그

(4) 대유(大柳)마을



대유마을

마을을 이루고 있는 해변의 들이 버드나무처럼 길게 뻗어있어 버들개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금오도가 봉산이었을 당시 관포수들이 사슴 사냥을 위해 기거하던 '사냥막터'와 사슴물이를 위한 '쫓치막터' 등의 지명이 지금도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사슴 사냥의 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대유마을은 1869년경 돌산에서 살던 천안전씨 덕순이 마을 앞의 작은 섬 수향도에 가족을 데려와 살다가 버들개마을로 몰래 숨어들어와 정착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1872년경 돌산에서 성주배씨 근오가 이주해 왔고 동학 혁명에 가담했다가 피신처를 찾아 숨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5) 소유(小柳)마을

소유마을은 1838년경 돌산도 봉양에서 살던 밀양박씨 주언이 정착했고 이후 성주배씨, 곡성마씨 등이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버들개마을의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지형적인 여건상 ‘큰 버들개’와 ‘작은 버들개’로 분리되어 소유(小柳)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작은 버들개’라고 부르고 있다.



소유마을

(6) 수항도(水項島)마을



수항도

수항도마을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 사라져 버린 마을이다. 수항도는 본래 버들개마을에서 ‘섬목섬’이라 부르던 섬이다. 소유마을 남동쪽에 썰물이면 육지와 연결되는 섬의 이름이 ‘물목섬’으로 한자로 옮기면 ‘물 수(水)’자와 ‘목 항(項)’자, ‘섬 도(島)’자를 써서 ‘수항도’가 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물목섬의 이름인 수항도가 섬목섬과 바뀌어서 지도에 등록되면서 수항도로 굳어지게 되었다.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섬목섬이라 부르고 수항도라고 한다.

1960~70년대에 6가구가 살았던 섬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불편한 교통 등의 여건으로 주민이 감소했다. 2000년대 초반에 2가구 3명의 주민이 살고 있을 때 KBS의 아름다운 섬으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주민이 모두 떠나고 강아지 한 마리가 섬에 남아있을 때 강아지를 굶겨서는 안된다는 반려동물 보호 여론으로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항도마을의 배승규 씨는 여순사건 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배승규 씨와 장남, 대유의 박병원, 서백일 씨 등이 함께 여수로 끌려갔다. 이후 애기섬에서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일이 지난 후 장남의 시신이 마을 앞 해변으로 떠 밀려왔다. 당시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집을 나가기 전 부인이 뜨개질로 만든 조끼모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수습된 시신은 큰 암석개에 있는 대유공동묘지에 묻었다. 당시 주민들은 억울한 혼백이 죽어서도 직선거리 23km나 되는 마을을 찾아와 놀라워했다고 한다.

4) 심장리(深張里)

심장리는 심포마을과 미포마을, 장지마을, 3개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포마을에서 ‘심 자’, 장지마을에서 ‘장 자’를 따와서 심장리라 하였다.

(1) 심포(深浦)마을



심포마을

심포마을은 1850년경 전주이씨 풍년이 역적으로 몰려 도망 다니다 형과 함께 처음으로 이곳에 숨어 들어와 살았다 한다. 이후 1860년 안도 대화재 때 김해김씨 영섭과 초계최씨 윤경 등 이재민이 이주해 오면서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마을이 위치한 곳이 금오도의 남서쪽

포구로써 포구가 깊다하여 ‘깊은 개’라 부르다 심포로 명명되었다 한다.

(2) 미포(尾浦)마을

미포마을은 1850년경 화정면 사도에 살던 인동장씨 성옥, 성철 형제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 이곳에 표류한 뒤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들어와 정착했다 한다. 그후 1860년 안도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김해김씨, 밀양박씨, 진주강씨 등 이재민들이 이주해 와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심포 망산이 있는 곳의 '해안마을'이란 의미로 망기미라고 부르는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지관이 우학리를 소에 비유하여 이 마을의 해안 돌출 부분이 소의 꼬리에 해당된다고 하여 미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이 마을을 '망끄미'라 부르고 있다.



미포마을

(3) 장지(張芝)마을

장지마을은 1800년경 김해김씨가 부근 섬 안도에 유배되어 살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장지마을에 건너와 정착하였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후손들은 없다. 1860년 안도에서 살던 김해김씨 세도가 안도 대화재 이후 몰래 숨어들어와 정착했고, 이어 경주임씨, 전주이씨 등이 이주해 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마을 해변이 길게 늘어져 자갈이 깔려있다 하여 '진작지'로도 불려오다가 장지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마을사람들은 진작지라고 부른다.



장지마을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여천 조개더미

금오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여천마을의 조개더미 유적이다. 이 유적은 유송리 여천마을 동쪽의 바닷가에 위치한다.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조개더미층이 드러난 면적은 동-서 30m, 남-북 15m 정도의 작은 규모이다. 조개더미층은 흑갈색 자갈층 위에 형성되어 있으나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류는 14점으로 특징은 굽은줄무늬토기와 가는금무늬토기, 세모점줄무늬토기 등 점줄무늬 그리고 겹아가리토기 등 남해안 지방 신석기시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내용과 비슷한 것이 특징적이다. 돌산 송도에서는 덧무늬토기가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데, 이 유적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토기의 모양을 종합해 볼 때, 빗살무늬토기는 서해안 신석기시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세모점줄무늬토기는 동북부 지방과 관련된 남해안 신석기시대 문화 요소로 추정된다. 빗금으로 된 점줄무늬토기는 남해안 신석기시대 늦은 시기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물로 남해안의 특징적인 유물로 추정된다. 이 유적에서는 서해안과 동해안의 신석기시대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북촌리 유적과 같은 세모점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전파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유적이 형성된 연대는 비슷한 토기류가 출토된 유적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로 보아 신석기시대에서 민무늬토기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기, 즉 B.C. 15~10세기 (2,000~3,500년 전) 쯤으로 추정된다.

석기류는 모두 4종이 수집되었는데, 그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여천조개더미

여천 출토 유물

재 질	규 격	특 징	용 도	비 고
장석질사암	길이 6.7cm 너비 3.9cm 두께 1.5cm	납작하며 전면이 고르게 깔려 매끄럽다.	숫돌로 추정	
중성화성암류	길이 4.9cm 너비 4.4cm 두께 3.4cm	입자가 커로 떨어진다. 다량 출토	긱개	
유문암	길이 2.7cm 두께 3.2cm	겉면은 반질거리고 날은 날카롭다.	찍개	
석영반암제	길이 4.8cm 지름 3.6cm ~4.0cm	타원형 둥글고 매끄럽다.	사냥돌로 추정	

2) 고인돌

금오도에 있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우실 고인돌군과 두모리 고인돌군이 있다. 우실 고인돌군은 여남초등학교에서 두모리로 넘어가는 도로를 따라 500m를 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이 삼거리의 남쪽 밭에 고인돌 3기가 있다. 삼거리 남쪽에는 해발 82m 정도의 낮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의 북쪽 사면 끝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며, 크기는 135×95×55cm이고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현재 고인돌군이 위치했던 밭을 개간하면서 고인돌을 도로 건너편 길가에 방치해 두었다.

두모리 고인돌군 유적은 우학리에서 서쪽 두모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200m 떨어진 밭에 있으며, 고인돌 7기가 북-서 방향으로 일렬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다. 완전히 드러난 것은 2기이며, 나머지는 땅에 묻혀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우실고인돌 원래 위치



방치된 우실고인돌(추정)

두모리 고인돌 현황

연번	상석			덧개돌 형태	긴축 방향	비고
	길이	너비	두께			
1	130	120	·	부정형	북-서	땅속에 묻혀 있음
2	180	160	50	정방형	북-서	
3	150	70	·	장방형	북-서	땅속에 묻혀 있음
4	100	60	·	장방형	북-서	땅속에 묻혀 있음
5	70	50	·	타원형	북-서	땅속에 묻혀 있음
6	50	40	·	부정형	북-서	땅속에 묻혀 있음
7	90	40	50	부정형	북-서	

3) 금오도 망산망대(金鰲島 望山望臺)⁵⁾

남면 심장리 산 199번지의 북위 34° 29' 32.26" 동경 127° 46' 56.51"의 해발 343.6m의 망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서쪽으로 심포마을과 남동쪽으로 장지마을을 끼고 있다. 북쪽 2.4km 지점에 남면사무소 소재지인 우학리가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안도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연도가 자리하고 있다. 장지마을 서쪽 인근에 '망기미'라는 지명의 마을이 위치한다.

금오도 망산망대에 대한 고문헌이나 고지도의 기록은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고려 말 왜구의 출몰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다.⁶⁾ 이곳에서는 바다와 섬이 사방으로 한눈에 조망되어 남해안 방어의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산의 능선을 따라 망대 인근까지 밭으로 사용하다 묵힌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망대의 동남쪽으로 우물지가 있다.

망산망대는 1997년도에 여수시에서 정비한 요망으로, 당초 요망 유적은 높이 약 2~4m, 하단지름 약 8m의 나선형 오름길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동남쪽은 훼손이 심하였으나, 서북쪽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하부는 대형 자연적으로 상부로 올라갈수록 작은 석재를 이용하였다고 한다.⁷⁾ 정비된 망대는 원형으로 높이 4.8m, 하부지름 8.0m, 상부지름 4.8m이며, 상부는 높이 1.0m의 성곽 형태이다.

오름길은 나선형으로 남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는 폭 0.7m의 계단으로 되어있다. 망대를 중심으로 높이 1.4m, 지름 24.0m의 방호축대가 축조되어 있으며,

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 2019.

6) 남면지발간추진위원회, 『남면지』, 1999, 82쪽

7) 남면지발간추진위원회, 『남면지』, 1999, 82쪽

망대 주변의 정비로 인한 훼손으로 주거지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안도요망 2.9km, 연도요망 7.9km, 향일암요망 11.3km이다. 장지마을과 심포마을에서 잘 개설된 등산로를 따라 망대에 오를 수 있다.



연대 전경



연대 상부



수습 수마석



동쪽 우물지

4) 기념비

(1) 민공○○비(閔公○○碑)

미포마을 부둣가에 위치한다. 비의 전면에는 閔公○○碑라고 음각되어 있다. 비의 크기는 136×54×16cm이고, 전체 높이는 175cm이다.

비는 명문이 있는 부분을 비롯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의 판독은 불가능하지만, 개국 5백년 신묘 10월에 승정대부 민○○이 이곳을 다녀간 것을 기념하여 금오도 면민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2) 금오도 개척 100주년 기념비

남면사무소 옆에 있는 비석으로 금오도 개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6년 10월 26일 면민이 건립하였다.



민공○○비



금오도개척 100주년 기념비/ 금오도민유지해결기념비

(3) 금오도민유지해결기념비(金鰲島民有地解決記念碑)

금오도개척 100주년 기념비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봉산(封山)이던 금오도가 1885년 선민회 반포로 민유지로 해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18년에 건립하였다.

전면에는 ‘金鰲島民有地解決記念碑’라 음각되어 있고, 비의 뒷면에는 ‘大正七年\八月十五日’이라 음각되어 있어 1918년 8월에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의 크기는 136×45×43cm이고, 전체 높이는 200cm이다.

(4) 남면전화점화기념비

내외진마을 중앙의 한국전력공사 남면 출장소 부지 안에 있다. 한전 전기가 처음으로 점화(點火)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78년 12월 5일에 건립하였다.



남면전화점화기념비

(5) 금오도 100주년 기념비

두포마을 중앙에 있는 기념비로 금오도 개척이 두포에서 처음 시작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을 맞아 주민 일동이 1985년 1월에 건립하였다.

(6)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비

이기풍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순교와 그의 순교를 기리는 기념비로 2008년 10월 24일에 건립되었다.

이기풍 목사는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1868년 11월 21일 평양 순영리에서 출생하였고 1942년 6월 20일 아침 8시에 우학리교회 사택에서 사망하였다. 이기풍 목사의 유해는 우학리에 안장되었다가 1953년 5월 9일 전남노회 주선으로 광주기독교인의 묘지에 이장되었다가 후손들의 뜻에 따라 1988년 4월 광주제일교회 묘지에 이장되어 있다.



금오도 100주년 기념비

(7) 독립운동가 정두범 기념비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비



독립운동가 정두범 기념비

남면 우학리 출신으로 1919년 광주 승일학교 학생 대표로 3월 10일 광주 장날을 이용해 교사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등 사전 준비 후 당일 오후 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선언서와 독립가 등을 배포하며 만세 시위를 벌여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해 10월 27일 경성고등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수피아 여학교 출신인 부인 강화선(康華善) 씨도 광주만세운동에 참여했으나 미성년자여서 51일간 옥고를 치르고 방면된 항일운동가이다.

2004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다.

라. 금오도의 어제와 오늘

1) 황장봉산(黃腸封山)

봉산(封山)에는 황장봉산, 진목봉산, 울목봉산, 향탄봉산, 인삼봉산 등이 있는데 조선시대 금오도는 궁궐을 짓거나 보수할 때, 임금의 관(冠)을 짜거나 판옥선 등의 전선(戰船)을 만들 재료인 소나무를 기르고 가꾸던 황장봉산(黃腸封山)이었다. 소나무의 중요성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기간도 길었는데, 봉산으로서 금오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나타난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병선(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개인적으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법으로 정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나무를 찍어 베어(斫伐) 개인의 배를 짓고, 혹은 집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여러 섬(島)과 각 곳(串)의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 순천부(順天府)의 송도(松島), 장성포곳(長省浦串), 삼일포곳(三日浦串), 경도(京島), 금오도(金鰲島) 등 위에 기록된(上項) 주현(州縣)의 섬(島)과 곳(串)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는 것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로 하여금 감독 관리하고 배양하여 용도가 있을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세종 30년(1448) 8월 27일 경진조.

조선시대에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금오도를 지키기 위해 섬을 비워두는(空島) 것과 황장목의 관리와 개발을 통해 세금을 걷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내수사의 보고서(報狀)에 창의궁(彰義宮)에 노비와 논밭과 집을 절반만 내려주는(賜與) 대신 순천(順天) 금오도의 산허리 아래에 있는 여섯 마을이 비어 있는 땅으로서 전답을 만들 수 있는 곳을 내수사에 소속시켜 세금을 면제(免稅)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 허용해서는 안 될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창의궁은 내수사에 매여 있지 않은데 내수사에서 보고한(報狀) 내용은 진실로 의아스럽다. 시행치 않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비변사등록』 영조 1년(1725년) 4월 2일.

위 기록에 따르면 영조(1725) 이전에 금오도에는 6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890년대부터 금오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사실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듣건대 전라도 순천부에는 이른바 금오도라는 섬이 있는 바, 바로 황장목(黃腸木)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좌수영에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황장목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도벌하는 폐단이 날로 심해져 점점 민둥산이 되는 처지에 이르렀고 산 아래 옥토로 경작할 만한 땅이 버려져 있는 것이 애석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순무어사(巡撫御使)와 경차관 및 본도 도사(都事)가 적간한 후에 모두 백성들이 들어가서 경작하게 하자는 뜻으로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

그 후 본부(순천부)에서 순영(巡營 : 監營)에 조사하여 보고하니 순영에서도 경작을 허가하였으나 유독 수영에서 지휘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까닭을 적어서 올리던 보고(防報)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무릇 수영에서 해마다 채취해 쓰는 것은 가시나무 약간과 노루가죽 몇 장(張) 뿐인데, 수영에서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막중한 황장목이 날로 도벌되고 그 많은 옥토가 목도록 방치되니 이 어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지금 만일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을 갈아먹게 하고 산에 있는 금송(禁松)도 주인을 시켜 잘 지키게 하되 만일 잘못 지키면 법에 의하여 엄중히 징계하며, 수영에서 쓰는 물건도 주인으로 하여금 담당하여 바치게 하고 기타 연해의 모든 산물도 수영으로 하여금 종전대로 맡아서 다스리게(旬管) 한다면 수영에는 조금도 손해가 없고 소나무를 길러 재물을 생산하는 면에서도 실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비변사등록』 영조 1년(1725년) 8월 10일.

18세기 이전에 6개의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황장목 관리를 위해 섬을 비워 두었던 금오도에 다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하였다.

금오도(金鰲島)에 백성이 들어가 경작하도록 명하였으니,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의 계청(啓請)에 따른 것이다.

『영조실록』8권, 영조 1년(1725) 11월 26일 경신조.

왕이 금오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한 이후, 논밭과 집을 팔아 이 섬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 수백 호에 달하였으나, 황장목의 보호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섬을 비워 두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금오도는 다시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금오도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던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고 말았다.

지난 달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조태억(趙泰億)이 아뢰기를 … “신이 호남의 좌수영(左水營)에 부임해 있을 때 순천의 금오도를 백성들에게 갈아먹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바다를 건너 들어가 섬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니 소나무와 키 큰 참나무가 하늘을 가리듯 촘촘히 서 있는데 모두가 두어 아름씩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행(使行 : 조선 통신사) 때에 바다를 건너는 배의 타목(柁木)과 통영·수영의 전선(戰船)의 미목(尾木)을 모두 이곳에서 가져오는데 조정에서 들어가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근의 백성들이 종부시에서 절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답과 주택을 팔고 흘러

들어간 자가 자그마치 수백여 호에 달하였습니다. 나무를 베고 땅을 일구려 하는데 절수 문제가 도로 취소되어 흘러 들어갔던 백성들은 대부분 도로 나왔으나 모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되었으니 진정 가엾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별장(別將)이라 하는 자가 먼저 큰 나무를 베어 널판을 만들어 사방으로 내어다 팔므로 곤양 사람도 이를 사들인 자가 있습니다. 이는 역시 눈으로 본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 오래 기른 나무가 도리어 일을 감독하는 자의 사사 주머니로 들어가니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비변사등록』 영조 3년(1727년) 10월 1일.

한편, 내수사(內需司)·종부시(宗簿寺) 등의 관청뿐만 아니라 영빈궁(寧嬪宮)과 같은 궁궐에서도 금오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 세금을 거두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남 어사 홍자(洪粹)가 복명(復命)하고 서계 별단(書啓別單)을 바쳤는데, 이르기름, … “금오도는 황장목을 봉(封)한 곳으로, 영음(營邑)·진읍(鎭邑)의 전선(戰船)·병선(兵船)과 통신사의 도해선(渡海船) 및 각 군문의 기계 등의 물건을 오로지 이곳에 의지하고 있는데, 요즈음 영빈궁(寧嬪宮)에 그 땅을 떼어주었으니(折受), 특별히 성명(成命)을 거두어 본도에 도로 붙이소서” 하였는데, 비변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영조실록』82권, 영조 30년(1754) 7월 23일 경자조.

황장봉산이었던 금오도는 전라좌수영 관할 아래 방답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고종 2년(1865) 9월 태풍 때문에 쓰러진 소나무들을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활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성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태풍으로 소나무들이 거의 쓰러져버림으로써 봉산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전라좌수영 및 가리포진(加里浦鎭)에서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風落松) 40,457주를 영건 도감(營建監)에 보내도록 하다.

『일성록』, 고종 2년(1865) 9월 3일.

전라 감사 조재응의 장계에, 좌수영 및 가리포 진영에 바람에 꺾인 소나무의 그루 수를 기록하여 올려 보낸다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영건 도감에 보내어 조치하게 하라.”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년(1865) 9월 3일 을축조.

돌산군의 역사책인 『여산지(廬山誌)』에 서병수 군수는 금오도 봉산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봉산(封山)

봉산에 나무 항상 아름답게 울울창창하여 가히 열리지 못하였더니
십년만에 산이 빨갈게 되니 누가 대풍에 꺾어졌다 말하고
바다에는 배로 생업을 하는데 지금은 그 선재가 모자라는 도다.

2) 해안 방비의 요충지 금오도

금오도는 남해안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로 큰 파도를 피해서 지나가기 위해서는 두라도와 사이의 금오수도(한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금오수도는 조선시대 계해약조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고초도(거문도)를 갈 때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필수 항로이기도 하다. 이는 사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먼저 『세종실록』에는 대마도의 일본인들이 현재의 거문도와 초도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다니던 뱃길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

… 참판 허후(許翹)가 의논해 아뢰기를, “비록 고기 낚는 배라도 당치않은 곳(非處)에 이르면 왜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이미 일찍부터 약속을 정한 것이 온데, 이제 안도(安島)와 금모도(今毛島 : 금오도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는 고기 낚는 배가 왕래하는 곳이 아니옵고 … 참판 윤형(尹炯)·참판 신인손(辛引孫)·형조 판서 안승선(安崇善)·우참찬 이숙치(李叔峙)·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좌찬성 하연(河演) 등은 말하기를, … 안도와 금모도는 아마 고초도(孤草島 : 삼산면 거문도와 초도)를 왕래하는 데에 멀지 않은 곳인 듯 하옵니다. … 정연 최부(崔府)·우찬성 최사강(崔士康)·영의정 황희(黃喜) 등은 말하기를, … “물길이 굽고 곧은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이옵니다. 망망대해에 여러 섬들이 뒤섞여 있사오니, 어떻게 그 굽고 곧음을 분별할 수 있사오며, 저 도적들이 셋길(斜路)로 다니면서 혹은 바람에 밀리었다 일컫고, 혹은 곧은 길이라고 일컬어 분별하기가 심히 어렵사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시켜서 안도와 금모도의 형편과 지세포로부터 고초도로 가는 길의 굽고 곧음을 살피게 하라.”하며, 전라도 관찰사와 처치사 및 송계사(宋繼祀)에게 전지하기를, “안도와 금모도가 고초도로 왕래하는 곧은 길인가 아닌가를 영리한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가서 살피고 보고하라.”하였다.

『세종실록』99권, 세종 25년 2월 28일 갑인조.

생활이 어려웠던 대마도 사람들은 조선 정부에 거문도와 초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조선 정부는 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고, 경상도 지세포를 지키던 수군만호가 인정하는 문서(文引)를 지닌 사람에게 한하여 정해진 바닷길로만 다닌다는 조건을 내세워 허락하였다. 그러나

위 기록에 따르면 거문도 부근으로 고기잡이를 떠난 일본인들이 정해진 뱃길을 벗어나 안도와 금오도를 거쳐 감으로써 조선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논의한 것이다.

다음은 조선 성종~연산군 때 금오도 주변 해역은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는 자료들이다.

전라도 경차관(全羅道敬差官) 이영희(李永禧)·유순정(柳順汀)이 치계(馳啓)하기를, … 신 등이 물가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서는 왜인이 심하게 날뛰지 않았었는데, 7~8년 사이에 고기잡이와 해물을 채취하는 왜인이 우리나라의 고기잡이배를 만나면 양식을 빌어가거나 겁탈하기도 하며, 만약 거절하면 반드시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왜인을 만나게 되면 비록 상대는 적고 우리는 많더라도 적과 대항할 뜻이 없고 오히려 의복과 식량을 주면서 피해(傷害)를 면하기만을 바라며, 또 백성(愚民)들은 나라의 국문이 싫어서 비록 노략질을 당하여도 숨기고 말하지 않습니다.”고 합니다. 신 등이 또 들으니, … 순천(順天)의 경계는 돌산도(突山島), 방답도(防踏島), 금오도(金鰲島) 등까지인데, 그 곳을 자주 왕래하면서 틈을 타 도적질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왜적이 올 적에는 반드시 동풍(東風)을 기다리므로, 8~9월이나 2~3월 사이에 날뛰고 겨울에는 절대로 왕래하지 않으니, 잡기가 어렵습니다. …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왜적은 동풍을 기다려서 오는데, 요즈음은 날씨가 추우니, 바다에 출입(出入)하면서 수색해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차관(敬差官)은 올라오고, 감사(監司)와 수사(水使)에게 다시 유시(諭示)하여 방어를 더 엄하게 하도록 하라.”하였다.

『성종실록』248권, 성종 21년(1490) 12월 13일 경신조.

순천(順天) 금오도(金鰲島)를 범하므로 이량(李良)이 추격하여 배 한 척을 잡고 한 척은 도망갔는데, 쏘아 죽인 자가 8명이요, 생포된 자가 2명입니다. 공초에 이르기를 “저희들은 바로 제포(濟浦)에 거주하는 왜인이요, 도망간 배의 두 사람도 역시 추장 사두(沙豆)의 집 사람이다.” 하니, 꾸짖고 벌주어 후일을 징계하도록 하시옵소서. … 남쪽의 방어가 심히 허술하오니, 계속 용서해 줄 때에는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청컨대 여러 대신(大臣)에게 수의하옵소서.”하니, 명하여 증경 정승(曾經政丞) 및 의정부에 수의하게 하였다.

『연산군일기』28권, 연산군 3년(1497) 11월 1일.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조선시대 금오도는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이곳에 왜구의 침입 여부를 조사하고 토벌하던 군인(搜討將)까지 배치하고 있었다.

전라 감사·병사·좌수사의 서장(書狀)이 들어왔는데, 낙안땅의 금오도 수토장(搜討將)이 왜선과 만나 서로 싸웠다 하였다.

『선조실록』7권, 선조 6년(1573) 6월 9일 정사조.

임진왜란 직전 금오도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난중일기』에 나타나 있다.

임진년(1592) 2월 초 3일

새벽에 우후(虞侯)가 각 포구의 부전 사실을 조사할 일로 배를 타고 나갔다. … 탐라(제주도) 사람이 아들딸 여섯 식구를 데리고 도망해 나와서 금오도에 대었다가 방답진의 경비선에 잡혔다고 사환을 올려 보냈기에 문초를 받고 승평(순천)으로 보내어 가두어 두라고 공문을 써 보냈다.

4월 22일

새벽에 적의 정세도 살피고 부정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군관들을 내어 보냈다. … 송일성(宋日成)은 군인 50명을 데리고 금오도로 갔다.

3) 금오도에 표류한 외국인

외국의 배가 항해 하던 가운데 배가 난파되어 외국인들이 금오도에 표착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조선 정부에서 심문을 받고 절차에 따라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 주변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호남 금오도(金鰲島)에 표류해 달은 사람 9명을 북경(北京)으로 압송해 가는 일은 이미 아뢰어 결정했습니다. 신유년에 표류한 사람 26명을 들여보낼 때에는 표류하게 된 사연 및 장차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공식적인 외교 문서(咨文)를 지어 별도로 역관을 정해 우선 군문(衙門)에 보고하고, 압송해 갈 무신(武臣) 및 역관을 또 차관(差官)으로 삼아 뒤따라 데리고 갔었습니다. 갑자년에 표류한 사람 3명을 들여보낼 때에도 중국 조정에 외교 문서를 가지고 가던 사신(齎咨官)으로 하여금 그대로 데리고 가게 해 책문(柵門)에 들어간 후 표류한 사람은 봉황성(鳳凰城)에 넘겨주어 차례로 압송하도록 하고, 역관은 자문만 가지고 북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표류한 사람을 압송하는 사유를 기일 전에 저쪽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자문을 가지고 갈 역관과 데리고 갈 관원을 앞뒤로 출발시키는 것도 폐단이 있으니, 갑자년의 예에 의해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 이로써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비변사등록』 숙종 12년(1686) 8월 22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표착해 왔을 때, 그들 나라로 돌아가기 전까지 조선 정부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배려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금오도(金鰲島)에 표류해 달은 사람은 이미 서울로 압송하게 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도착할 것입니다. 갑자년의 예에 의해 미리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남별궁(南別宮)의 남자 일꾼들이 거처하는 방을 수리해 머무르는 장소로 삼고, 음식 등을 주는 일은 전례에 따라 거행해야 합니다. 또 금군(禁軍) 가운데서 일을 잘 아는 한 사람을 가려 유위군(留衛軍) 7, 8명을 거느리고 특별히 지켜서 잡인들이 출입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본사 낭청 한 사람과 말을 알아듣는 통역관 몇 사람으로 하여금 표류해 달은 정상을 다시 캐물은 후 북경으로 압송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비변사등록』 숙종 12년(1686) 8월 28일.

아뢰기를 “금오도(金鰲島)에 표류해 달은 9명이 어제 들어온 후 본사 낭청과 통역관들로 하여금 사정을 묻게 하였는데, 출신지와 배가 난파당한 이유가 한결같이 당초 호남에서 대답한 것과 같아서 그 물은 정상과 말을 별단(別單)으로 써 들입니다.

표류한 사람에게 사정을 물은 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 “너희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곳 사람인가?”

답 : “저희들은 아홉 사람인데, 다섯 사람은 복건성(福建省) 천주부(泉州府) 동안현(同安縣)에 살고, 4명은 장주부(漳州府) 용계현(龍溪縣)사람입니다.”

문 : “너희들은 언제 무슨 일로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표류해 달았느냐?”

답 : “저희들은 6월 2일, 장사하는 일로 동안현 하문항(廈門港)에서 배를 출발시켜 일본을 향해 갔는데,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폭풍을 만나 본국에 표류해 달았습니다.”

문 : “일본으로 가고자 했다면 순풍과 일본에 도착하는 기간, 거리가 이루어진 곳은 어디인가?”

답 : “하문항에서 서남풍이 불면 배를 띄워 7일이면 일본에 도착하며, 매매하는 곳은 나가사키(長崎島)입니다.” …

문 : “하문항에서 일본으로 갈 때 이른바 대만이란 곳이 거쳐 가는 가까운 곳에 있는가?”

답 : “대만은 정남쪽에 있고, 일본은 동남쪽에 있어 경유하는 곳이 아니며, 하문과 대만은 일본과의 거리가 모두 7일이 걸립니다.”

… 전에 결정한 대로 즉시 그대로 북경(北京)으로 압송해야 하지만 한 사람이 전라도에 있을 때부터 감기(寒疾)에 걸려 오랫동안 낫지 않으니 의사(醫司)로 하여금 약을 지어 주어 잘 치료하도록 하여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즉시 출발시켜야 마땅합니다. 또 표류한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본도에 분부하여 비록 이미 남자가 입는 저고리(襦衣)를 만들어 주었으나 앞으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입고 있는 옷으로는 먼 길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조에서 전례에 따라 저고리와 바지, 모자(戰笠)·신·버선·띠 등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나누어 주어 나라에서 우대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비변사등록』 숙종 12년(1686) 9월 17일.

외국인들을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기 이전에 그들의 활동에 대한 심문 기록은 일본이 나가사키(長崎)에 제한적 개방 정책을 실시한 것과 중국에서 일본과

대만과의 거리 등 당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조선시대 안도 역시 금오도와 마찬가지로 왜구가 침입해 왔던 길목 또는 그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 수사(水使) 김세한(金世幹)의 계본(啓本)을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조정이 막 우려하고 있는 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해조(該曹) 및 비변사(備邊司)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활에 능한 사람을 가려 임시로 보내도록 하라.”

바닷물 속에 들어가 조개·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국가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소금에 말려 진상하는 사람(鮑作干)이 해물(海物)을 캐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갔는데, 14일에 큰 왜선(倭船) 3척이 안도(安島) 동라구(冬羅仇)에 정박하여 돌아오는 길을 막았다. 이에 첨사(僉使) 김덕로(金德老) 등이 추격하여 왜인 5명을 죽이고 도검(刀劍) 등의 물건을 노획하였다.

『명종실록』 명종 1년(1546) 9월 25일 기묘조.

4) 명례궁과 금오도 사슴목장

1885년 이전까지 금오도는 황장봉산으로써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창평집(昌平集)』을 들 수 있는데, 책 내용에 「렵소기행시(獵所紀行詩)」 22수가 전해지고 있다. 이 시의 서문에 따르면 1882년 5월 사슴피를 마시기 위해 순천 금오도의 사냥터에 갔다가 지었다고 밝히고 있어, 금오도에 사슴이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종 때 금오도를 민비(1851~1895)가 살고 있던 명례궁에 하사했으며, 명례궁에서는 이곳에 사슴 목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1889년에 작성된 『승정원일기』(고종 26년 1월 28일 갑술조)에 의하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수탈을 피해 금오도에 들어가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생활은 순천부, 전라좌수영, 방담첨사진 등으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오도가 한 때 명례궁 소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슴목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례궁이란 경운궁, 덕수궁의 다른 이름으로 금오도는 명례궁 소속의 궁방전으로 금오도 사슴목장 역시 명례궁 소유였다. 그리고 궁방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分家) 독립한 궁가(宮家)에 급여한 전토(田土),

궁장토(宮庄土)라고도 한다.

다음 소개하는 ‘명례궁 소속 금오도 기간전 봉세성책’이란 금오도는 조선 초부터 송봉산(松封山)으로 주민의 주거가 허락되지 않다가 1885년 ‘을유허민령’에 의하여 금오도의 개간이 시작되고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봉세성책은 개간이 시작된 4년 후 명례궁에서 토지세를 받은 장부로서 당시 금오도의 개간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다.

봉세성책

明禮宮所屬金鰲島起墾田捧稅成冊 戊子 十月 日(고종 25년, 1888년)

초포(初浦)	신운봉 田 2斗
홍재수 田 5升	고경서 田 3斗升
조성국 垡田 5升	라순오 田 2斗 2升
김성칠 垡田 2升	윤성칠 田 4升
이문갑 垡田 3升	임윤집 田 2升
명경화 垡田 4升	임군실 田 1斗 2升
김남해 垡田 3升	오영백 田 16斗 3升
김성운 垡田 3升	박윤칠 田 16斗
신양오 垡田 3升	박성로 田 4斗
정내길 垡田 3升	김복순 田 6斗 7升
박석순 田 12斗 5升	김성화 田 12斗 3升
박영준 田 4斗 8升	오윤서 田 10斗 8升
최순익 田 1石 1斗 7升	김봉석 田 9斗 9升
조성서 垡田 3升	이양협 田 10斗 8升
최흥렬 田 8斗 9升	신성일 田 2斗 9升
최계문 田 2斗 1升	이대일 田 2升
고성준 田 6斗	이양오 田 19斗 4升
이양서 田 8斗 6升	고영서 田 19斗 5升
장공이 田 5斗 5升	김성순 田 2斗 5升
고영화 田 11斗 4升	김달원 田 2斗 5升
배복돌 田 8升	박명섭 田 2石 9斗 4升
임달성 田 1石 1斗 4升	조희열 田 10斗 4升
배대진 田 2斗 2	홍원익 田 1斗 8升
노정삼 田 3斗 3升	김윤일 田 1石 8斗 4升
최방언 田 3斗	김학서 田 2斗 3升
지영준 田 3斗 5升	
이득신 田 2升	已上 合 田 17石 15斗 2升

금오도에 남아있는 사슴목장 관련 지명은 포수들이 살았다는 송고의 관철수, 포수들이 막을 치고 살았다는 대유의 사냥막터와 쪼치막터가 있고 전설로는 대유에 살았던 김경택이란 분이 사슴을 지키는 도방을 서다가 사슴을 잡아먹고 나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는데 사슴이 보약이 되어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순천부사를 지낸 김윤식이 금오도의 사슴에 대해 언급한 ‘금오도’란 시이다.



사냥막터



쪼치막터

금오도(金鰲島)

김윤식⁸⁾

바다 기후는 온전히 개인 날이 없고
 초목은 안개비에 잠겨 있네
 넓고 아득하여 하늘에 닿아 있고
 우거지고 뻥뻥하여 산구비를 의지했네
 고랑구멍에서는 개구리 울고
 조수 머리에서는 물고기 뛰도네
 평상 아래에서는 방게가 달음질 하고
 처마끝에서는 박쥐가 노네

海候無全晴
 霾瘴銷草木
 浩渺接天心
 蒙密依出問
 谷窮鳴金鑼
 潮頭翻銀屋
 床下走蟊螭
 簷端遊蝙蝠

8)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자(字)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이다. 고종 11년(1874) 문과에 급제하여, 고종 17년(1880) 4월 25일 순천부사가 되었다. 순천부사로 근무하던 1881년에는 1618년 이수광(李睟光)이 편찬한 『승평지』와 1729년 홍중징(洪重徵)이 보완한 『중간 승평지』를 참고로 『신증승평지(新增昇平誌)』를 편찬하였다. 문집으로 『운양집(雲養集)』이 있으며, 저서로 『천진담초(天津談草)』, 『음청사(陰晴史)』 등이 있다.

거친 사슴이 낮에 다니고
 처량하게 두견이 새벽에 우네
 아침에는 새소리 번거로움이 싫고
 밤에는 모기 입부리의 독이 고롭도
 물에 거꾸로 들어가 전복을 따네
 들은 있되 밭에 세금이 없고
 물에는 이름없는 어족이 많네
 이곳에 와서 고기잡이로 늙고자 하니
 그 어찌 세상을 홀로 등지는고
 괴롭고 즐거움이 이에 서로 다르니
 모양이 쭉그러 들지 않는구나

麤麤鹿晝行
 啾啾鶉曉哭
 朝壓鳥聲煩
 煩拾幽蟻
 倒水摘潛鰓
 原有不稅田
 水多無名族
 就此欲老漁
 其奈違世獨
 苦樂縱相參
 形神不蹙蹙

5) 금오도 개발과 이주회

사람이 살지 못했던 금오도에 다시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로 이는 이주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종 21년(1884) 금오도의 봉산이 해제되어 좌수영 소유지로 이관되자, 막장이었던 이주회의 건의에 따라 고종 22년 일반인에게 개간을 허가함으로써 사방에서 이주민들이 모여들어 불과 10년 이내에 골짜기마다 많은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이주회(李周會, 1843~1895)의 호는 남주(南州), 자는 풍영(豐榮)으로 1843년 경기도 광주 산성리에서 태어났다. 무과를 거쳐서 오위장에 올랐고, 병인양요(1866년) 때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는 데 공로를 세워 대원군의 눈에 들었다. 그 공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일현감(6품)으로 승진하였고, 그 후 외무위원까지 올랐으며, 이때 김옥균, 우범선 등과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이주회는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도 김옥균과의 친교로 화를 입을까 두려워 1885년 일본으로 도망쳤다. 이때부터 3년간 그는 도쿄 간다(神田) 묘진시(明神祠) 부근에서 와타나베(渡邊)라는 사람의 딸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린 서화를 여자가 밖에 내다 팔아 근근이 먹고 살았다고 한다.

이주회는 일본으로 도망간 지 3년 만에 사면되었다. 사면을 받고 귀국한 그는 자원하여 금오도 도사(都事)로 내려갔지만,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이주회는

금오도에 형 이제영과 가족을 데리고 가서 개간 사업을 벌였는데, 이 개간 사업에 가렴주구를 피해 들어온 여수 지역의 농어민들을 동원하였다. 이렇게 개간된 섬은 한때 4개 마을 600여 호로 번창하였다.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수탈을 피해 금오도에 들어가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생활은 순천부, 전라좌수영, 방답첨사진 등으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주회에 관한 기록은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풍영(이주회)은 서울 사람으로 10년 전에 가솔들을 이끌고 금오도에 와 살았는데, 섬과 수영의 거리는 칠십 리 정도였다. 풍영은 원래 일본과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못 그를 의심하였다.

이풍영 또는 풍년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주회가 금오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남면 일부 사람들은 그를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는 철저한 친일파로서 활동했다. 그가 섬에 있을 때인 1892년 가을, 다케다 한지(武田範之)가 조선에 침략의 거점을 마련하고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오도로 이주회를 찾아왔다. 이때 이주회는 다케다와 더불어 어선 8척과 일본인 어부 30명을 고용하여 대대적인 고기잡이 사업을 벌였지만 냉동시설이 없어 이듬해 봄에 파산하고 말았다.

1894년 7월 22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왕과 왕비를 감금하고 친일 정부를 세우게 하자 농민군 수뇌부는 8월 25일 남원에서 농민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척왜(斥倭)를 표방하며, 제2차 봉기를 결정하였다. 농민군의 봉기는 이주회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는 전라좌수영의 도영장(都營將)으로 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다. 농민군이 전라좌수영을 공격하여 함락 위기에 처하자 좌수사였던 김철규는 일본군 스쿠바(筑波) 함대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일본어가 가능한 이주회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일본 우익 낭인과 교류하면서 친일파로 전락하여 반제국주의(반일)의 기치를 내세운 농민군을 적대시했으며, 농민군에게 한번 패한 적이 있는 개인적인 원한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광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밤중에 도영장 주회는 각 초소에 영을 내려 20일, 아침 8시쯤 일제히 군사를 동원 사병들에게는 아침도 먹이지 않고 성과 진지를 떠나 약 30리 길을 걸어 산 위에다가 진을 쳤다. 아침도 안 먹인 병사들은 지쳐있는데다가 날이 벌써 석양 무렵이 되었을 때는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다.

이에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병사들은 벌써 싸우기도 전에 死色이었다. 마침내 동학군이 산으로 치올려 총을 쏘아대며 차츰 기어 올라오자 영병들 역시 맞서서 총을 쏘며 대적한지 반시각도 못되어서 도영장은 기를 흔들며 퇴각하라고 하며, 저 먼저 앞장서 달아나니 전체 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상하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에 여념이 없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전술에 나아가는데도 법이 있고 물러남에 있어서도 방비가 있어야 되거늘 주회는 어째서 이런 용병을 하였는지! 이렇게 되자 동학군들은 몇 만 명의 대군을 몰아 바람처럼 덮쳐오니 산과 들이 피로 물들여지고 말았다.9)

일본군이 농민군 진압에 나서자 이주회는 좌수영 군대를 이끌고 일본군과 함께 하동-광양-낙안-보성-장흥 등의 농민군을 살육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의 공로로 스쿠바호 함장 구로오카(黒岡帶刀)가 이노우에 주한 공사에 천거하고, 다시 이노우에가 박영효 내무대신에게 압력을 넣어, 김홍집 친일 내각의 군부협판에 파격적으로 발탁되었다.

1895년 삼국 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쇠퇴하고 민비를 정점으로 한 민씨 세력이 권력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자, 그는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때 새로 부임한 미우라 일본 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 당국은 '민비 제거' 계획을 세우고,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여기에 이주회는 조선 측 주범으로 가담하였는데, 그의 역할은 대원군을 이 사건에 관련시키고 우범선, 구연수 등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체포된 뒤 대역 죄인으로 1895년 12월 19일 처형당하였다.

6) 금오도의 여순사건

금오도 역시 여순사건 당시 피해가 컸다. 특히 송고마을과 대유·소유 등에서 희생자가 많았는데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과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에 이르기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함구미마을에서 문춘재는 좌익 활동가로 진압군에 의해 여수에서 체포되어 총살되었으며, 임기택은 당시 진압군(5연대)에 의해 체포되어 행방불명되었다. 나병수는 특경대에 의해 마을에서 총살되었다. 심장리에서 정육인(24세)은 14연대 입대 후 사건이 나자 행방불명되었다(월북했다는 설도 있다).

유송리 송고마을에서는 김덕환(27세)은 당시 치안대장으로 좌익활동가는 아니었지만,

9) 『여수·여천향토지』

5연대에 의해 체포, 여수로 이송되어 사살되었다. 박선동(23세)은 당시 치안부대장으로 사상은 없었다고 전해지며, 5연대에 의해 체포되어 여수로 이송, 사살되었다. 임일행(23세)은 당시 14연대 군인으로 특경에 의해 여수에서 총살당한 후 시체가 고향인 송고로 떠내려 왔으며, 가옥은 전소되었다. 임정방(22세)은 당시 14연대 군인으로 특경에 의해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고, 가옥이 전소되었다. 김동근(22세)은 당시 14연대 군인으로 특경에 의해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으며, 가옥은 전소되었다. 박종길(22세)은 당시 14연대 위생병으로 사건 후 행방불명되었고, 역시 가옥은 전소되었다.

임진행은 보도연맹 당시 경찰에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박재수(23세)는 14연대 군인이었는데, 진압군(김종원)에게 끌려가 매를 많이 맞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김복수는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이었는데, 진압군에 의해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으며, 가옥 또한 전소되었다.

대유와 소유마을에서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이 많았는데 서백일은 보도연맹원으로 경찰에 의해 애기섬으로 끌려가 수장되었다.

서백룡, 서정왕, 오정호, 배승기, 배일동은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오동도 앞바다에서 애기섬으로 끌려가 수장되었다. 한덕운, 오채수, 박정확은 체포되어 전주형무소 수감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처형되었다.

황도성, 박병현, 김유곤, 오채근과 오채근의 처는 한국전쟁 당시 영암경찰에 의해 연도 싱갱이도에서 총살되어 수장되었다. 김경환은 당시 14연대 군인이었는데, 사건 후 행방불명되었다.

7) 금오도의 초분(草墳)

초분은 세계적으로 시베리아로부터 대만, 오키나와 열도, 인도네시아, 태평양 제도,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지역 등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으나 풍장과는 다른 형태의 장례문화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에 따라 초빈, 외빈, 초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금오도에서는 외분, 출분 등으로 많이 불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남해와

다도해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나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된 후 서서히 사라져갔다. 여수지역에는 금오도의 초분이 널리 알려졌는데 금오도에도 초분이 상당히 많았다.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미리 정해놓은 자리가 그 해에 고인과 운세가 맞지 않으면, 바로 매장하지 않고 초분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매장하려면 반드시 못자리를 사들여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있었다. 다만 초분을 마구 쓰지 않았는데 어린이가 죽었을 때나 어른이라도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변사하거나 횡사한 경우 등에는 초분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초분을 만들 때는 인가와 떨어진 양지바른 곳에 돌로 단을 촘촘히 쌓고 그 위에 관을 잘 모시고, 소나무로 튼튼히 고정시켜 가지로 촘촘하게 엮은 뒤에 솔갱이로 엮고, 벚짚으로 날개를 엮어 초가지붕을 만들듯 아래에서 위로 덮어씌워서 비는 막고, 바람은 잘 통하게 하였다.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가정집처럼 해마다 벚짚을 엮어 지붕을 다시 이었다.

초분은 정월과 이월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땅을 다룰 수 없으며, 진송장으로선 산에 묻힐 수 없다는 생각과 망인의 유언에 따른다. 토장(土葬)과는 달리 초분으로 할 경우에는 장지까지 운구하는 과정은 같으나 하관하는 절차는 없다. 관이 장지에 도착하면 산신제를 지내고 관을 올려놓을 수 있게 돌밭을 고른 후 통나무를 가지런하게 놓고 그 위에 관을 안치한다. 안치가 끝나면 벚짚 날개 3장 정도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새끼줄을 가로, 세로로 엮은 다음 새끼줄 끝에 돌맹이를 매달거나 말뚝을 박는다. 그리고 초분에 군데군데 소나무잎을 꽂기도 하고 초분 주위에 돌담을 쌓아 짐승들의 접근을 막는다. 벚짚 날개는 해마다 새로 엮어 손없고 깨끗한 날을 잡아 갈아준다. 자주 돌봐야 하는 관계로 뒷자리가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집 근처 야산이나 밭등성이 등의 돌밭에 썼다가 3~5년이 지나면 이장(移葬)을 한다.



초분

8) 비령길 조성



비령길 4코스 출렁다리

2010년 금오도의 벼랑을 따라 이어진 마을길을 생태탐방로인 비령길로 제안하였고, 2012년 5개 코스가 완성되었다. 금오도 비령길은 2011년 전라남도과 전남 발전연구원에서 남도문화생태탐방로 대표길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마을 녹색길 BEST 10'으로 지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거듭났다.



금오도비령길 1코스 용머리

해안 절벽을 따라 빨감을 구하고 낚시를 하러 다녔던 금오도 비령길,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표준말 '벼랑'의 여수사투리가 '비령'이다. 비령길이 시작되는 금오도 함구미 선착장. 크고 작은 어선들이 즐비하고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투명함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선착장을 벗어나 비렁길 입구에 다다르면 금오도 특산품인 방풍나물이 지천이다. 이 나물을 먹으면 풍을 예방함은 물론 남자의 바람기를 없애준다는 설이 있어 재미를 더해 준다. 우거진 산림 속에는 희귀식물인 고란초 군락이 반기고 취나물, 고사리, 참가시나무, 생강나무, 비자나무, 목이버섯 등이 자라 식생보존이 잘 되어있음을 실감한다.

섬 속살에 취함도 잠시, 30분 정도 걷다보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용머리(용두)에 다가선다. 사람 키를 넘는 역새발과 다도해 절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저절로 카메라에 손이 간다.

총 길이 18.5km

- 1코스 : 5km (2시간 소요) 함구미-미역널방-송광사절터-신선대-두포
- 2코스 : 3.5km (1시간 소요) 두포-굴등전망대-춧대바위-직포
- 3코스 : 3.5km (1시간 소요) 직포-갈바람통전망대-매봉전망대-학동
- 4코스 : 3.2km (1시간 소요) 학동-사다리통전망대-출렁다리-따순기미전망대-심포
- 5코스 : 3.3km (1시간 소요) 심포-막포전망대-숲구지전망대-장지

(1) 1코스

| 5km (2시간 소요) 함구미-미역널방-송광사절터-신선대-두포

500여 미터를 지나면 100여 미터가 넘는 직벽바위에 널따란 공간이 펼쳐진다. 미역널방, 숨이 막힐 정도로 웅장하다. 바다에서 미역을 따다 말렸다가하여 얻은 이름이지만 조상들은 이곳에서 배를 깔고 상어를 낚았다 말할 정도로 많은 인연과 사연을 가진 비렁이다. 바로 옆에는 수달이 자주 모여 놀았다하여 '수달피비렁'이라고 이름 붙은 비렁도 운치를 더한다.

테크(나무로 연결된 길)를 타고 비렁을 돌면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이 세운 송광사라는 전설 속의 절터에 다다른다. 지눌은 좋은 절터를 찾기 위해 새 세마리를 날려 보냈는데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 국사전에, 다른 한 마리는 고흥 금산 송광암에, 마지막 한 마리는 금오도에 날아왔다는 설로 이를 삼송광(三松廣)이라 부른다.

절터를 벗어나 신선이 앉아 놀았다는 신선바위까지는 2km 남짓. '인어공주',

‘혈의 누’, ‘하늘과 바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등의 영화촬영지로 선택될 정도로 시원한 바다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유래된 섬사람들의 장례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초분’도 인상적이다.

(2) 2코스

| 3.5km (1시간 소요) 두포-굴등전망대-촛대바위-직포

길에 들어온 지 어느덧 1시간 30분, 금오도에 처음으로 사람이 들어와 살아서 첫개(初浦), 초포라고 불리는 두포마을 입구에 자리한 불무곶이 발길을 잡는다. 경복궁을 만들 당시 금오도에서 나무를 가져갔는데 나무를 베기 위해 필요한 연장을 만들던 풀무간(대장간)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풀무간에서 쓰던 웅달샘만 남아있다.

두포에서 바다 전망이 일품인 굴등전망대까지는 1.7km 정도. 굴등은 절벽 위에 형성된 독특한 마을이다. 전망대가 자리할 정도로 낮에 보는 경치도 유명하지만, 밤에는 나그네를 몽환에 빠뜨릴 정도로 달과 별빛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마을 주민의 안녕을 기원했던 촛대바위를 뒤로하고 어느덧 해수욕장과 300년 넘는 해안 노송이 인상적인 직포에 이르자 3시간 30분의 비렁길 2코스는 잠시 자취를 감춘다.



금오도비렁길

(3) 3코스

| 3.5km (1시간 소요) 직포-갈바람통전망대-매봉전망대-학동

직포에 들어서자 풀밭과 동백숲으로 우거진 산길이 반긴다. 비탈을 한참 오르다 만난 동백나무와 울창한 숲은 하늘을 가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하리만치 낭만과 신비로움을 더한다.

직포는 마을 동부 옥녀봉의 선녀인 옥녀가 인근 모하, 두포마을에서 목화와 누에 고치를 가져와 이곳에서 베를 짰다고 하여 베틀의 보대에서 이름을 '보대'라 부르다가 직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서동남쪽으로 마전등산이 높지는 않으나 마을을 감싸고 있고, 남쪽 끝에는 매봉이 우뚝 솟아 바다와 기암절벽이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민가가 있는 해안 쪽은 깊숙이 파인 포구와 등천에 자리 잡은 노송 30여 그루가 세월의 흔적만큼 포근함을 더해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숲을 빠져나오자 깎아 놓은 듯한 기암괴석과 눈부신 해안길이 '비렁길'의 이름값이라도 하듯, 하나하나 곳곳이 절경이다. 갈바람통전망대에서 잠시 땀을 식히고자 앉아 마주한 바다와 절벽의 풍경에 마음을 뺏긴다. 운 좋은 날엔 토종 고래 상괘이떼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매봉전망대에 서면 내 몸이 바다로 곤두박질칠 것 같은 아찔함에 소름마저 돋는다. 깔끔하게 정비된 탐방로는 눈이 부시도록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고, 갯내음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학동마을에 다다른다.

(4) 4코스

| 3.2km (1시간 소요) 학동-사다리통전망대-출렁다리-따순기미전망대-심포

학동에서 사다리통전망대로 향하는 길,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바다를 벗 삼아 걷다보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듯 매력적이다. 이어 도착한 사다리통전망대. 망망대해와 깎아내린 듯한 웅장한 기암절벽 앞에서 한 없이 작은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과 마주하게 된다.

이후 만나는 출렁다리는 2014년에 만들었다. 길이가 42.6m, 폭 2m다. 협곡에 다 다리를 걸쳐났다. 중간에 투명강화유리를 설치하여 아찔한 벼랑의 절경을 체험할 수 있다. 길 곳곳에 이색적이고 아름답게 조성된 야생화에 눈이 즐겁고, 귀를 파고드는 파도소리에 자연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된다. 자연에 취해 걷다 보면 어느덧 포구가 깊다하여 '깊은 개'에서 유래된 심포마을에 다다른다.

(5) 5코스

| 3.3km (1시간 소요) 심포-막포전망대-숲구지전망대-장지

비령길은 각 코스마다 휴식과 다음 여정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화장실은 물론 정자와 벤치가 잘 갖추어져 있다. 잠시 휴식을 권하고 싶어 나타난 듯한 심포마을은 한 겨울에도 중급 감성돔을 낚을 수 있을 정도로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다. 거친 호흡을 추슬러 가벼운 산책로를 따라 힘겹게 망산봉수대에 오르면 가슴이 땀 뚫릴 만큼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 풍경에 내려오기 싫을 정도로 빠져들고 만다. 해돋이와 해넘이 명소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긴다. 내려오는 길 역시 안락한 포구가 인상적인 안도가 한 눈에 들어와 그림 같은 풍경은 그칠 줄 모른다. 이윽고 마을 해안을 따라 길게 자갈이 깔려 있다하여 ‘진작지’라 불리는 장지마을에 도착하면 금오도 비령길은 끝이 난다. 몸은 지쳐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아름다운 자연이 내어 준 감동과 매력 탓에 영혼은 맑아진다. 비령길은 이제 관광객들 사이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인기와 유명세를 얻고 있다. 다녀온 사람들마저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추천할 만큼 모든 이들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강한 생명력, 그리고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사람들의 많은 인연과 행복을 만들어 주며 슬한 이야기를 연일 만들어가고 있는 마음의 길이기도 한 곳이다.



금오도비령길

마. 금오도의 사라진 마을¹⁰⁾

남면 지역의 사라진 마을 대부분은 산업화로 인한 이농 현상으로 주민이 감소하고 이사를 떠나면서 마을이 없어졌다. 남면 안도의 상산동의 경우는 1959년 발생했던 태풍 사라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사라호 태풍이 불면서 마을의 생명을 갈랐던 작은 배들이 파손되자 발농사 외에 필요한 돈을 만들어 주던 소득원이 없어졌다. 농번기를 지나고 나면 주민들은 이웃 안도나 이야포마을에서 남의 배를 타면서 돈벌이를 하다 점차 큰 마을로 이사하는 집이 늘어나게 되었다.

남면의 큰섬인 금오도에서 사라진 마을들은 대부분이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앞에 배를 댈 수 있는 선창이 없는 마을이 대부분 사라졌다. 배가 없으면 섬 지역에서의 소득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발농사 위주로는 가계소득이 한계에 도달했다. 거기에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젊은이들은 섬을 떠나게 되었고 고령자는 사망하면서 마을 공동화가 진행되자 한두 집씩 남아있던 작은 마을에서 더는 살 수 없게 되었다. 금오도에서 사라진 막개, 따순기미, 내외진안골, 검바위, 어드미, 느진목, 조피동, 가는고지, 굴등, 양지포, 신선대, 중터, 용머리, 불장터 마을 모두가 마을 앞 선창이 없거나 산골 마을이었다.

유송리의 수향도는 유송리 대유·소유마을 앞에 있는 작은 섬으로 소유마을과 가까운 섬이었지만 행정은 대유마을에 포함된 반으로 운영되었다. 수향도는 최근 살던 주민이 모두 이주하여 사실상 무인도가 되었다.

1) 심장리 막개마을



막개

(1) 위치 : 여수시 남면 심장리 714번지 일대

10)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의 사라진 마을 조사보고서』, 2021.

(2) 마을 연혁과 현황

심포마을 남쪽에 있던 마을로 금오도의 꼬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포구라는 의미로 막개라고 하였다. 현재 막개마을에는 집이 모두 사라지고 잡초가 우거진 빈터만 남아 있다.

(3) 마을의 에피소드

막개마을은 선창을 둘 만한 해변이 없어 막개에 배를 두지 못하고 심포에 배를 정박하였다. 막개에서 심포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로 방앗간이 막개에 없었기 때문에 30여 분 거리를 지게로 져서 옮겨야 했다. 보리타작을 하려면 막개에서 보리타작 기계를 옮겨야 했는데 타작기계를 짊어지는 힘 좋은 사람을 구해야 했다.

막개마을은 심포마을과 별도로 당제를 지냈다. 이야기를 들려준 김순자 할머니는 45세에 홀로 되었는데 남편이 살아있던 40대에 막개마을 당주를 맡았다. 당시 정월 초이튿날 당제를 지냈는데 당제를 지내기 6개월 전부터 빨리 당주를 선출했다. 당제를 지내기 전 선달 보름쯤이면 당주집 사립문에 막대기를 걸쳐두어 사람 출입을 금했다. 당주는 따로 잠을 자고 음식을 하던 부인도 제를 모시는 날이면 새벽 찬물에 목욕재계를 하고 이른 새벽 첫 물을 길어서 음식을 만들었다. 막개에서는 당집은 따로 없이 자밤나무를 당목으로 모셨는데 당목 주변으로 담장을 둘렀으며, 마을이 없어진 지금도 막개를 지키고 있다.

제사는 당산나무 앞 제단에 모셨다. 당주를 하면 좋은 복을 받는다는 믿음과 주변의 권유로 당주를 2년을 맡았다고 한다. 당주가 되면 남편은 물론 부인도 친정을 가지 않고, 굶은일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 굶은일은 아이를 낳은 집, 초상집 등 이었다고 한다. 제를 모시는 날은 젓 먹는 아이가 있어도 남에게 맡기고, 당주는 잠을 따로 잘 뿐 아니라 부부간의 말도 금하면서 제사에 정성을 쏟았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막개 주민들로 구성된 운상계가 있어서 마을에서 초상을 치렀다. 상여는 마을에서 만들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는 농협에서 상여와 장례 도구를 가져와서 초상을 치렀다.

막개 주변 해안 물속에는 대형 홍합이 많았다. 손바닥만큼 커다란 홍합은 남면 일대의 자랑이었다. 물속 깊은 곳에서 홍합이 자라기 때문에 해녀의 물질이 필요했다. 이웃 심포마을에는 제주에서 시집온 해녀가 있어서 물질을 했지만, 막개에는 해녀가 없어 남자들이 자맥질을 하면서 홍합을 채취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대형 홍합은 지금은 근해에서 보기가 어렵고 멀리 작도

부근까지 나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근해에 홍합이 사라진 이유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든다.

2) 심장리 따순기미 (溫金洞)마을



따순기미마을터

(1) 위치 : 여수시 남면 심장리 1048번지 일대

(2) 마을 연혁과 현황

따순기미는 여수시 남면 심장리 심포마을에 속했던 작은 마을로 심포리 4반으로도 불렸다. 이장은 심포리 전체에서 선발하고, 4반은 따순기미마을로 구성되었다. 따순기미의 위치는 심포마을 앞 심포만의 서쪽 끝부분에 있었다. 마을 뒤쪽인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 마을 앞은 정남향이며, 심포만의 끄트머리에 바다가 자리하고 있어 사시사철 해를 받아 겨울에도 따뜻한 지역이어서 따뜻한 해변이란 의미로 ‘따순기미’라 했다. 따순기미를 한자로 바꿔서 ‘온금동(溫金洞)’이라고도 하였다. 금오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1885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마을로 2000년대에 들어와 주민이 모두 이주하여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터만 남아 있다.

따순기미에는 따로 당집은 없었으며, 정월 대보름 매구도 심포마을과 함께 쳤다. 장례식은 심포마을과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만들어진 상여를 이용하여 따순기미에서 노제를 지내고 장지로 이동했다. 일손이 부족하면 심포마을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

현재 따순기미마을은 비렁길 4코스에 위치하여 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공터만 남아 있다.

(3) 마을의 에피소드

따순기미마을은 바닷가 마을임에도 마을 앞 선창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여 배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 심포마을 주변은 산지가 많아 주민들이 허민령이 내려진 후 섬에 들어와 밭을 많이 개간하였기에 농지는 넉넉한 편이었다. 대략 가구마다 2,000여 평의 밭들이 있어서 스무 마지기 정도의 밭이면 농사짓기엔 많은 땅이었다. 비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긴 했지만, 적지 않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여건 때문에 바닷가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이룰 수 있었다.

1960~70년대에는 넓은 밭에 고구마를 많이 심어서 주정원료인 ‘빼깡이’라고 부르던 ‘절간고구마’를 많이 생산하였다. 절간고구마는 수확한 고구마를 다시 7mm 내외의 두께로 잘라서 밭에 넓게 펼쳐 말린 뒤에 가마니에 담아 주정회사나 농협 등에 판매하였다. 절간고구마를 얇게 저며서 말리는 공정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 절간고구마의 공출을 위해 마을 단위의 공출마당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작로나 넓은 길이 있던 다른 지역의 시골 마을에는 리어카 등이 들어오면서 일손을 덜었지만, 따순기미마을은 산길로 이어진 진입로와 배도 당기가 어려운 마을 여건 때문에 대부분 지게에 의존해 운송해야 했다.



고구마 자르기



절간고구마 말리기

말려진 절간고구마 가마니는 따순기미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산트러미 해안까지 지게로 나른 뒤에, 심포에서 빌려온 배를 이용하여 심포로 이동한 다음 다시 지게로 쳐서 공출마당으로 옮겨야 했다. 옛 마을에서 이주한 뒤에야 지게 등짐에서 벗어났는데 주민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을 물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지게등짐이라고 답변한다.

여수시 남면 심장리에 속했던 따순기미마을은 마을 주변의 해안선이 배의 접근이

어려워 섬이었지만 농사를 위주로 살아가는 마을이었다. 옛날 농사를 지어 자급 자족하던 시절이 아니기에 밭농사가 많았던 주민들의 가계소득에 고구마는 큰 힘이 되었다.

3) 내외진리 안골마을



안골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우학리 800번지 일대

(2) 마을 연혁과 현황

여수시 남면 우학리에 있는 내외진마을은 마을 앞 포구의 바깥에 있는 바깥 포구를 ‘밖진개’ 안쪽 포구를 ‘안진개’라 한데서 유래하고 있다. 마을 이름은 한자로 고쳐 적어 안진개는 한자로 ‘내진(內津)’이라 하고, 밖진개는 ‘외진(外津)’이라 했다. 이 마을은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갯물’이라고도 하였고, 남면의 중심 나루가 있는 포구란 의미로 ‘진포(津浦)’라고도 불렀다.

내외진마을 안쪽 깊은 골짜기에서도 마을을 이루었는데 이곳을 ‘안골’이라 불렀다. 안골은 법정리는 우학리에 속하고, 행정리는 내외진리에 속하면서 단독마을인 내외진마을 5반으로 안골마을만 한 반으로 구성되어 살아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마을주민 자녀들은 도시로 진출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면서 산업화의 영향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왔던 부모 세대는 노령화로 인해 사망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점차 마을을 떠나 인근 마을이나 성장한 자녀들이 사는 도회지로 이주하였다. 지금은 주민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

현재 안골마을에는 빈집이 3~4호 남아있으며,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살 준비를 하는 집이 1호가 있다.

(3) 마을의 에피소드

안골마을은 개척 당시에 논과 밭을 일굴만한 땅이 많아서 전답은 많은 편이었다. 마을의 마태진 씨와 강태문 씨의 경우 논밭이 2만여 평이나 될 정도로 땅이 많았다. 주민 대부분도 땅이 적지 않아 안골마을은 부유한 마을이었다고 한다.

안골마을에서 이주한 이유는 먼저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객선으로 여수로 나가려고 해도 안골마을에서 포구까지 30분이나 걸어가야 했다.

안골마을은 예전부터 주민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다. 안골마을의 주민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마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영향으로 안골 출신 목사가 6명이나 되며, 이야기를 해주신 김기남 씨의 가족도 며느리와 사위를 비롯해 6명이 목회자라고 한다. 교회의 영향으로 안골마을에는 당집이 없었다.

김기남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48년 당시, 월사금을 흠뻑했다는 누명을 쓰고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우학리교회를 다니면서 글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목수 기술을 배워 남편 인근에서 집을 건축하는 대목수 생활을 하였는데 살아오면서 화태교회, 연도교회, 모하동교회 등 12개의 교회를 지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안골마을은 내진마을과 함께 마을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장례식이나 정월대보름 매구도 내진마을과 함께 운영해 나갔다. 농한기에 남자들은 ‘도치배끼’라고 부르던 멸치잡이 배를 많이 탔는데 당시 집집마다 가구소득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안골마을은 골이 깊어 보리 수확철이 되면 보리마당이라 부르던 보리를 타작 하던 공터가 안골과 옷동네, 아랫동네 등 3곳이나 있었다. 마을에는 ‘마센네 샘’, ‘수인내 샘’처럼 우물 가까이에 있는 주민의 이름을 붙인 우물이 8개나 되었다. 논보다는 밭이 많았으며, 보리 수확철에는 탈곡기가 늦게 들어와 홀테를 사용하고 도리깨질로 타작을 하여



1940년대 김기남씨 집11)

알곡을 가려냈다. 사실 타작이란 말은 도리깨로 때려서 낱알을 가려내 생긴 말이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보리타작이란 말은 적합한 말이 아닌 셈이다.

11) 김기남씨 제공

도리깨질 방법으로 넘겨치기와 돌려치기가 있었다고 한다. 돌려치기는 도리깨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때리는 방식으로 타작이 약하게 되는 방법이었고, 넘겨치기는 도리깨를 어깨 뒤로 넘겨 강하게 때리는 방법이었다.

여수시 남면 우학리 내외진마을 서쪽으로 산 아래 골짜기에 있던 안골마을에는 17호의 가족들이 정겹게 살던 마을이다. 대부분이 농사에 의존하고 살던 마을로 약간의 논농사에 제법 많은 밭을 경작하며, 주민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우애가 돈독한 마을이었다. 이렇게 우애가 돈독하게 된 계기는 이 마을의 주민들을 한데 묶어주었던 신앙심 때문이었다. 일찍부터 교회에 다녔던 김효선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마을주민 전체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바쁜 농번기에도 일요일이면 주민 모두가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 남면에서도 이렇게 전 주민이 한 종교로 뭉쳐진 동네는 없다. 신앙생활 때문에 안골마을은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면서 농사를 쉬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능률적인 노동습관을 일찍부터 실천했다고 한다. 남면의 교회 역사는 1904년 우학리의 또 다른 산골마을인 찬물내기라는 곳에 있는 안규봉씨 집에서 가정예배로 시작되어 1906년 우학리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여수에서는 울촌의 장천교회에 이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교회가 설립된 지역이다.

4) 우학리 검바구(흑암동)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금오로 663-40 주변



검바구



검바구마을터

(2) 마을 연혁과 현황

우학리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행정리인 우실마을에 속해 있었다. 수평선이 바라 보이는 금오도 동쪽의 해안가 마을로 2가지 마을 이름 유래가 있다. 먼저 동쪽 해안가에 검은 바위가 즐비하게 서 있어 ‘검바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왔다. 검바구는 검은 바위로 보아서 한자로는 ‘흑석동(黑石洞)’으로 부른다. 또 다른 마을 유래는, 마을 서쪽 산으로부터 이어지는 계곡 아랫부분에 계곡을 가로지르는 큰 바위가 얹혀 있는데 이 바위가 계곡에 걸쳐있다 하여 걸친 바위란 의미로 ‘건바구’라 불렀다고 한다는 유래도 전한다. 마을 이야기를 들려준 김유엽 씨도 이렇게 마을 유래를 전했다.

현재 검바구마을은 숲속에 방치된 채로 3가구 정도의 집들이 남아있으나, 아무도 살지 않아 폐허로 변했다. 마을에 전기를 공급했던 전신주는 그대로 세워져 있으나, 진입로는 덩불이 우거져 접근하기 어렵다.

(3) 마을의 에피소드

검바구는 1970~80년대 15가구 정도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바닷가 마을이지만 마을 앞 해변은 배를 댈 수 없는 바위지대로 주민 대부분이 밭농사에 의존해 생활하였다. 작은 규모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주민 단합은 아주 잘 되었다고 한다. 예전부터 봄이면 주민끼리 어울렸던 화전놀이가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 마을이 없어지기 직전까지도 부녀자들은 봄철이면 화전놀이를 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금오도의 가까운 산이나 경치가 좋은 안도 등지로 음식을 장만하여 가져가서 하루를 보냈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국내 관광지로 여행가는 추세로 바뀌어 갔다.

금오도 마을주민 15가구 중 6~7가구는 안양으로 이주했다. 이는 이 마을 출신인 황정자 씨의 영향이 컸다. 일찍이 마을에서 안양시로 이주했던 황정자 씨는 라면 회사인 농심에 취업했다. 라면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수프를 만드는 양념용 농산물을 가공하는 일이었는데 이곳에서 배웠던 노하우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납품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주사업은 마늘, 양파 등 라면수프의 재료가 되는 농산물을 구입하고 가공하여 라면회사에 납품하는 일이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자 돈벌이가 잘 된다는 소식이 마을에 알려졌다. 이후 사업이 확장되는 시기에 마을에 살던 친인척을 안양으로 불러들였고, 마을주민 중에서도 일부가 도시로 이주할 것을 희망하며 도움을 청했다.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황 씨가 사업하는 안양으로 검바구의 여섯 가구가 이주하게 되었다.

한편, 검바구마을의 이정옥 씨의 가족인 이순백 씨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1948년 11월 쯤 연행된 뒤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질 않았다. 가족들이 백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끌려간 뒤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5) 두모리 모하 어드미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두모리 모하마을 8반 어드미골



어드미골



어드미마을터

(2) 마을 연혁과 현황

어드미마을은 모하동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숲이 우거져서 빨리 어두워지며, 낮에도 어두운 골짜기라 하여 어드미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1970년대에 어드미마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을 때 13세대가 살았다고 한다. 1998년도에 시작되어 2003년에 끝난 금오도 상수도 공사로 어드미마을 대부분이 없어졌다.

현재 어드미마을에는 90세가 넘는 고령의 할머니 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사 당시에는 할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하여 창원에서 거주하는 사위가 잠시 들어와서 돌보아주고 있었다.

6) 두모리 모하 석문동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석문동길 113-7 ~ 113-29 주변



석문동(2010년대)

(2) 마을 연혁과 현황

모하리의 느진목마을은 유송리 대유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를 넘어가면 만나는 마을이다. 옥녀봉은 유송리마을 방향 동쪽은 가파르고 서쪽 모하리 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경사가 가파른 우학리 쪽 고갯마루를 ‘된목’이라 부르고, 경사가 완만한 모하리마을 고개 아래를 ‘느진목’이라 불렀다. 완만한 경사로 목 부근에 늘어져 있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인 것이다.

느진목 일대를 석문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느진목에서 능선을 타고 북으로 가면 여천마을로 가는 넘어가는 중간에 문바위가 있어서라고 한다. 문바위를 한자로 ‘석문(石門)’이라 하여 마을 이름이 석문동이 된 것이다. 주민이 가장 많았을 때 17가구가 살았다.

현재 석문동마을에는 귀촌한 1가구가 살고 있다. 사용가능한 집이 3~4호 정도 남아있다.

7) 두모리 모하 조피동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금오서부로 152-10 ~ 152-26 주변



석문동(2010년대)

(2) 마을 연혁과 현황

조피동마을은 면소재지인 우학리에서 서쪽으로 금오 서부로를 타고 두모리 고개를 넘으면 도로 우측으로 처음 만나는 작은 마을이다. 금오도는 섬지역이지만, 모하리는 육지 속의 산골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조피동은 옛이름이 죄피동이라 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죄인들이 이 마을로 피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 알려져 왔다.

조피동마을에는 현재 두 가구가 살고 있으며, 거주하지 않고 시내에 살면서 가끔 들어오는 집도 한 가구도 있다.

(3) 마을의 에피소드

절간고구마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였다. 그전에는 고구마를 바로 출하했는데, 주로 주정원료로 사용되었다. ‘빼깡이’라고 부르던 절간고구마는 남면의 주 소득원으로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많이 재배했다. 두모리의

경우 대부분의 마을에서 재배했는데 초기에는 농협에서 수매하지 않아 초포 선창에 모았다가 여수 등지로 싣고 나가서 도매상에게 팔았다. 여수에서 가격이 좋지 않으면 멀리 통영까지도 뱃길로 이동한 뒤 도매로 넘겼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주정원료를 구매하는 회사가 직접 섬으로 와서 절간고구마를 매입하기도 했고, 지역 상인들도 생겨나면서 중간 도매상 역할을 했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담보로 해서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해 손해가 컸지만 돈이 궁할 때 빌려 쓴 비용 때문에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했다.

8) 두모리 두포 가는고지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두모리 1150 ~ 1210번지 일대



가는고지

(2) 마을 연혁과 현황

가는고지마을은 남면 두모리 모하와 두포 사이 남쪽 골짜기에 있는 금오도 허민령 이후 형성된 마을이다. 가는고지라는 마을 이름은 안산 남쪽 굴등에 있는 곳으로 가는 계곡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어 가늘게 이어진 계곡에서 바닷가 곳으로

이어진 곳이란 의미로 ‘가는고지’라는 마을 이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마을주민들의 이주가 진행되어 지금은 빈집만 남아 있다.

현재 가는고지마을에는 형태가 온전한 빈집이 4~5채 남아있다. 가까운 여수시에 터전을 둔 주민 중에 고향집을 오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은퇴 이후에 다시 고향을 찾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전해 주었다.

(3) 마을의 에피소드

1885년 금오도의 허민령이 선포되고 형성된 마을들은 마을 단위로 당집을 만들고 정월 보름날 당제를 지냈다. 가는고지마을도 이웃 마을과는 별도로 당집이 따로 있었다. 당제를 지내고 나면 지푸라기를 펴고, 산신과 마을 곳곳에 있는 신들에게 음식을 드리는 의미로 헌식을 하였다. 헌식장소는 가는고지로 오르는 길 입구, 당산의 제당 아래, 굴등으로 가는 길목 등 세 곳이었다. 가는고지에는 밭이 많았기 때문에 목화재배를 많이 하여 목화나 모시를 주재료로 길쌈도 많이 했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 가정마다 베틀에서 베틀을 짚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사라졌다.

가는고지마을은 주민이 많지 않아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 당시에는 ‘단자’라고 하여 제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도 있었다.

김본심 씨는 가는고지에 살 때 시어머니가 무신을 모시고 있어서 매월 보름날이면 음식을 차려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보름에 올리는 제사는 ‘밀제사’ 또는 ‘밀제’라고 했는데 1960년대까지도 바닷가 마을의 대부분의 집에서 가족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면서 올리는 제사였다. 1년 중 제를 올리는 날은 보름 전날 저녁에 올렸는데 보름 전날은 ‘밀날’이라 하고 이날 올리는 제사라서 밀제라고 불렀다. 밀제는 정월 대보름, 이월과 삼월은 영등할미에게 올리는 제사로 남면에서는 할머니의 방언으로 ‘함네’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삼월은 3월 3일 삼진날, 4월은 지내지 않고 오월은 5월 5일 단오에 올리고, 오월 보름에는 밀개떡을 해서 올리고 먹었다. 유월은 6월 14일 유두절, 칠월은 7월 15일 백중일, 팔월은 추석, 그리고 동짓달은 동짓날 팔죽을 쑤서 죽으로 대신 제를 올렸다.

9) 두모리 직포 굴등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두모리 1108~1110번지 일대



굴등



굴등마을터



굴등 원경



굴등

(2) 마을 연혁과 현황

굴등마을은 두모리 두포마을과 직포마을 사이 해안 중간지점으로 돌출된 곳에 있는 마을이다. 굴등이란 마을 이름은 마을 해변에 해식동굴이 여러 개 있어서 ‘굴이 있는 등성이’란 의미로 ‘굴등’이라 불렀다고 한다. 금오도 비령길의 2구간 중간지점으로 비령길 주변으로 펜션과 마을의 옛집들이 빈집으로 남아있다.

굴등마을도 바닷가 마을이지만, 마을 주변 해안선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를 정박할 곳이 없어 마을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었다. 마을주민들은 금오도 개척 이후 주로 밭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다 산업화로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떠난 청년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시에 머물렀고, 나이가 들어가던 부모세대는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있는 도회지로 옮겨가면서 마을이 사라졌다. 마을을 떠났던 주민이 귀향을 위해 펜션을 지어 놓았지만, 아직 생활은 하지 않고 인근 마을에 관리자가 거주하면서 가끔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굴등은 비렁길 여행객을 위한 펜션 1동이 운영 중이며, 두포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 비어있는 집 중 한 곳은 가끔씩 이용하고 있어 거주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10) 두모리 두포 양지포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두모리 1604 ~1609번지 일대



양지포마을터



양지포마을터

(2) 마을 연혁과 현황

양지포마을은 남면의 법정리인 두모리의 행정리 중 하나인 두포마을 서남쪽 방향 1km 지점, 두포만 입구에 있던 마을이다.

양지포마을은 두포리에 속한 여러 마을 중에 불무골, 신선대와 함께 6반에 소속된 마을이었다. 지금은 마을이 모두 없어져 빈터만 남아 있지만, 6가구의 주민이 마을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던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마을 가까이에 있는 해변은 바위로 이루어진 절벽이나 너설지대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해변이 없었지만, 큰 산 아래 양지에 위치한 마을 주변은 비옥한 토질과 풍부한 삼림자원 등으로 농사가 주산업이던 시대에는 풍요로운 마을이었다. 높지 않은 언덕에 형성된 마을 주변으로 밭이 많아 밭농사를 위주로 농사를 지었으며, 매봉산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빨래하며 지냈다.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에는 담장을 쌓아 올린 다랭이논이 20여 두락 있어서 많지 않지만 논농사도 지을 수 있었다.

마을주민 중에는 일찍 여수로 진출하여 화물선을 운영하는 주민도 있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는 1970년대가 되면서 인근 도시인 여수로 이주를 시작했다. 이후 노인 세대가 돌아가시면서 이주 세대가 늘어나고 1990년대에는 주민 모두가 이주했다. 이후 신선대에 살고 있던 문○용 씨가 열악한 신선대보다 삶의 여건이 더 나은 양지포로 이주하여 2010년경까지 살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수로 이주하여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현재, 비령길 1코스에 있는 양지포마을은 지금은 빈터만 남아있는 지역이다. 양지포 지역의 밭에는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초지를 조성하여 넓은 공터에 풀이 자란다.

(3) 마을의 에피소드

마을 이야기를 들려준 박희석 씨는 초포초등학교 4회, 여남중학교 1회 졸업생이다. 여남중학교는 1965년 설립되어 1968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당시 양지포에서 우학리의 중학교까지는 6km 이상 되는 거리여서 비령길과 고개를 넘는 힘든 오솔길로 9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양지포마을 주민들의 농사는 비교적 넉넉하였다. 가을이 되면 겨울에 사용할 뿔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나무한다’라고 했다. 어른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나무를 했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 초포 인근에는 나무를 할 만한 임야가 바닥이 나서 양지포까지 와서 남의 산에서 몰래 도둑나무를 해야 했다. 이럴 때면 양지포마을 아이들은 산에 나무를 지키는 파수를 서야 했다.

1970년대에는 양지포의 풀밭이 좋아서 염소를 많이 키웠다. 박희석 씨의 경우도 50마리 이상의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를 키우는 것은 아이들 몫이었다. 양지포 주민들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서 집집마다 소를 키웠다. 특히 박준삼 씨 집에 있는 수소는 힘도 좋고 덩치도 큰 종자소로 인근에 알려져서 초포나 모하, 북쪽 고개 넘어 용머리 함구미 등에서도 교배를 위해 소들을 몰고 왔다.

마을에 당집은 따로 없어서 초포마을 당제에 참여하였고, 장례식도 초포 주민과 함께 치렀다. 상여는 양지포에서 출발하여 초포마을까지 가서 노제를 지낸 후 장지로 떠났다. 장지가 양지포 부근이면 초포까지 가서 노제를 지낸 후 돌아왔으며, 매봉산 중턱까지 상여를 밀어 올려가며 운상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느진목 부근의 공동묘지까지 운상한 적도 있었다. 보리타작은 넓은 타작마당이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보리마당을 두었다.

양지포의 집들은 가을이면 지붕을 새로 이었는데 벗짚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억새를 이용했다. 억새는 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덮었고, 지붕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용머리는 억새로 엮기가 쉽지 않았기에 벗짚을 구해서 엮어 올렸다. 공동우물로 사용했던 계곡물은 웅덩이를 만들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였다. 계곡 주변에는 산 중턱인데도 민물장어가 살고 있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장어를 잡기도 했다.

어느 해에는 마을 뒷산에 산불이 났는데 마을주민과 초포마을 주민까지 달려와 화재를 진화했다. 마을주민과 먼 거리에서 달려온 초포마을 사람까지 동원되어 초가집이 전소되지 않고 불길이 잡혔다. 계곡물이 많지 않아 가정마다 모아둔 소변까지 동원되었다고 했다.

마지막 주민이 떠난 양지포에는 지금은 소가 주인이 되었다. 어드미마을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주하여 생활을 하던 문양호 씨는 초포마을로 귀향해서 살고 있다. 그는 초포마을 불무골에 우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람이 떠난 양지포의 너른 풀밭에서 소를 방목했다가 겨울이면 불무골 우사에서 소를 키운다. 비렁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해안선에서 순박한 소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보며 사진에 담는 등 인기가 좋다고 한다. 예전처럼 비렁길 주변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11) 두모리 두포 신선대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두모리 1614번지 부근



신선대

(2) 마을 연혁과 현황

신선대마을은 옛날 신선이 살았다는 15평 정도의 해안절벽 위 평평한 바위지대를 이르는 지명으로 신선대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던 작은 마을의 이름도 신선대마을이라 불렀다. 비령길 1코스의 중간지점으로 지금은 숲이 우거져 마을의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어렵듯이 보이는 담장과 대나무가 남아있어 마을이 있었다고 알려주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마을 앞 해변은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해안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으로 바닷가이긴 하지만 어업을 하지 않고 밭농사 위주의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마을이다.

신선대마을은 금오도의 여러 마을 중 정주여건이 가장 좋지 않았던 마을에 속한다. 금오도의 개척 시기가 지난 늦은 시기에 입도한 주민들이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터를 잡고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인근 초포마을이나 가까운 양지포에 살았던 주민들도 신선대에 살았던 주민은 3가구 정도를 기억하고 있다.

비교적 일찍 마을이 사라진 신선대마을은 집터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위치를

설명하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 비령길 1코스인 함구미와 두포마을 중간 절벽지대인 신선대 위에 위치한다.

(3) 마을의 에피소드

신선대마을 주민들은 척박한 땅과 열악한 정주 환경 때문에 일찍 마을을 떠났다. 섬이라곤 해도 어업에 종사할 형편도 아니고 주변의 농토도 개척이 쉽지 않은 여건으로 주민들은 다른 마을에 비해 생활이 궁핍하였다. 이러한 여건에도 신선대 주민들은 신선대의 높은 절벽지대를 오르내리며 미역이나 톳 등 해조류를 채취하여 팔려서 생활에 보태고 주변의 산에서 나는 산나물 등도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12) 유송리 함구미 중터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유송리 함구미 중터마을



함구미 중터마을



함구미 중터마을

(2) 마을 연혁과 현황

이 마을은 금오도에 허민령이 내려진 후 만들어졌다고 한다. 함구미에서 매봉산으로 가는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마을 이름이 ‘중터’라고 불렸다.

1980년대 이후 학업을 위해 떠난 젊은이는 섬으로 들어오질 않고 마을에 사는 젊은 사람들도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이 조금씩 공동화되었다. 1990년대 말 사람들 대부분이 이주하면서 마을이 비워졌다.

현재 중터마을에는 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마을을 이루었던 돌담과 쓰러진 건물 잔해만 남아있다. 집터 자리에는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13) 유송리 함구미 용머리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유송리



용머리마을



용머리마을 집터

(2) 마을 연혁과 현황

용머리마을은 마을 서쪽 끝에 위치한 바위가 마치 용이 바다로 향하는 모양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용머리 바위에는 본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의 바위가 있었는데 어떤 주민이 여의주 형태의 바위를 빼내어 바다에 굴러버렸다고 한다. 그해 마을의 젊은이들이 차례로 죽어나가자 여의주를 훼손한 일 때문이라 하여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이 마을은 처음 문꼬방수 할아버지 가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시작되었고, 이후 점차 마을이 커지면서 다른 성씨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현재 용머리마을은 빈집들이 덩불 속에 남아있다. 비렁길 1코스 부근에 위치하며,

빈집 중 이용 가능한 집들은 거의 없다.

용머리는 함구미마을의 8반으로 불장터와 같은 반에 속했다. 장례식은 불장터와 함께 치렀는데 부족하면 함구미 사람들도 와서 도와주었다. 정월대보름에는 함구미마을 주민들과 함께 매구를 쳤다.

14) 유송리 함구미 불장터마을

(1) 위치 : 여수시 남면 유송리 함구미 불장터마을



불장터

(2) 마을 연혁과 현황

불장터마을은 함구미마을 서쪽 용머리산 중턱 500m 지점에 있는 마을로 옛날 절터가 있어서 불장터라 부르던 지역이다. 금오도 개척 시기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금오도에 개척할 만한 지역이 없어 비교적 늦은 시기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불장터마을 터에는 이용할 수 없는 쓰러진 빈집만 남아있다. 함구미 불장터는 옛날 절터가 있었다는 지역으로 불장터는 불당터라고도 하며 절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3. 섬 생활의 변천

가. 금오도의 생업

1) 금오도의 특산물

금오도에서 최근 방풍나물을 새로운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다. 방풍은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방풍(防風)이라 이름 붙였으며, 나물원방풍, 갯방풍, 식방풍 총 3가지 종류로 나뉜다.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종은 식방풍으로 발한, 해열, 진통을 진정하는 효능이 있다. 예전에는 주로 약용식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어린잎과 뿌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향긋하면서도 짹짹한 맛의 방풍잎은 최근 웰빙 먹거리가 화두에 오르면서 새로운 식재료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에서는 2012년부터 3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잎 방풍을 여수의 새로운 특산물로 육성하게 된다. 잎 방풍을 고소득 산업으로 특화하기 위한 가공이용 연구, 유통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남면은 재배면적이 수백여 ha에 이르는 대규모 잎 방풍 재배지로 수백여 농가가 방풍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효자작목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남면 방풍의 수확 시기는 2월 말에서 6월 말까지이며, 향긋하면서도 짹짹한 맛이 특징이고, 병해충이 적고 재배가 쉬워 친환경적 재배가 가능하다.

2) 어업¹²⁾

금오도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금오도 연안 해역에 5개의 조사 지점을 정하여 부유성난 및 자치어,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 부유성난은 총 9개의 떼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멸치·전어·정어리·미역치·보리멸·주둥치·망둑어과 어류, 참서대와 기타로 분류하였다.

자치어(仔魚)는 갯 부화했거나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물고기를 말하며,

12) 남면지편찬위원회, 『남면지』, 2018.

치어(稚魚)는 모든 지느러미의 밑바탕이 마려진 시기부터 몸의 생김새가 어미와 같아지기 전까지의 어린 고기를 말한다. 금오도 인근 바다 목장 해역에서 발견된 자치어는 총 5목 18과 24종으로 2,602개체/1,000m³가 출현하였다. 여름철(8월)에는 2,067개체/1,000m³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2월)에는 28개체/1,000m³가 출현하여 가장 적었다.

금오도 주변에서 채집된 어류는 총 10목 30과 47종으로 1,237마리 가운데 농어목이 12과 18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썸뱅이목이 5과 8종, 청어목이 3과 7종으로 이들 3목이 포함된 어류가 33종으로 전체 마릿수의 86.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목들로 나타났다

그중 농어목어류가 19과 31종으로 전체 출현종수의 43.1%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썸뱅이목어류가 5과 14종, 가자미목어류가 4과 8종, 청어목어류가 3과 7종, 복어목어류는 2과 4종으로, 이들 5목의 어류가 전체 출현종의 88.9%를 차지하여 우점하는 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우점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주둥치가 점유율 11% 내외로 최우점하였고, 멸치, 전어, 준치 등이 준우점종을 차지하였다.

이각망에 의해 채집된 어류는 총 10목 31과 45종으로, 출현한 개체수는 2,410개체, 생체량은 245,040.1g이 채집되었다. 그 중 농어목어류가 14과 19종으로 전체 출현종수의 42.2%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썸뱅이목어류가 4과 7종, 가자미목어류가 3과 5종, 청어목과 복어목어류가 각각 2과 4종으로, 이들 5목어류가 출현종수의 86.4%를 차지하여 우점하는 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우점종은 2002년과 2003년에는 복섬이 10.6%와 8.8%로 최우점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전어가 10.8%와 11.6%로 각각 나타났으며, 준우점종은 볼락, 보구치, 주둥치, 갈치, 전갱이 등이 출현하였다.

통발에 의해 채집된 어류는 총 6목 20과 34종으로, 출현한 개체수는 582개체, 생체량은 28,149.3g이 채집되었다. 그 중 농어목어류가 12과 16종으로 전체 출현종수의 47.1%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썸뱅이목어류가 3과 11종, 복어목어류가 2과 4종으로, 이들 3목어류가 전체 출현종수의 91.3%를 차지하여 우점하는 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우점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부분 볼락이 차지하였으며, 준우점종은 자리돔, 용치놀래기, 붕장어, 노래미,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이 나타났다.

자망에 의해 채집된 어류는 총 3목 18과 28종으로 출현한 개체수는 467개체, 생체량은 53,718.6g이 채집되었다. 그중 농어목어류가 11과 14종으로 전체 출현종수의 50%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썸뱅이목어류가 4과 10종, 가자미목어류가 3과 4종으로 나타났으며, 우점종은 2002년에는 전갱이, 2003년에는 전갱이, 각시서대, 2004년에는 인상어, 2005년에는 볼락으로 나타났으며, 준우점종은 2002년에는 볼락, 각시서대, 2003년에는 자리돔, 2004년에는 볼락, 2005년에는 인상어 순으로 자망에서는 우점종이 연도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3) 어업권의 변화

1993년 남면에는 어업권이 총 158건이었으나, 2013년과 2015년에는 99건으로 약 59건이 줄었는데 이는 생산량이 적은 맨손으로 채취하는 김과 미역 생산 어업권이

대부분 소멸되거나 마을어업(패류, 해조류)으로 이동한 것으로 사료된다. 1993년에는 수산업법상 마을어업권을 1종공동어업, 2종공동어업, 3종공동어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용어는 사라지고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1995년 연도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기름유출에 따른 막대한 생물의 피해와 함께 어업권의 소멸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중반에 전북 가두리 양식장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전북의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다시마 해조류 양식장이 확대되기도 했다.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에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계속되는 극심한 수온변동(고온, 저온)과 예전에는 소형기선저인망(고대구리)이 성행하던 시절에 풍부했던 먹이는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 소형기선저인망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사라지면서 먹이값은 비싸지고 어류판매가는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가두리 양식어가들이 2중, 3중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나. 금오도의 생활문화공간

해방 이후 금오도의 가옥과 취락구조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소는 국가의 정책이었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개발 사업, 1960년대의 농촌 진흥 사업,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소도읍, 거점면, 일반 정주면, 마을 권역, 개별 마을 등 공간 개발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새마을 사업은 뒤떨어진 농어촌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 개량, 상하수도 보급, 마을회관 신축, 마을 도로 확·포장 등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자재 지원과 주민 스스로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과 질 좋은 설계 및 시공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소득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적 영향력의 확산 등에 따라 금오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 수요가 점차 고급화됨으로써 새마을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기초생활 시설들은 거의 모두 정비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섬 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여주는 흉물처럼 여겨지고 있다.¹³⁾

도서 지역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1980~1984년, 1985~1989년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10년 단위로 도서종합개발사업¹⁴⁾을 추진해 오고 있어 가옥 및 취락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88~1997년의 1차, 1998~2007년까지 2차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도로, 항만, 연륙·연도교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2008~2017년까지 3차 사업은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을 비전으로 삼았고, 2011~2020년까지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를 비전으로 해양과 섬을 국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개발하기도 했다.

13) 최수명·송태갑, 「전남 농어촌지역 정주환경 개선방안」, 전남발전연구원, 1010, 70~71쪽.

14) 김준, 「섬 자원 이용형태와 지속가능한 섬발전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2016, 12~25쪽.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명품섬’은 기존 하드웨어사업 지원 방식을 벗어나 역사·문화, 자연과 생태, 건강과 웰빙 등 다양한 핵심 테마를 발굴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한 명품섬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가고 싶은 섬’ 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중심 사업으로,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인구가 섬으로 들어와 살고 싶은 섬을 만들고자 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품마을’ 사업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 등의 행위 제한과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과 공단의 갈등 해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지원사업의 하나이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금오도의 마을 가운데 생태 경관과 마을 문화가 잘 보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지역 주민 소득 향상, 복지 기능을 강화하였다.



금오도안도 연도교 공사(2008년)

다. 여객선

1930년 여객선 짐부호가 처음으로 취항한 후 1937년까지 운항하였다. 1945년에는 여객선 쓰르마루호가 1945년까지 운항하였고, 1946년 여객선 통도환이 1952년까지 운항하였다. 1953년에 여객선 웅천호가 1959년까지 운항하였으며, 1960년 여객선 조양호가 1963년까지 운항하였다. 1962년 여객선 창운호가 1963년까지 운항하였고, 1964년 여객선 장구호(1969년까지)와 창영호가 운항(동편 1973년까지)하였다.



금오고속페리호

1968년 여객선 여일호가 1975년까지 운항하였으며, 1974년 여객선 신양호와 창영호(서편)가 운항하였다. 1976년에는 여객선 신흥호가 운항하였고, 1979년 여객선 강화호가 1980년까지 운항하였다. 1981년에는 여객선 경주호가 운항하였고, 1997년에 여객선 순풍호와 신양호, 완도페리호가 운항하였다. 1999년 6월 우학항과 돌산읍 군내리 돌산항을 매일 4번 왕복하는 97t급 신흥페리3호가 운항하였고, 2003년 11월부터 금오고속페리호가 운항하였고, 2006년경에 화신해운의 한려페리호가 운항하였다.



한려페리9호

2024년 1월 1일 현재 한림해운 소속 금오고속페리호가 여수항에서 여천항, 유송항, 우학항을 운항하고 있으며, 한림페리9호는 돌산 신기항에서 여천항까지 운항하고 있는데 2023년 7월부터 야간에도 운항하여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신아해운의 한려페리7호는 백야도항에서 함구미항까지 운항하고 있으며, 한려페리9호는 여수항에서 송고항까지 운항하고 있다.



한려페리7호

4. 금오도의 민속문화

가. 금오도의 지명유래

남면의 지명을 살펴보면 삶의 터전이 섬인 관계로 해안지명이 대부분이다. 해안을 따라서 명명된 이름 대부분은 사물의 형상이나 일어난 사건에 연유되어서 이름 지어졌다. 명명된 이름에서는 어촌의 삶과 어로 생활을 대변하는 이름도 많다. 금오도의 경우 조선 시대 입산이 금지된 봉산에서 입산이 해제되고 민유지가 되는 과정에 있었던 나라의 봉산 정책과 허민령에 기인한 이름도 다수 나타난다. 이 책에 수록된 소지명은 남면의 섬 지역의 주민을 만나 직접 조사 수집하였으며,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와 전설도 함께 조사하여 지금까지 조사 수록된 자료 중에서는 가장 많은 현지 지명을 수록하였다.

남면의 지명을 살펴보면 한반도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하는 여수와 제주항로의 중간에 있는 거문도의 지명과 섬 지역만의 독특한 유사성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거리상으로 금오도나 안도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연도지역에서 더 많은 유사 지명이 발견되어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 간의 언어생활이 더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남면의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명은 지도에 빠짐없이 수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정확하지 않은 설명은 가급적 피하고 지역말은 발음대로 수록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전설과 에피소드도 함께 소개하였다.

1) 우학리(牛鶴里)

(1) 내외진마을

- 내진[안진개] <마을> : 내외진마을 북쪽이며 마을의 안쪽 해변이란 뜻에서 유래함.
- 안골[내진포, 내진] <마을> : 내외진마을 안쪽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하여 유래함.
- 외진[외진포, 갯물, 밧진개] <마을> : 우실(牛室)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바깥쪽 해변이란 뜻에서 유래함. 남면사무소가 있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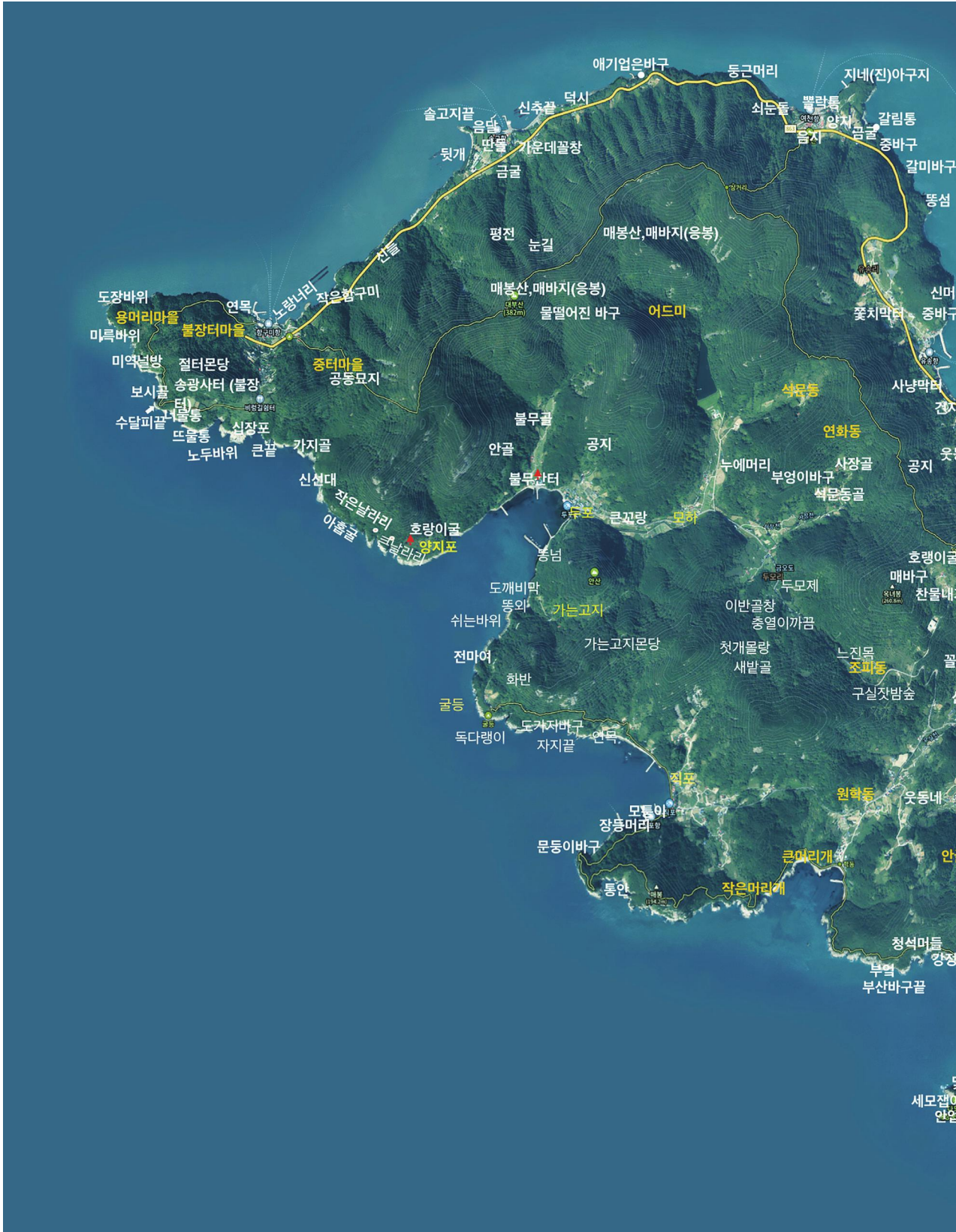
- 다시랑산[신랑봉] <산> : 내외진마을 남쪽에 있는 산. 높이 약 150m.
- 내진들[내진평] <들> : 내진마을 서쪽에 있는 들.
- 신랑봉바위[다시랑바위] <바위> : 내외진마을 다시랑산 정상에 있는 바위로 하늘의 선녀를 사랑한 남자가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짐.
- 여자바위 <바위> : 내외진마을 다시랑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 선녀가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짐.

(2) 우실마을

‘우실’은 파도나 해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쌓은 울타리로 흙과 돌을 이용하거나 굵은 기둥을 박은 목책으로 담장처럼 세우기도 하고, 나무를 심어 조성하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 울실, 우실, 우슬, 우술, 마을돌담, 방풍림, 방조림 등으로 부른다. 토속신앙에서 우실은 역신과 액을 차단하는 보호막이자 수호신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남해안의 도서 지역인 신안, 고흥, 보성, 장흥, 진도, 여수, 광양, 남해 등지에 많이 남아 있다. 금오도의 우실마을은 금오도 개척 시에 마을 입주민들이 바다와 마을 사이에 우실을 만들어 ‘우실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부르게 되어 우실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사진은 1967년의 우실마을 앞 해변으로 학생들이 뒤에 보이는 담장이 우실이다.)



- 깃대산 <산> : 우실마을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금오도 민유화(民有化)에 따른 측량의 기점으로 삼아 이곳에 깃대를 세워 깃대산으로 불렸다고 함. 해방 후 이 기점을 찾기 위해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여러날 작업 끝에 그 당시 표시된 곳을 찾아내어 지금은 화강암으로 된 십자형의 표시가 남아 있다.
- 흑암동 [건바우, 검바구] : 우실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로 해변을 따라 검은색의 바위가 즐비하게 서있어 검바구라고 이름 지어졌다 함. 또 다른 전설은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계곡에 큰 바위가 걸쳐져 있어 걸려있는 바위란 뜻으로 건바구라 불렸다고 함.
- 냉수동(冷水洞) [찬물내기] <마을> : 우실마을 북쪽 산중턱에 위치하며, 온도가 차고 수량이 풍부한 샘물이 나오고 있어 찬물이 내려오는 곳이란 의미로 이름 지어짐.
- 우학교 <다리> : 우실마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있는 다리. 1980년 완공. 길이 5.5m, 폭 5m, 높이 2m.
- 우실개들 <들> : 우실마을 서쪽에 있는 들.
- 옥녀봉 <산> : 우실마을 뒷편(우학리 산 103번지)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1m. 하늘에 살던 선녀가 내려와 옥녀가 되었다는 옥녀봉 전설이 전해진다.

(3) 학동마을

- 못동 <마을> : 학동마을 남쪽에 못(연못)이 있다하여 '못동'으로 불려 왔다고도 하고, 잔디밭이 넓게 깔리어 있어 못동(茅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함. 못동은 띠실로 띠밭마을이 못동으로 잘못 와전되었다고도 함.
- 머릿개 [遠浦, 멀리개] <마을> : 학동마을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금오도 개척 당시 학동마을에 가장 먼저 사람이 정착하였다 함. 학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을로 '갯가에서 먼 곳'이란 뜻으로 멀리개로 불리다 '머릿개'로 개칭됨.
- 공동묘지 몰랑 <고개> : 우실마을에서 두모리로 가는 공동묘지가 있는 고개.
- 개바구 <바위> : 우실과 소유사이 동쪽 바닷가에 있는 개모양의 바위
- 물받이바구 <바위> : 우실과 소유사이 동쪽 바닷가에 있는 물을 받는 바위
- 큰꼬랑 <골짜기> : 우실마을 동쪽에서 바다로 흐르는 골짜기
- 머구섬 <섬> : 우학리 동쪽 입구에 있는 작은 섬으로 우학(牛館) 포구의 목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목의섬'에서 유래 되었다고 함. '머구섬'으로 불림. 머구가 오동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오동도라고도 함.

- 노랑바구꼬터리 <곳> : 노랑색 바위가 있는 골
- 독새골 <골> : 독사(뱀)가 많은 골짜기
- 흥동지골 <곳> : 외진마을 해변 끝의 지명
- 호랑이굴 <굴> : 우실마을 북쪽 뒷산에 있는 호랑이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굴
- 매바구 <바위> : 우실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
- 찬물내기 <골짜기> : 우실마을 북동쪽 뒷산의 찬물이 내려오는 골짜기
- 골창길 <골짜기> : 우실마을 북동에 있는 산골짜기
- 신사터 <터> : 일제강점기에 신사가 있던 터
- 도새골창 <골짜기> : = 독새골
- 웃동네 <마을> : 내외진에 있는 마을
- 원학 <마을> : 학동마을
- 안골 <마을> : 내외진 안에 있는 마을
- 큰머리개 <마을> : 학동에 있는 마을
- 작은머리개 <마을> : 학동에 있는 마을

2) 두모리

(1) 모하마을

- 어드미 [어등미, 오등미] <마을> : 모하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산중에 봉화대가 있어 이 마을을 어등미라고 했다 함.
- 연화동 물랭이 <고개> : 연화동(蓮花洞)마을에서 대유(大柳)로 넘어가는 고개.
- 초피물 <골> : 모하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모하교 <다리> : 모하마을 남쪽에 있는 다리. 1980년 준공, 높이 2.3m, 폭 4.8m, 연장 7.9m.

- 석문동 몰랭이 <모룽이> : 석문동(石門洞)마을 남쪽에 있는 모룽이.
- 문암(門岩) [문바구] <바위> : 모하마을 북쪽 매바지에 있는 바위. 문처럼 생겼음.
- 모하저수지 [평전저수지, 초피동저수지] <저수지> : 모하마을 남쪽에 있는 저수지. 1946년 준공, 높이 6m, 길이 90m

(2) 두포마을

- 가는고지 <고개> : 모하마을 서쪽 약 1km 지점에 있으며, 두포에서 직포로 넘어가는 고개가 오솔길로 높다하여 유래.
- 굴등 <마을> : 두포마을 서남쪽에 있는 마을. 조그마한 굴(해식동)이 많이 있음.
- 양지포(陽地浦) <마을> : 두모리 양지쪽에 있는 마을. 마을의 지형과 집들이 양지쪽을 향하고 있음.
- 두유장치 <고개> : 두포마을에서 대유로 가는 긴 고개의 의미. 두모리의 '두'와 대유리의 '유'를 합침.
- 신선대 <바위> : 양지포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신선이 놀았다 함. 넓이 약 15평.
- 초포들[초포평] <들> : 초포(두포)마을 동쪽에 있는 들.
- 용두산(龍頭山) <산> : 양지포마을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함.
- 두모저수지 <저수지> : 두모리 두포마을에 위치한 저수지로 1970년에 축조. 높이 9.6m, 길이 90m.



두모저수지



직포저수지

(3) 직포마을

- 포대골 [씨밭골] <골> : 석문동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뒤펝 <바위> : 직포마을 남쪽 끝에 있는 바위.
- 마전등산(歷田燈山) <산> : 직포마을 북동쪽에 있는 산. 마전은 삼밭의 변형어로 삼밭이 있는 등성이(고개)위에 있는 산.
- 직포어장(織浦魚場) [조기밭] <어장> : 응봉산 남서쪽 바다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어 채낚기 등으로 많은 조기를 잡아 고흥, 여수 등지로 가서 쌀과 기타 식량을 물물교환하여 생계수단으로 사용됨.
- 직포제(織浦提) <저수지> : 직포마을 북서쪽에 있는 저수지. 1968년 축조. 면적 4.5 m², 길이 43m, 높이 4.2m.
- 포대골저수지 <저수지> : 석문동(石門洞)마을 동쪽에 위치한 저수지.
- 작은날라리 <곶> : 두포마을 서쪽 해안지명. 농악기 날라리를 닮은 지형에서 유래
- 큰날라리 <곶> : 두포마을 서쪽 해안지명. 농악기 날라리를 닮은 지형에서 유래
- 아홉굴 <굴> : 두포마을 서쪽 해안지명으로 신선대에서 양지포 사이에 아홉 개의 해안 동굴이 있음
- 호랑이굴 <굴> : 두포마을 서쪽 양지포 해변 위에 있는 호랑이가 살았다는 굴
- 양지포 <마을> : 두포리 양지쪽에 있는 해안마을. 마을의 지형과 집들이 따뜻한 양지를 향하고 있음.
- 불무골 <골짜기> : 두포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금오도가 봉산이었을 당시, 사슴을 잡기 위해 포수들의 사냥도구를 제작 수리하기 위해 골짜기 입구에 풀무(불무)가 설치되어 불무골이라 함.
- 불무간터 <터> : 불무간이 있던 터
- 통넘 <곶> : 두포만 남서쪽의 해안지명으로 해안 절벽이 갈라진 곳 통이 있는 너머가 변한 말로 보임.
- 똥외 <곶> : 두포만 남서쪽의 해안지명
- 도깨비막 <곶> : 두포만 남서쪽의 해안지명으로 정치망 그물(미찌아미)이 있는 곳에 도깨비 막을 세워 놓고 메밀묵 등을 현식 했던 곳. 도깨비가 나온다는 곳
- 쉬는 바위 <바위> : 두포만 남서쪽의 해안지명으로 쉬기에 좋은 바위가 있음
- 전마여(2개) <여> : 두포만 남서쪽의 끝에 있는 여

- 안골 <골짜기> : 불무골의 다른 이름
- 대부산 [대부산] <산> : 두모리와 유송리의 경계에 있으며, 금오도에서 제일 높은 산. 옛날 초군들이 이 산이 크고 높다하여 매봉산이라 칭함. 높이 382m. 일제강점기 식목을 위해 대부(임대)를 했던 매봉산 남사면을 일컬음. 허민령 이후 땀감에 필요한 벌목을 위해 산을 빌려(대부) 벌목하였기에 대부산이라 하였다고도 함.
- 매봉산 [응봉, 매바지] <산> : 직포마을 서남쪽에 있는 산(두모리 산 162번지). 일명 매봉이라 하며 산의 모양이 매가 췌를 사냥하기 위하여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형상임.
- 물떨어진바구 <바위> : 불무골과 매봉산 사이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바위
- 분무골 <골짜기> : 불무골
- 공지(共地) <장소> : 두포마을 동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함께 공유하던 마을 공동용지
- 큰꼬랑 <개천> : 모하마을에서 두포로 내려오는 큰 골짜기
- 화반 <장소> : 두포와 직포사이 굴등이 있는 지역
- 가는비치문당 <고개> : 두포와 직포사이 고개 이름
- 두모제 <저수지> : 두모마을 입구에 있는 저수지
- 총열이까끔 <장소> : 두모제 서쪽에 있는 산 이름으로 총열이는 인명으로 보임
- 석문동 <마을> : 모하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 어귀에 큰 바위 두개가 문처럼 서 있음.
- 사장골 <마을> : 모하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연화동마을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 아이가 죽으면 많이 묻었다고 함.
- 연화동 <마을> : 석문동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연못이 있었음.
- 누에머리, 뉘머리 <마을> : 모하마을 북서쪽으로 약 200m 거리에 있으며, 마을 형상(形象)이 누에머리처럼 생겼음.
- 부영이바위 <바위> : 석문동에 있는 부영이가 사는 바위
- 이반골 <골짜기> : 두모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첫개물랑 <고개> : 두포마을 입구 정상에 있는 고개
- 새밭골 <골짜기> : 직포마을 북쪽의 골짜기 이름
- 연목 <장소> : 직포마을 서쪽의 해변(여의 목)
- 모통이 <장소> : 직포 남서쪽의 해안지명

- 자쟁이끝(자지끝) <곳> : 직포 북서쪽에 있는 남성기를 닮은 해변
- 도가지바구 <바위> : 직포 북서쪽에 있는 장독 모양의 바위
- 독다랑이 <장소> : 직포 북서쪽의 해안지명
- 장등머리 <장소> : 직포 남서쪽의 해안지명
- 문둥이바구 <바위> : 직포 남서쪽의 해안지명으로 울퉁불퉁 못생긴 바위
- 통안 <장소> : 직포 남서쪽의 해안지명 해안 절벽과 절벽 사이 통이 있는 곳 안쪽
- 구실잣밤숲 <숲> : 두모제 부근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숲(=총열이까끔)
- 조피동 <마을> : 모하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 죄인들이 이 마을로 피해 왔다 하여 죄 피동으로 불리다 조피동으로 불리었다 함.

3) 유송리

(1) 함구미마을

- 함구미 [항금이] <마을> : 면사무소로부터 약 10km 지점 두포와 송고마을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마을 남쪽 대대산 줄기 끝부분이 용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용머리(龍頭)라는 지명과 함께 해안선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아홉 골짜기의 절경을 이뤄 이를 상징 함구미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고, 또 이 마을에서 실과 산채 등 식물이 많이 생산되었다 하여 항금미(充金味)라고도 하였다고 함. 모두 한자의 의미를 풀어서 지어진 유래로 함구미는 한구미가 변한 말로 큰 포구를 이르는 순우리말임
- 용두(龍頭), 용머리 <마을> : 함구미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 용의 머리처럼 생겼으며 전설이 전해 옴.
- 금오수도 <해협> : 금오도와 두라도 사이에 있는 바다 목(해협)으로 멸치, 조기, 갈치, 문어, 도미 등 어장 형성 및 김 양식장으로 활용. 큰 해협이란 의미로 한도 또는 한도바다라고도 함
- 외금바위 [애기바위] <바위> : 송고마을 동쪽에 있는 바위.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모양임.

- 용머리바위 <바위> : 마을 서쪽 해안 끝에 위치. 바다 쪽에서 바라보면 마치 용이 바다로 나가는 모양에서 유래함.
- 봉대산 [망산] <산> : 두모리와 유송리를 경계로 하고 있는 산으로 봉수대가 있어서 망을 보았다 함. 봉대는 봉화대의 줄임말이며 높이는 350m.
- 뜨물통 <굴> : 함구미마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곳 해안 절벽이 하얗게 보이는데, 옛날 절에 살던 어린 상좌가 쌀을 씻어서 쌀뜨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하얗게 나왔다고 전해 옴
- 미역널방, 믹널방, 민널바위 <바위> : 함구미 서쪽 용머리 부근에 있는 바위로 미역을 채취한 뒤 평평한 바위 위에 펼쳐서 말리던 곳. 금오도 비렁길에서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유명한 뷰포인트 중 한 곳임
- 미륵바위 <바위> : 함구미 서쪽 해안에 있는 미륵불 모양의 바위
- 금굴 <굴> : 함구미마을 남쪽 뒷산에 있는 금을 찼다는 굴
- 연목 <바위> : 함구미마을 서쪽에 있는 여가 많은 해안
- 나진목 <고개> : 함구미 남쪽 산에 있는 목이 낮은 곳. 낮은 목이 변함
- 노랑너리 <바위> : 함구미 동쪽 파도가 닿는 노랑색 너럭바위 해안
- 신들 <지역> : 함구미 동쪽 해안에 있는 지역. '쉬는 들'이란 의미로 산에서 땀감을 구하거나 꼴을 베다가 쉬면서 어울려 놀던 곳. 마을마다 '신들'이 여러 곳에 있음
- 작은함구미 <마을> : 함구미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 썩혈 <지역> : 함구미 남쪽 뒷산에 있는 지역. 풍수지리상 썩이 알을 품는 따뜻한 곳으로 길지란 의미를 가진 썩혈에 해당한다고 함
- 공동묘지 <묘지> : 함구미마을 남쪽 뒷산에 있는 마을 공동묘지
- 불장터 <바위> : 함구미마을 서쪽 뒷산에 있는 절터. 불장은 부처님을 모신 곳
- 절터몬당 <고개> : 함구미마을 서쪽 뒷산에 있는 절터로 가는 고개
- 신선대 <바위>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신선이 놀았다는 절벽
- 가시골, 가지골 <골짜기>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골짜기
- 씹장굴, 아홉굴 <굴>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9개의 해식동굴이 있는 곳
- 큰곶 <곶>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곶
- 십장포 <해안>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
- 노두바위 <바위>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바위
- 뜨물통 <통>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통으로 절터의 스님들이 쌀을 씻어서

‘뜨물’ 모양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전설이 전해짐

- 나물통, 너물통 <통>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통으로 나물을 캐서 씻었다고 함
- 수달피골 <해안> : 함구미마을 남쪽 비렁길 해안으로 수달이 많이 서식하였음
- 보시골 <골짜기> : 함구미 남쪽 절터 부근으로 스님을 위한 시주(보시)를 많이 하여 ‘보시골’이라고 함
- 중등아랭이, 종다랭이 <바위>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지명으로 바위가 길게 다랭이 모양을 이룸
- 도장바위 <바위> : 함구미마을 남쪽 해안에 있는 바위 이름

(2) 송고(솔고지)마을

- 관철수 <골> : 송고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약 200년 전에 관포수가 왕명(王命)을 받고 사슴 사냥을 나왔다가 마을 뒷산에 있는 호랑이 굴 입구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다 실족하여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는데 관포수의 영을 달래기 위해 제를 지냈다 함.
- 송고산(松高山) [봉대산, 대부산, 매봉산] <산> : 유송리와 두모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 높이 382m.

(3) 여천마을

- 여천 [예천] <마을> : 대유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마을 뒤에 있는 매봉산의 줄기를 타고 내려온 대목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산이 뿔이 내리면서 작은 봉우리 2개를 형성하고, 그 모양이 여자의 젓가슴처럼 생겼으며 그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계곡물이 맑고 깨끗해 여천(女泉)으로 불리우다 여천(汝泉)으로 변경됨.
- 비렁등 <바위> : 여천마을 남쪽 대목산 중턱에 있는 바위. 신선이 놀다 갔다고 함.
- 턱바위산 <바위> : 여천마을 남쪽에 있는 바위. 사람의 턱처럼 생겼음.
- 대목산 <산> : 여천마을 남쪽에 있는 산. 높이 약 200m.
- 당제 <제사> : 여천마을 중앙에 있으며 음력 3월 보름에 당산 할아버지의 생일과 음력 12월 30일에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를 지냄.

- 공동묘지 <묘지> : 유송리 산 279번지에 있는 공동묘지. 약 150기 매장됨.
- 간돌도끼 [마제석부] <석제> : 여천마을 북쪽 해안 구릉의 조개더미 주위에 화강암제의 손잡이가 파손된 것으로 길이 18cm, 넓이 6cm의 석부 1점이 발견되었으며, 철기시대 이후부터 이 지역에 사람이 농경과 어로를 하면서 생활하였다고 추측하는 자료
- 여천조개더미 [여천패총] <고적> : 여천마을 북쪽 해안 구릉에 있는 조개더미. 규모는 동서간 46m, 남북간 22m.

(4) 대유마을

- 연목 <마을> : 소유마을에서 동남쪽 약 400m 형성된 바닷가에 여가 많이 있다하여 명명됨. 연목은 바위나 여가 길게 이어진 목으로 여러 마을에 나타나는 공통지명임
- 물목섬 <섬> : 소유마을 동쪽 약 150m 거리에 있는 섬. 밀물이면 목이 잠겨서 섬이 되었다가 썰물이면 육지와 연결되는 섬. 물과 목으로 연결된 섬
- 섬목섬 <섬> : 소유마을 동쪽 약 600m 거리에 있는 섬. 물목섬과 섬목섬 사이 목으로 연결되어 섬목섬이라 함.
- 수항도 <섬> : 일제강점기 초기 지도 작성시 섬목섬이라 부르던 도항도(島項島)를 소항도(小項島)라 표기하다 수항도(水項島)로 바뀌었다. 수항도라는 이름은 본래 물목섬이란 우리말을 한자로 바꿔 부르게 된 이름이다.
- 형제도 [오누이섬] <섬> : 소유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800m 정도 떨어진 섬. 갈라진 틈으로 봐서 원래 하나의 섬으로 추측되는데 두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오누이처럼 닮아 있다하여 오누이 섬으로 불리다 형제도로 개칭됨.
- 소형제도 <섬> : 형제섬 중에서 작은 섬

(5) 소유마을

- 선바위 <바위> : 소유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산중턱에 있는 바위.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이 생겼음.
- 납덕섬 [빈대섬, 납덕여] <섬> : 소유마을 앞바다에 있는 섬. 빈대처럼 생겼고, 전설에

옥녀봉 옥녀가 베를 짜다 베틀의 북을 놓쳐 소유 앞바다에 빠져서 만들어졌다 함.

- 후서 <섬> : 소유마을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섬. 수향도 뒤에 있다 하여 후 섬이라 불리다 후서라 칭하게 되었고, 전해오는 이야기도 큰섬(수향도)의 화장실이라 하여 '통시여'라고도 불렀다 함.
- 뒷개 <개> : 송고마을 서쪽 해변 마을 뒤편이 되어 뒷개라 함
- 솔고지꼬터리 <곳> : 송고마을의 지명이 유래한 솔고지 끝
- 음달 <해변> : 송고마을 서북쪽 해변으로 음달 지역임
- 탄돌 <해변> : 송고마을 동북쪽 해변
- 신추끝 <곳> : 송고마을 동북쪽 해변
- 덕시 <섬> : 송고마을 동북쪽 해변
- 가운데골창 <골짜기> : 송고마을 동북쪽 탄돌과 신추끝 사이에 있는 골짜기
- 금굴 <굴> : 송고마을 남쪽 산자락에 있는 굴
- 평전 <지역> : 송고와 매봉산 사이에 있는 비교적 평평한 산지
- 눈길 <곳> : 송고와 매봉산 사이에 있는 산지
- 애기업은바구 <바위> : 송고와 여천 사이 해안에 있는 애기 업은 형상의 바위
- 둥근머리 <곳> : 송고와 여천 사이 해안에 있는 곳
- 쇠눈돌 <바위> : 여천마을 선착장 부근에 있는 바위
- 불락통 <통> : 여천마을 선착장 동쪽에 있는 불락이 잘 잡히는 통
- 지내아구지, 진아구지 <곳> : 지내 입모양이라는 뜻으로 여천마을 동쪽에 바다로 튀어 나온 곳. 진아구지는 긴 입모양이라는 뜻
- 음지 <마을> : 여천마을 남쪽의 마을
- 양지 <마을> : 여천마을 동쪽의 마을
- 금굴 <굴> : 여천마을 동쪽의 금을 캐다는 굴
- 중바구 <바위> : 종이 삿갓을 쓴 모양의 바위
- 갈림통 <통> : 여천마을 동쪽 해안에 있는 통
- 갈미바구 <바위> : 여천마을 동쪽 해안에 있는 동물의 갈기를 닮은 바위
- 똥섬 <섬> : 여천마을 동쪽의 작은 섬
- 신머들 <지역> : 대유마을 북동쪽에 있는 너설이 심한 지역. 심한+너설의 의미임
 - * 너설 : 거친 바위나 돌로 이루어진 지역

- 중바구 <바위> : 대유마을 동북쪽 해안의 바위
- 조침지막터, 조침막터, 쫓치막터 <터> : 봉산시절 사슴을 쫓던 사냥막이 있었던 터
- 사냥막터 <터> : 대유마을 북서쪽에 있는 터. 금오도가 봉산이었을 당시 사슴 사냥을 위해 임시로 기거했던 막이 있던 곳
- 간지곶 <곶> : 대유와 소유 사이에 있는 바다로 돌출된 곳. 간지는 빨랫줄을 지탱하도록 세우는 간지대에서 유래함
- 밭밀 <지역> : 소유마을 동쪽 밭이 많은 지역의 해안
- 연목 <마을> : 소유마을에서 동남쪽 약 400m 형성된 지역으로 바닷가에 여가 많이 있다하여 명명됨.
- 웃동네 <마을> : 소유마을 서쪽 산지에 있는 마을, 위에 있는 마을
- 공지(共地) <지역> :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했던 공유지를 뜻함

4) 심장리(心張里)

(1) 심포마을

- 따순금이 [온금이(溫金)] <마을> : 심포마을 서쪽 해변에 있던 마을로 금오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1885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마을 뒷편 북쪽으로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와 해변이 있어 사시사철 따뜻하여 따순금이라 함. 2000년대에 들어와 주민이 모두 이주하여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빈터만 남아 있다.
- 일종(일정)고지 <곶> : 막포마을 서쪽에 있는 곳으로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으며, 심포항의 남동풍을 막아 주는 돌출 부분임. 한자 정(丁)자 같은 돌출지형의 이름.
- 문바구여 [문암서] <바위> : 막포마을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두 개의 바위가 문처럼 되어서 그 사이로 선박이 통행함.
- 망산 [봉대산, 봉화산] <산> : 심포마을 남쪽에 있는 금오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지금도 복원된 봉수대가 있음. 옛날 봉화를 올려 왜적의 침입을 알리던 곳.

- 산제당 [제당산] <당집> : 심포마을 중앙에 있는 당집으로 토속신을 모신 곳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곳.
- 구몽암등대 <등대> : 심포마을 남쪽 약 4km 지점에 있는 구멍바위에 설치된 무인등대.
- 공동묘지 <묘지> : 심장리 산 252번지에 있는 공동묘지.

(2) 미포마을

- 빈대바위 <바위> : 미포마을 앞산 정상 뒤편에 있는 바위. 바위 아래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너무 많아 절을 옮겼다고 함.

(3) 장지마을

- 장지 [양지, 진작지, 장지평] <마을> : 미포마을 남쪽 약 2.5km로 마을 전체가 남향이고, 높다란 뒷산이 북풍을 막아 주어 양지마을이라 불렀다고 하며, 마을 앞 해변이 길게 늘어진 자갈 해변이어서 '진작지'로 부르던 곳으로 한자로 장지(張芝)마을이 됨.
- 소우실포(小牛室浦) [소우실개, 작은 우실개] <마을> : 장지마을 동북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 우실은 마을 앞에 돌이나 흙, 나무를 이용하여 보호벽이나 보호림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당집과 같이 마을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함
- 안동내 <마을> : 장지마을 동쪽의 마을로 안쪽에 있다 하여 명명됨.
- 돌고지고개 [독고지고개] <고개> : 장지마을에서 심포마을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 고개 주위에 큰 산돌이 많이 있음.
- 장지고개 [장지치, 망장치] <고개> : 장지마을에서 소우실포마을로 가는 고개.
- 숲구지 <곳> : 장지마을 서쪽에 있는 돌출 지역. 숲을 구웠던 장소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지며 숲이 우거져 있어서 숲구지가 변한 말이라고도 함.
- 보호수 <나무> : 장지마을 뒷산 중턱에 있으며 동백 100여 그루, 소나무 10그루로 수령은 1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
- 보호수 <나무> : 장지마을 숲구지 선착장 위에 있는 팽나무로 수령은 약 250년.
- 문바위 [문바구] <바위> : 장지마을 서쪽과 심포마을의 경계에 있으며, 해안 지점에

양 쪽 바위가 문처럼 생겼다 하여 칭함.

- 작은가마섬 [소부도] <섬> : 장지마을 서남쪽에 있는 섬. 도자기나 솥을 굽던 가마를 닮아 가마섬으로 부르던 부도(釜島) 옆의 작은섬이어서 ‘소부도’라 함.
- 낭장망 <어장> : 장지마을 남쪽 해안의 멸치잡이 어장.
- 제당 <당산> : 장지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당집으로 1895년에 건립
- 먹골창 <골짜기> : 미포마을 서쪽 골짜기
- 작은망기미곶 <곶> : 미포마을 서쪽 해안에 있는 곶
- 망기미 <마을> : 망산이 있던 기미에서 유래된 마을 이름
- 당산 <당집> : 미포마을 당집이 있던 곳
- 옷동네 <마을> : 미포 남쪽에 있는 옷마을
- 인능개, 있는개 <개> : 망꼬미 동쪽의 해안지명
- 넘너리 <해안> : 미포 동쪽으로 파도가 닿는 넓은 해변
- 넓머리 <곶> : 미포 동쪽 넘너리 부근에 있는 곶
- 후리포 <개> : 장지마을 북동쪽에 있는 해안. 1940년경 말가니란 일본인이 장지마을에 거주하면서 멸치잡이 저인망 무동력선에서 인력으로 그물을 이용하는 후리그물로 조업을 하는 곳이라 함.
- 도도랭이 <지역> : 장지마을 동북쪽 해안의 지명
- 오리똥눈데 <바위> : 장지마을 남서쪽 바위로 오리 배설물로 바위가 하얗게 됨
- 노랑바위 <바위> : 장지마을 남서쪽 해안으로 바위색이 노랑색임
- 양지새통 <통> : 장지마을 남서쪽 양지마을 사이에 있는 통
- 꽃밭등 <지역> : 장지마을 남서쪽 해안으로 산자락이 꽃처럼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꽃밭등은 꽃밭이 아닌 강이나 바다로 돌출된 지역을 이르는 곳이 변한 우리 말 지명
- 밖업대기, 밭업대기 <지역> : 막개 서쪽에 있는 해안
- 장꾸방 <해안> : 막개 서쪽에 있는 해안으로 장독대 모양임
- 막개 <마을> : 금오도의 꼬트머리에 있었던 마을 이름으로 지금은 주민이 없음
- 안업대기 <지역> : 막개 서쪽에 있는 해안으로 안과 밖의 업대기가 있으며 아기를 업은 모양에서 유래 했다함
- 세모잡이통 <통> : 막개 서쪽의 해안으로 돌출된 지형이 세모(삼각형)를 이루고 있어

세모잼이라고 함. 세모잼이에 있는 통

- 닳여 <여> : 막개 서쪽의 해안에 있는 여. 닳 역할을 하는 여
- 충산 <섬> : 막개 서쪽의 해안으로 뾰은 산 이름
- 활끝 <곶> : 막개 서쪽의 해안으로 해안의 모양이 활처럼 생김
- 배깨진골 <해안> : 배가 깨진 곳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한국전쟁 때 주민이 피난간 곳
- 단추곶 <곶> : 심포마을 남쪽 해안의 이름
- 짚은개, 지풍개 <개> : 심포마을의 우리말 이름. 마을 앞바다 수심이 깊어 유래함
- 노랑바구 <바위> : 심포마을 서쪽의 해안바위 이름
- 청석머들 <지역> : 푸른색의 너설이 형성된 해안
- 부엌 <해안> : 심포마을 서쪽의 해안
- 부산바구곶 <곶> : 심포마을 서쪽의 해안
- 강정(바구) <바위> : 심포마을 서쪽의 해안
- 따순기미 <만> : 심포마을 서쪽의 해안으로 겨울에도 따뜻하여서 명명됨
- 양지 <지역> : 심포마을 서쪽의 양지 지역
- 동천 <지역> : 심포마을 마을 동쪽 지역
- 음지곶 <지역> : 심포마을 남쪽의 해안
- 옷침 <지역> : 심포마을 동쪽으로 장지로 가는 고개 부근 지역
- 독고지 <고개> : 장지마을 북쪽 입구의 고개로 돌이 많음
- 옷동네 <마을> : 장지마을 동쪽 안도교쪽에 있는 옷마을
- 망산 <산> : 장지와 심포사이에 있는 마을 뒷산으로 봉화대가 있음
- 대감산소등 [대감산, 부봉] <산> : 심포마을 남쪽에 있는 산등성이. 약 140년 전에 이 주회라는 대감이 이곳에 귀양을 왔는데 이산의 명당자리에다 부친의 묘를 이장하였다고 함. 이장 후 3일 만에 천둥번개로 묘 위의 바위가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하며, 그 후 이대감은 유배에서 풀려나 부친의 묘를 다시 옮겨갔다하여 이곳을 대감산소등이라 함.
- 막포 <마을> : = 막개
- 구멍암, 세상여 <여> : 막포마을 남쪽 해상에 있는 바위. 조그마한 구멍이 아홉개 있 다하여 명명됨.
- 치곶 <곶> : 장지마을 서남쪽 곶으로 금오도의 가장 남쪽 끝임
- 송곳바위 <바위> : 대감산에 있는 바위로 송곳처럼 뾰쪽한 바위

나. 금오도의 설화

1) 꽃사슴이 살았던 거무섬

두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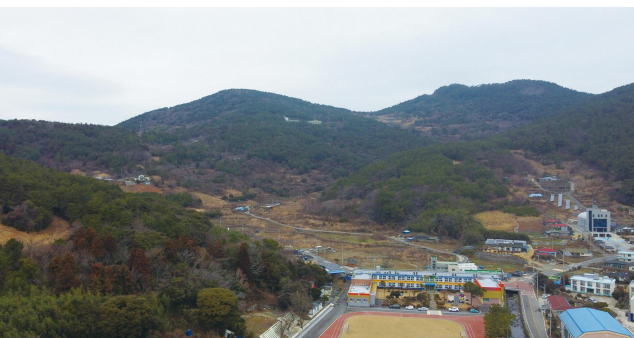
옛날부터 금오도(거무섬)는 왕족의 관을 만드는 좋은 소나무가 많아 황장봉산으로 지정되었는데 바다와 어우러진 경치가 아름다워 조선 왕가의 놀이터로 정했다. 이후 왕가에서 키웠던 꽃사슴이 오랫동안 거무섬에 살았다.

2) 다시랑(신랑봉, 新郎峰) 전설

내외진마을

내외진마을 북쪽에 '다시랑' 봉우리(일명 신랑봉)와, 건너마을의 옥녀봉에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옛날 하늘나라의 선녀가 인간 세상의 남자와 서로 사랑하여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래도 선녀와 남자가 헤어지지 않고, 금오도에 숨어 사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옥황상제는 두 연인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바위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 남자는 다시랑봉이 되고 선녀는 옥녀봉이 되어서 영원히 서로 마주 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한편, 다시랑(봉)에는 '남자바위'와 '여자바위'가 있는데 이 마을의 사랑하던 두 젊은 남녀가 산에 올라 놀다가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쳐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바위 밑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숨어있던 바위에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두 남녀는 바위로 변했다고 전해온다.



다시랑봉



옥녀봉

3) 옥녀봉 전설

우실마을

하늘에 살던 네 명의 선녀가 금오도의 아름다움을 알고 섬으로 놀러 오게 되었다. 놀이가 끝난 후 셋은 하늘로 올라가고 선녀 옷을 잃어버린 한 선녀만이 올라가지 못하고 금오도에 살게 되었는데, 그 선녀를 옥녀라고 불렀다. 하루는 옥녀가 바위 위에서 베를 짜다가 베틀의 북을 놓친 것이 유송리 소유 앞바다에 빠져 '납덕섬'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옥녀봉 산 밑에서 땀감으로 쓰기 위해 벌채를 하면 옥녀의 치마를 벗기는 것과 같고, 옥녀가 노하여 마을에 재앙을 준다고 하여 옥녀봉에서는 벌채를 삼갔다고 한다.

4) 비사리 구시에 관한 전설

함구미마을

조선말 대원군은 경복궁 재건 시에 함구미마을에서 재건에 필요한 소나무와 목재를 반출해 갔다 한다. 반출 도중에 비사리 나무 하나를 순천 송광사로 가져가 밥을 담는 구시로 만들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비사리 구시가 순천 송광사에 남아 있었다 한다.

5) 용머리 바위에 관한 전설

함구미마을

함구미마을 서쪽 끝에 용머리라는 곳이 있는데 바다에서 바라보면 마치 용이 바다로 기어 나오는 형상을 하고 있다. 특히 용머리에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태의 바위가 있었는데 어떤 주민이 이 바위를 빼내어 바다로 굴러 버렸다 한다. 그 해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차례로 죽어나가자, 이는 여의주를 훼손한 죄값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달래었다고 한다. 이 소문이 멀리 퍼지자 용머리 앞을 지나는 배들도 닻을 내리고 고사를 지낸 다음 항해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용머리 해안



송광사 절터

6) 절터에 관한 전설

함구미마을

함구미마을 뒷산에는 약 6,000평이 되는 넓은 평지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높은 산봉우리 바로 밑에 있는 이곳을 절터라고 불렀다.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는 옛날 어떤 도사가 이곳에서 지팡이를 한 번 두들겨 터를 만들어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하루는 상좌 아이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기 위해 쌀을 씻던 중 그만 잘못하여 수십길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자, 도사가 이곳을 떠나면서 지팡이를 쳐 산봉우리를 무너지게 하여 절의 흔적을 없애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지금도 상좌 아이가 쌀을 씻던 곳을 '뜨물통'이라 부르며 쌀을 씻던 절벽 위에는 하얗게 쌀뜨물 흔적이 절벽에 남아 있다. 현재 주민 대부분은 옛날에 실제로 절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귀객기』에 의하면 고려 명종 때 보조국사 지눌이 금오도의 송광사와 조계산 송광사 간을 왕래하면서 돌산도에는 은적암을 짓고 휴식을 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7) 신선대에 관한 전설

두포마을

두포마을 북쪽 해안 벼랑에 신선대라는 곳이 있는데,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살았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주변에는 신선들이 쌓았다는 큰 돌탑들이 남아 있다.



미륵바위



불무골 샘

8) 불무골 전설

두포마을

두포마을 북쪽에 '불무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 사슴을 잡기 위해 포수들의 사냥도구를 제작, 수선하기 위한 대장간과 풀무가 설치되어 있던 관계로 "불무골"이라고 불리어졌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나라의 세곡을 실어 나르는 조운선을 건조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9) 당제와 호랑이 전설

여천마을

100여년 전 마을 당제를 모실 때에 호랑이 한 쌍이 나타나 당제를 모시는 동안 근처를 배회하다가 당제가 모두 끝나면 산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여천 당숲



대감산소등

10) 대감산소등 전설

심포마을

1800년대 말 심포마을에는 이주회(일명 이풍년)란 사람이 귀양을 왔었는데, 구전에 의하면 조정에서 상당한 벼슬자리에 있었던 분으로 일어, 중국어 등을 능히 구사하였다 한다. 그리고 명성이 자자해 금오도를 지나는 일본인들도 필히 문안 인사를 드렸을 정도라 한다.

심포마을에 우뚝 솟은 산인 망산이라는 이름도 이대감이 이 산을 바라보면서 향수와 유배의 한을 달래며 바라보았다 해서 명명되었다고 전한다. 망산 오른편에는 '대감산소등'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다. 당시 이대감이 이 산의 명당자리에서 아래로 묘를 이장하였는데 이장 후 3일 만에 뇌성벽력으로 위에 있던 바위가 묘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한다. 그때 대감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우려로 깊은 좌절과 허탈에 빠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풍수에 의하면 바위가 위에 있을 때는 후손들 중에 충신 명재상이 날 자리였는데 바위가 밑으로 굴러앉은 역적이 날 자리로 하늘의 뜻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 후 대감은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고 상경하여 부친의 묘를 다시 옮겨갔으며, 모종의 변란에서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11) 거문고를 타는 옥녀와 풍수지리

남면일대

조선시대 방답진이 있었던 돌산도의 군내리 뒷산인 아뒤산 골짜기는 옥녀가 거문고를 타는 지세인 옥녀탄금혈이라고 전해왔다. 그래서 군내리 앞에 있는 남면의 섬들은 거문고 연주와 함께 하는 악기에 비유하였는데, 주변 섬의 형세가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지세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옥녀는 돌산의 천왕산이요, 거문고는 송도이며, 송도 앞의 장구섬은 장구, 나발도는 나팔, 화태도는 첩대, 월호도는 징이며, 자봉도는 썰과리, 두리도는 북이라고 한다. 횡간도에는 채얼채라는 독이 있는데 채얼은 옛날 천막의 이름으로 채얼 아래서 구경하는 구경꾼이라고 하며 안도의 기러기와 연도의 솔개가 춤을 추며 노는 형국이라 여겼다. 옛 방답진 주변은 옥녀봉을 중심으로 바다 앞 여러 섬이 풍수지리의 기운을 얻어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개선할 것이란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다. 금오도의 민요

1) 금오도 “사난이 타령”

앞록강 칠백리 무쇠다리 놓고
수천길 기차가 왔다갔다 한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다시배 친구는 못사굴 친구
새벽바람 몽구소리에 니녕나녕 한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무정한 세월아 오고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리님 줄라고 술 받아놓고
허리장단 맞추다가 술동우를 깬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리님 보고 념의님 보니
두 눈만 깜박이고 침만 넘어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ням의집 서방님은 순사칼을 찾는다
우리집의 저 문맹이는 정지칼을 찬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ням의집 서방님은 쌍안경을 끼는다
우리집의 저 문맹이는 쌍다래끼만 낀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저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날 버리고 가는 념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저산 몰랑에 외로이 선 나무야
가을바람 맞으며 외로이 섰느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가는데
바람아 강풍아 선달열흘만 불어라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저산 고부가 왜 고부냐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난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금물이 있어야만 금수강산 이지
내수중에 돈 떨어지면 적막강산이로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호박은 늙으면 닻맛만 나는디
사람은 늙으면 무 맛만 난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사나쿠 백발은 쓸데가 있는디
사람의 백발은 쓸데가 없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제보자: 두포(초포) 김성자(여)

닐보고 날 봐라 나가 니따라 살까
연분이 좋은골로 니를따라 산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불로초 떨어지고는 살만해도
장구장단이 떨어지고야 나는 못살것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니연애 나연애 술방을 연애
바람만 불어도 똑 떨어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하늘에 잔 별을 다 셀 수가 있느냐
우리님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느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사람의 손꾸락은 질고 짜르고 허는디
남남으로 만나고야 좋을 리가 있느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고
자식 많은 요내뎡은 속 편헐날 없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오늘 같지 내일 같지 모르는 년이
호박밑 구녕 딱딱 굵고서 전소매를 푼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물 짓는 소리는 풍당풍당 허는디
날 오라는 손짓은 손만 까딱 헐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고향땅 떨어지고는 나가 살만해도
장모님 딸 떨어지고는 나는 못살컷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제보자: 두포(초포) 강순영(여)

님 보고 싶으면 사진을 보고
말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를 한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바람아 강풍아 설설불지 마라
곶게 빗은 요내 머리가 헝클벙클 헐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술은 술술 잘도 넘어 가는디
찬물에 냉수는 입안에 뱅뱅 돈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넘으나 서방님은 순사칼을 찻는디
우리집 저 문맹이는 정지칼을 찻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넘으나 서방님은 쌍안경을 썼는데
우리집 저 문맹이는 쌍다라치 닐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넘으나 서방님은 연지분을 불랐는데
우리집 저 문맹이는 밀가리를 불랐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다시배 친구는 못사울 친구
새복바람 용두소리에 정떨어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바람아 강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우리나 서방님이 명태잡이를 갔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제보자: 두포(초포) 김본심(여)

사람이 늙으면 맘조차 늙나
세상 앞에서는 소소 일반이로구나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금전이 있어야 금수강산 이지
내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적막강산이로구나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저 건너 술집에 술 떨어지자
이내나 수증에는 돈이 떨어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각시는 작아도 긴 치마입고
큰집에 목화는 다 쓸고 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물동우 여다가 새미 등천에 놓고
건너산 쳐다보고 한숨만 쉰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물질러 간다고 강짜를 말고
등반 밑에다 샘 파주소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머리를 빗고 면경을 보니
누구 집 장부가 나를 업어갈까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 좋고
연못에 붓어는 사시사철이 좋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제보자: 두포(초포) 문영자(여)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냐
정거장 마당이 한강수가 되었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다시배 친구는 못사귄 친구
새벽바람 동구소리에 정 떨어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리님이 실렸거든 쌍고동 불고가고
님의님이 실렸거든 검은연기만 내고가라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남이라고 생겼거든 이별 없이 만나든가
홀로나 가지 말고 나 좀 데려가지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울엄니 줄라고 달걀을 쪄는디
뚜껑을 열어 본께 솔방울을 쪄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울엄니 줄라고 명태를 쪄는디
아이고 날좀보고 팔래방망이를 쪄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제보자 : 두포(초포) 문우분(여)

저달아 보느냐 본대로 일러라
사생결단코 남을 찾아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품안에 들 때는 사랑사랑 해도
품밖에 불거지면 적막강산이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바다에 든 고기는 낚을 수가 있어도
방안에 든 처녀는 낚을 수가 없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풍랑을 만나면 다 죽어 오냐
어느 고비를 돌고 돌아도 다 살아 온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너를 보고 나를 봐라 나가 널 따라 살것나
연분이 좋아서 너를 따라 산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군대를 갈라면 진직부터나 가지
나를 델다 놓고서 군대를 가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하늘에 난 별을 다 셀 수가 있는냐
나 속안에 든 말을 다 헐수가 있는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언제는 좋다고 사랑사랑 허더니
언제는 나 싫다고 구두발로 차더라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넘의집 서방님은 짓구지름을 보르디
우리집의 저 문맹이는 김칫국만 보르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물래야 가락아 도리 뱅뱅 돌아라

밤중 셋별이 살을 돌아 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니 죽고 내가 살아 무슨 열녀가 있냐
한강수 깊은 물에 내가 빠져 준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품안에 들 때는 내 사랑아 하더니
품밖에 볼거지면은 못 혈말이 없구나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죽었던 풀잎은 다 살아 나는데
한번가신 우리 님은 다시 못 오더라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개
정든님 고개는 단고개 더라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오란데 가란데 야밤에 가고
동네나 찾을 적에는 대낮에 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술은 술술 잘 넘어 가는데
찬물에 냉수는 입안에 빙빙 돈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높은산 우에는 번개구름이 피고
봉투지 속에는 님의 말씀이 핀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요 아래 갱본에는 자갈도 많고
논산 훈련소에는 대장군도 많더라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왜 왔든가 왜 왔든가
울고나 갈길을 내가 왜 왔든가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정든님 따라서 내가 돌아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산넘어 큰애기 베 짜는 소리
늙은 총각 애간장만 다 녹는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놀다가 죽어도 산천초목에 가고
일만 허다 죽어도 산천초목에 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연히 들은 연애질 소리
잠들기 전에는 나는 못잊었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물짓는 소리는 풍뎡풍뎡 현디
날 오라고 치는손은 손만까딱 현디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하이칼라 증절모자 개화장 집고
술 한 잔만 내라하면 바발발발 편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세월아 갈라 거든 너 혼자나 가지
아깝다 이내청춘을 다 데리고 가느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나 넘어 간데다가 눈을 박으란께
승학헌 우학리다가 나를 박았던가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싫으면 그만되라 너하나 더냐
산을 넘고 물 넘으면 새 사람이 있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정들었다고서 정옛 말만 말어라
정 떨어지고서야 못할 말이 없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나가 살면은 이백만년을 살켰나
죽음에 들어서 남녀노소가 있느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내가 돌아 간다 내가 돌아간다
정든님 따라서 내가 돌아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하늬바람 셋바람엔 산비가 오고
봉투지 속에는 남의 말씀이 온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서방님 오신다고 깨명이 벗고 잤더니
문풍지 바람에 설사 동티가 났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밤모실 돌아서 연애 걸어 놓은께
속모른 우리 부모 니정 나정 따지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층계 층계 공동산을 질을 닦아 놓고
요리 나도 죽어지면 저기 저질로 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죽었던 풀잎은 다시 살아 나는디
한 번간 인생은 다시 올 줄 모르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품안에 들 때는 내사랑아 해도
품밖에 불거지머는 못할 말이 없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꽃나무 밑에다가 남을 숨겨 놓고

남인지 꽃인지 분간 못하겠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군대를 가며는 다 죽어 오냐
어느굽이 물고 돌아도 다 살어 온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사쿠라 피면 오신다던 님이
열매 열어 익어도 올 줄 모르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우리가 이룬다고 욱혀지 말소
세상이 가르친게 허는 수가 없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저기 가는 저 처녀 앞가슴을 보아라
넝쿨 없이 수박이 두덩이가 열렸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날 보고 날 봐라 나가 니 따러 사느냐
연분이 맞은께 니가 날 따러 산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아리랑 춘자야 연지분을 불라라
스리랑 달밤에 선보러 가자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하동장에 밍발 무시 연하고도 달데 마는
우리집 저문맹이 어찌 저리도 미련한가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백두산이 높다 해도 올라서면 발밑이요
대동강물 깊다 해도 배 띄우면 배밑이라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죽자하니 청춘이고 살자하니 고생이네
죽도살도 못한 청춘 내 살아서 무엇하리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논방천 밑에는 찬물이 나고요

처녀의 궁둥이에는 생수가 난단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물밑에 고기는 낚을 수가 있어도

방안에 큰처녀 낚을 수가 없구나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물레야 가락아 올이 뱅뱅 돌아라

밤중 셋별이 산을 넘어간다

에야 디야 나에헤에에 에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제보자: 내외진 문정자(여)

2) 육자백이 (설움소리)

하루저녁 안보이니 대문밖에 지낸손님

안오던가 안오던가 우리남편 안오던가

요내주인은 어데갔나 칠성판에 누워오니

웬말이요 웬말이요 칠성판이란 웬말이요

서울구경 안갔더라면 우리남편 안죽을걸

보거나 못하고 왔더라면 죽을고비 넘깃슬걸

사랑이 깊더라면 나를보고 일어나소

아이고 아차 죽어진께 남보다도 못하드라

강원도라 금강산은 돌아 갈수록 경치 좋고

너와 나와 단둘이는 살아 갈수록 정만든다

시누 올케 꽃 따러 가다가 한강수 물에가 빠졌구나

몬야 빠진 동생 두고 난중 빠진 올케 잡네

나도 죽어 새로나 생긴 셋갈밑에나 집을 짓고

남편보통 섬길라네

소시랑 빗지락 싹싹 쓸어

안도 축강에다 넓고 오는 배 가는 배 손 만든다.

아서라 말어라 니그러지 마라
이사람 팔시를 니그러지 마라
산아산아 매봉산아 높으고도 고운산아
꽃이 피야 내가가지
꽃 안핀 겨울에는 내가 못가겠네

제보자: 내외진 문정자(여)

3) 노동요 (멸치잡이 그물 당길 때 부른 노래)

멸치잡이 오가다리(권현망) 어부들이 소리를 하면서 힘을 합하여 어장을 올리는 소리인데 일본 언어가 많아 보존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네 조상들이 삶의 터전에서 불러야만 했던 애환이 깃든 소리이기에 적어둔다.

■ 노를 저으며 어장터 나갈 때

이야하, 이야하, 요해, 요해

■ 낙망할 때

후까세 후까세 여이 이야 요해에 -

■ 노꼬리 감으며 줄을 당길 때

여잇샤 여잇샤 이야, 이야아 - 아 - 요 여이사요
돌아간다 저이야자 - 아야라 차아 조사이야
잇씨 잇씨 사이요
에이소테 야라 저이야자 이야라 차차 조사이야
잇샤 잇샤

■ 오백이 그물 당길 때

야라 에이요테 이야라차차,
조사이야 에쇼오테 야 - 아라
소대(뒷소리) 맞춤 - 야아라 에이야자)

■ 수비 그물 당길 때

어야 - 자 어- 샤아자, 요오세여 - 사자 요오세에
요도꼬세에 어이샤 어이샤

■ 후꾸리 그물(뒷그물) 당길 때

이야라얏차 조사이야 에이요 에이요호 에이요토 이이가
요토사하 지요지야라,
차차 조사이야 잇찌 잇찌 에이요토
에이요토 세이가 요토사하 이여 이야라 차차 조사이야-

제보자: 직포 정기채(남, 1921년생)

4) 길쌈요
(베틀노래)

눔아눔아 처남눔아
느그누님 뵤하더냐
앗앗더냐 누웠더냐
신던보신 불 거드냐
입던 등지개 등 받드냐

베틀농세
베틀농세
사칸장판에다
베틀농세

베틀다리는 사형젠데
이내다리는 형제로다
잉에대는 삼형젠데
놀깃대는 독신이라

북보데집은 장단을 맞추고
철개시는 노래를 부르고
용두머리는 춤을 추고
무지개같은 저놈의 채밭은
양금양금 잘도가네

머리카락 같은 너놈의 올은
탱글탱글 잘도 떨어진다.
얼씨구나 좋구나
절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 좋구나

제보자: 두포 황귀심(여, 1919년생)

베를을 놓세 베를을 놓세
사각 장판방에 베를을 놓세
베를다리는 사행지요
요내다리는 행이로구나

나구신대는 춤을추고
절개씨는 노래를 해야
북부대립은 장단맞차
무지개 같은 저놈의 챗발
몽구적 몽구적 잘 들어가고
머크락같은 저놈의 나 올은
팽당팽당글 잘 떨어진다

제보자: 내외진 문정자(여)

5) 기타 잡가(雜歌)

잠아 잠아 오지마라 시어머니 눈에 난다
시어머니 눈에 나면 남의 눈에도 절로 난다
남의 눈에 나고 보면 동네 눈에도 절로 난다

시집간 삼일만에 참나무 숯불에다가
들깨 닷말 참깨 닷말 볶으라네
양가메(가마솥) 양동우(동이) 벌어지네
시어머니 호롱(호통)보소
삼간 말리(마루)를 올리면서
느그 집에 건너가서 느그 새간 전답을 다 팔아도
우리 양가메 양동우는 못놓겠다

꽃방석을 내치면서 시아버지 앉으시오
시어머니 앉으시오 중날 받고 상날 받아
산새 잡아 헛드리고 산닭 잡아 헛드리고
밤중밤중 야밤중에 우리집에 들어서서
바늘 걸은 요내몸 집단같이 헐었으니
아세같이(처음과 똑같이) 물리주면
양가매 양동우 사놓겠소
아가아가 느말 마라 느그 시어머니는
한아침에 죽식기 열볼도 켜단다.

어마 어마 이붓어마
꺼명창은 어디 두고 흰창으로 날 보는가
날 보기가 정 싫거든 우리 아비를 버리주소
아가 아가 그말 말어라
우리 어무니가 날 설 때에
흰죽을 많이 먹어서 흰창이 많단다.

불과 같이 나는 별에 맺과 같이 짙은 밭에
하루 가면 한 줄 메고 이틀 가면 두 줄 메고
집이라고 들어가니 시어머니 거동 보소
콩죽 써서 웃국 뜨고 풋죽 써서 웃국 떠
비자나무 손방끝에 요리저리 밀치놔네

동네 천지 사람들아 이것 먹고 살겠는가
건너방에 건너가서 요내방문 반만 열고
요내농문 반만 열고 열두폭의 주름치매
두폭 뜯어 장삼 줍고 두폭 뜯어 바랑 줍고
중의 절로 올라가네 늙은 중은 신을 삼고
젊은 중은 잠을 자네 중아 중아 젊은 중아
그만 자고 일어나서 이내머리 깎아주소

머리 깎기는 여부 없으나 근분이나 알고 깎세
근분 알아 뭐할랑가 우리님이 과거간지
수삼년이 되어도 편지 한 장 전혀 없네
한귀떼기 깎고보니 눈물이 비오듯 하네
두쪽을 깎고나니 웃슬 앞이 사무치네
머리 깎은 삼년만에 아흠 상좌를 거느리고

팔도강산 구경가네 나가는 길 가운데
영금 영금 말을 타고 정든님이 오시는구나

아흙 상좌야 저기 오는 저 대사 보고 절허소
아흙 상좌는 다 절허는디 저 중 하나는 절 안허네
저 중 잡아서 대티를 미라
다 허랑가 다 허랑가 중이라면 다 절헐까
임을 보고 절헐까
외씨 같은 보신발로 말위에 앉았다가
이내 팔목 덩씩 잡고 말소리도 들던 소리
얼굴도 보던 얼굴 어서 가고 바삐 가세
우리집에 어서 가세

문끈 잡고 노는 자석 오뚝 오뚝 걷는 자석
엄마 아빠 부른 자석 그안이기도 호강인가
하늘 같은 자네 부모 천금 같은 자석 오도록
고시원을 기다리네
깍은 머리 이왕인지라 삼년공부하고 감세
예레기 요망한년 니가 아무리 증년이라고
중의 행실 너가 하나

집이라고 내려오니 우리 어무니 거동 보소
짓만 남은 적삼 입고 말만 남은 치매 입고
새람밖에 내뜨면서 자석 자석 내자석아
천금 같은 내자석아 어서 오고 바삐오소
수룩딸년 개딸잡년 옛그제 빨래한 년
간밤에 도주갔네
수룩딸년 개딸년 옛그제 빨래한 년이
지 얼마나 암전해서 머리 깎은 삼년만에
나 오는 길 가운데 아흙 상좌 거느리고
팔도강산 구경 갑테다.

우리방에 건너가니
비단공단 한이불을 덮을 듯이 밀치놓고
원양침 잣베개는 빌 듯이 밀치놓고
새발 같은 요강대는 발질발질 밀치놓고
거의 죽게 되었으니 업고도 풀이나마

입이 오면 일어남세
입 오라고 편지하니 오라는 입은 아니오고
만리장성 편지 왔네 그 편지 손에 들고 보니
열두가지 약 쓰라네 달속에는 달꽃 따고
별속에는 별꽃 따고 햇속에는 햇꽃 따고
강물에는 해달피라 민물에는 수달피요
밤의 발에 밤대추요 양의 발에 양대추라네
열두가지 약 쓰라네 그 편지 손에 들고
선암 송광 절로 가서 중아 중아 상좌 중아
너희 스님 오시거든 달리 죽었다 말고
입이 그리워 죽었다 하소

저 건너 저 초당 안에 들랑날랑 처녀야
눈을 주자니 니가 모르고 손을 치자니 녀미 알고
발뽕 앞에 채인 돌을 던진다고 던진 것이
처녀 발등에 맞았구나 훌쩍 훌쩍 우는 소리
니정 나정이 똑 떨어진다

저 건너 오두막집에 마당 쓸어 모닥 놓고
겉 타라고 모닥났지 속 타라고 모닥났는가
타드러가네 타드러가네 나속같이 속만 타네

시집가던 삼일만에 시아버지 감사 나고
서방님은 입사 났네 감사앞에 술 붓다가
님의 전에 눈주다가 깨었구나 깨었구나
감사 앞에서 유리잔 깨었구나
분별히세 분별히세 감사앞에 유리잔은
무값 주고 사련만 오늘 아침 봉선화는
한번 가면 읊이나냐 싹이 나냐

밭에 가면 바래기 원수 눈에 가면 가래 원수
집에 가면 씨누이 원수 세 원수를 잡아다가
당다실로 목을 매서 대천 한바다에 띄어주소

산아 산아 매봉산아 높고도 고분 산아
꽃이 피면 나가 갈까 꽃 아니 피면 나가 갈까
꽃은 꽃은 곱네마는 가지가 높아 못꿨네

가지가 높아 못끓는 꽃 그 꽃 이름이라도 짓고 가세
그 꽃 이름 무엇이라 이름 지을까 해당화 봉선화라
이름 짓세 해당화야 봉선화야 나짓는다고 설위말소
내년 춘삼월이 돌아오면 너도 피고 나도 핏세

님아 님아 정든 님아 느그 집에 나 올때는
천석을 보고 나가 왔냐 만금을 보고 나가 왔냐
조그만 니 하나 보고 내가 왔다

제보자: 초포 고진자(여, 1940년생)

아이고 배야 달구배야 이붓어뎌 눈치배야
우리 어무니 살었으면 회죽 먹고 낫을 배야
나가 만약 죽드라도 장꾸방에 물어주소
눈이 오면 쓸어주고 비가 오면 덮어주소
우리 친구 날 묻거든 나 여기 있다 전해주소

바람아 강풍아 불지를 말어라
우리나 낭군은 수중에 뒀다
에야 디야 나해해해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정든님 즐라고 술받어 이고
고개장단 맞추다가 술단지를 켜네
에야 디야 나해해해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제보자: 두포 한진례(여, 1944년생)

내 딸 죽고 내 사우야 울고 갈 길 왜 왔느냐
자고 가소 자고 가소 윗목지리 자고 가소
자면 자고 말면 말지 윗목장판 내가 자리

제보자: 두포 이복자(여, 1940년생)

산아 산아 매봉산아 높으고도 얇은 산아
너는 가고 나는 늙고 산은 첩첩 산중인데
떨구나무 참새 앉고 비밀에 오신 손님
학을 불러라 춤을 춰라 이 때가 어느 때냐

삼월 사쿠라 막 필 때다.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다

간다 간다 할 때는 애상했더니
손가방 손에 든께 눈물이 난다
에야 디야 나해해해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늪지를 말자 늪지를 말자
이십의 청춘을 늪지를 말자
에야 디야 나해해해야 에야 디어루 사난이로구나

제보자: 학동 하학업(여, 1928년생)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임이 그리워 운다
니냐 니냐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삼대독자 외아들이 장가들라
앞집에 가 사주 봐요 뒷집에 가 궁합 봐요
궁합에도 못갈 장가 사주에도 못갈 장가
한모뎡이 돌고가니 지랭이 새끼가 발신허네
두모뎡이 돌고가니 까마귀 깐치 발신허네
시럽문을 열고나니 제아닌 장모가 마주하네

삼단같은 검은머리 치마위에 엮어놓고
둘이 비자 해는 비개 혼자 비고 누웠는가
장가 오면 즐라든 음식 성복제나 잘 지내소

하로 아침 한 부인이 대문 밖에 나온 부인
안오든가 안오든가 우리 남편은 안오든가
오기는 오데마는 칠성판에 누워서 오데
웬말인가 웬말인가 칠성판이 웬말인가

서울 구경을 안갔으면 우리 남편 안죽을 걸
배가 고파 죽었으면 밥을 보고 일어나고
목이 보타 갔더라면 물을 보고 일어나소

사랑이 기려 갔더라면 나를 보고 일어나소
아이가 아이가 죽어진게 나무꿀팅보다 험하더라

산아 산아 매봉산아 높으고도 곧은 산아
꽃이 피어야 나가 가지 꽃 안핀 철에는 못가겠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다

하늘 같이 높은 사람 땅과 같이 깊은 사람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날
하루만 못봐도 못살겠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넷가에 버드나무 바람만 불어도 흐늘흐늘
이내 나는 손발이 있어도
가시는 남을 못잡았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산중사람 산을 타고 해변사람 배를 타고
우리집에 우리 오빠는 산도 배도 아니 타고
세상의 배를 빌려타고 팔도강산 유람갔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물 놓세 그물 놓세 샘 가에다 그물 놓세
엷은 처녀는 흘러가고 어여쁜 처녀만 걸려주소
엷은 것도 원통탄게 흘러가란 말이 웬말인가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너몰 바구리 옆에 끼고 매봉산으로 올라가니
꽃 피고 잎 핀 내고향이 아릅삼삼 보이는 구나
돈도 싫고 옷도 싫고 처녀 때 생각이 절로 난다.

오늘은 어느곳에서 지친몸을 쉬어나 볼까
갈곳없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하늘을 이불삼아 풀벌레를 벗을삼아
지친몸을 달래면서 잠이든 나그네 신세
아침해가 들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제보자: 내외진 문정자(여)

라. 금오도의 신앙

1) 금오도의 당제¹⁵⁾

(1) 두모리 두포마을 당제와 세시풍속¹⁶⁾

두모리 두포마을은 해마다 마을의 공동제사를 정성스럽게 거행하는데, 이를 ‘당제’ 혹은 ‘당 모신다’라고 한다. 매년 정월 초하룻날에 마을 동북쪽에 있는 ‘제당산’의 당집에서 제를 지냈다.

선달 스무날 경에 마을총회(개발위원회)에서 가장 덕망 있는 사람을 당주로 선정하여 그 집 내외에게 제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긴다. 당주에게는 마을 자금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외에도 마을 앞 바다에서 우뚝가사리와 툫 등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길이가 약 700m 정도이다. 제사 비용은 마을 자금으로 충당한다.

장은 보통 사흘 전에 본다. 목욕재계하고 여수에 나가 장을 보는데 제물을 살 때는 값을 깎지 않는다. 제를 모신 다음날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을 음식까지 함께 준비한다. 장에서 사온 제물은 당주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제일 당일에 가지고 올라가 하당에서 장만한다.

당주로 선정되면 금줄을 친 날부터 당집에 가는 경우를 빼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근신한다. 설을 쇠러 고향에 돌아온 자식들도 다른 집에서 당제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함께 살던 가족들까지도 다른 집에서 사흘 동안 살다가 왔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신발을 바꿔 신었다. 제를 모신 후로도 1년 동안은 초상난 집, 출산한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이 지켜야 하는 금기도 있다. 당주 집에 금줄이 쳐지면 들어가지 못하고, 당주가 제사를 모시는 동안에는 아무도 밖에 나갈 수 없다. 지금도 당주가 산에 올라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는 날 오후가 되면 이장이 여러 차례 방송을 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제를

1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도서지역 무형문화유산조사 보고서Ⅱ』, 2014.

16) 이하 두모리 두포마을 관련 자료는 나경수 외, 『여수시 마을곳』, 민속원, 2008 을 바탕으로 2013~14년에 걸쳐 마을주민의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모시는 시간이 되면 모두 소등을 해야 한다.

이 마을에는 당제를 잘 모시기 때문에 당할머니가 보살펴 줘서 전쟁이 나도 다 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다는 영험담이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여순사건 때도 이 마을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전쟁이 나서 군대에 가도 이 마을 사람은 아무도 전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포마을 당산



두포마을 당집 입구

마을 사람들은 당제를 언제부터 지냈는지 전해오는 문헌이나 증언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모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제를 모시는 시간은 예전부터 쪽 자정에 모셔왔는데, 조금씩 앞당겨 제사를 모셨다.

제를 모시는 곳은 마을 동북쪽 당산에 있는 당집으로 모두 두 채이다. 위쪽에 있는 당집을 상당이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당집을 하당이라 한다. 상당은 제사를 모시는 곳이고, 하당은 제물을 장만하는 곳이다. 당집 주변으로는 구실잣밤나무를 비롯한 초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두포마을 당제와 관련된 모든 준비는 당주가 한다. 당주는 1주일 전에 자신의 집 대문과 당집에 금줄을 친 다음 당집과 그 주변을 청소하고 온갖 정성을 드린다. 청소할 때는 당집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전에는 당집 위쪽에 옹달샘이 있어 제를 모시기 전에 물을 새로 품고 그 물로 제물을 장만했다.

당주는 깨끗한 옷을 입고, 정월 초하룻날 밤 9시경에 당산에 올라간다. 당주 내외만이 당집에 도착하면 먼저 불을 밝힌 다음 하당에서 메를 짓고 음식을 장만하여 상당에 올라가 진설한다. 제상에 올라가는 제수는 메, 갯, 나물, 굴비, 대구, 과일 등이며, 술은 올리지 않는다.

진설이 끝나면 재배를 드리고 소지 10여 장을 올리는데, 소지를 한 장씩 올릴 때마다 소리 내어 축원한다. 축원의 내용은 당주마다 다른데, 보통 “우리나라, 우리 마을, 우리 집안, 우리 어장 잘 되게 해주시고 길 가는 사람, 배타는 사람 모두 무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그런 다음 당할머니 잡수라고 음식을 골고루 싸서 깨끗한 곳에 헌식하는데, 이를 ‘물밥을 올린다’라고도 한다. 제가 끝나고, 당주 내외는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와 다음날 매구를 칠 때 마을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정월 초이튿날 아침을 먹고 난 후에는 지신밟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당주집에 가서 매구를 치고 원하는 사람의 집을 돌면서 걸립을 한다. 정해진 액수를 당주에게 주기 때문에 당제와 관련된 결산은 하지 않는다. 지신밟기를 통해 모아진 돈은 간단히 보고하는 형식으로 결산한다.

두포마을은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아직도 당집과 당제 관련 장소를 일반주민들 및 외부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다.

예전에는 당산제를 마치고 지신밟기를 하기 전에 개인들이 상을 차려 제당산 아래에 있는 논에 나와 헌식제를 올렸다고 한다. 15여 년 전까지만 해도 10여 집 이상 참여하여 상을 차려놓고 손비빔을 했는데 지금은 전승이 끊기고 말았다. 그리고 음력 2월 초에는 영등제를 지냈는데 오래전에 중단되었다.

특히 칠월칠석날이면 마을회관 옆 소나무 숲 아래에서 마을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전에 ‘목신’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전에는 자식을 얻은 집에서 막걸리를 내놓고 집집마다 음식을 마련하여 흥겹게 놀았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 자금이나 찬조받은 돈으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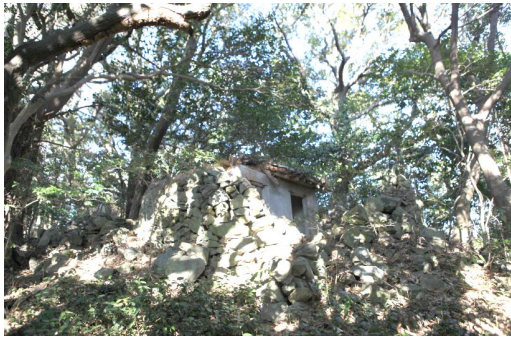
두포마을 인근의 가는고지에서도 과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았을 때에 당산제를 모셨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던 곳에서 당집과 당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주민들의 보존, 전승의지가 아주 강하였으나 노령화 등으로 지금은 당제를 지내지 않는다.

(2) 심장리 미포마을 당산제와 세시풍속¹⁷⁾

심장리 미포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일 0시에 매년 마을 공동으로 제를 모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일러 당산제라고 하며 다르게 부르는 이름은 없었다. 신의 이름은 당산할머니이며, 신체는 치마와 저고리, 버선이며, 당산나무는 울창한

17) 이하 심장리 미포마을 관련 자료는 2013년에 마을에서 김상용(남, 1939년생) 등 마을주민의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구실잣밤나무 18그루와 동백나무, 소나무가 당집을 둘러싸고 있다. 마을 앞산에 당집이 1곳이 있으나,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고, 절반이 허물어진 상태이다. 당집 밑에 제물을 준비하는 하당은 1971년 4월 21일 장길수 이장 때 준공되었고, 건물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당산제에 관한 기록과 벽수, 선돌, 짐대는 없었다.



미포마을 상당



미포마을 하당

제관으로 선정되면 마을에서 ‘엿등’이라 불리는 곳의 어업권과 마을 소유의 논(약 324㎡) 경작권을 주었다고 한다. 제주는 몸을 깨끗이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출입을 삼갔으며, 당집은 3~4일 전에 청소를 해놓고 금줄을 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동네에서 출산의 기미가 있으면 외부에서 출산하였는데, 실제 1952년에 이웃 동네인 우학리 교회에서 출산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술과 생선, 과일, 나물은 제관 집에서 준비하고 메와 갯은 당집 밑에 준비된 공간에서 준비하여 진설하였는데 나머지 절차는 안 지낸 지가 오래되어서 마을주민들도 기억하지 못했다.

부대행사로는 정월대보름에 헌식을 하면서 매생이를 불렀고, 이후 판굿을 치고 놀았다고 한다. 미포마을 당제는 약 50년 전에 단절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당산제를 지내봐야 크게 손해도 이익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3) 심장리 장지마을 당산제와 세시풍속¹⁸⁾

심장리 장지마을에서 지냈던 공동 제의는 당제와 헌식제가 있었다. 당제는 음력 1월 14일 밤 8시부터 지냈고, 당제가 끝나면 곧이어 선창가에서 헌식제를 지냈다.

18) 이하 심장리 장지마을 관련 자료는 여수시 · 조선대학교박물관 『여수시의 문화유적』, 2000을 바탕으로 2013년에 리사무소에서 마을주민의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당제를 지내는 제장을 제당이라 하는데, 망산 아래 백여 그루가 넘는 동백나무 숲 안에 당집이 있다.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당 숲이라 하는데, 당 숲 안에는 팽나무 10여 그루와 동백나무, 당집과 샘, 산신제 터, 헌식 장소 등이 있다. 당집은 콘크리트 벽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1971년에 개축하였다고 하는데, 개축하기 이전에는 기와집 두 채가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장지마을 당집 하당



장지마을 당집 내부

당집은 제당과 부엌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당 내부에는 당할머니와 당할아버지의 한복과 복주머니, 고무신, 촛대와 향로 그리고 마른명태, 청소도구 등이 있다. 한복과 신발은 낡으면 새로 바꾼다고 하는데, 신격의 위패나 초상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엌에는 솔단지와 그릇, 떡시루, 정화수, 식기도구 등이 있다.

마을에 모시는 신격은 당할머니다. 그러나 당제를 지낼 때나 당집에 모시고 있는 신격의 옷을 보면 당할아버지의 것도 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할머니가 있으면 그 남편인 당할아버지도 존재하므로 신격으로 모시지는 않지만, 당집에 옷도 걸어놓고, 제를 지낼 때 모셔서 대접해야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제를 지내는 사람을 당주라고 하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마을 사람이 당주를 맡아 제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당주 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아 1990년대 후반부터 몇 년 간은 여수에서 보살 두 명을 초빙하여 제를 지낸 적도 있다고 한다. 당시 보살은 여수 종고산 아래에 있는 종원사의 승려들이었다고 한다. 제는 마을의 집사 한 명과 보살 두 명만이 참석하여 지낸다. 집사는 제 지내기 3일 전에 당집 주위를 청소하고 금줄을 친다.

제물은 보살들이 준비한 것을 올리는데, 모두 5상을 차린다. 당집 내에 당할머니와 당할아버지상을 차리고, 밖에다 산신상, 거리밥, 당샘에 제물을 차린다.

제 순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난 후 보살들이 경을 읽는다. 경 읽기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그 내용은 마을이 평안하고 풍년과 풍어가 들며, 바다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지는 모두 9장을 올리는데, 보살 2명과 집사가 각각 3장씩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이 나면, 차려 놓은 5상의 제물을 한지에 싸서 묻는다. 각각 따로 따로 5개의 종이에 싸서 당집 뒤편에 있는 장소에 묻고 돌로 덮어둔다.

당제가 끝나면 마을 앞 선창에서 헌식제를 지낸다. 선창에 덕석을 깔고 보살이 준비한 제물상과 희망하는 집에서 차려 내 온 상들을 줄줄이 차려 놓는다. 이후 매구꾼들이 매구를 치면서 풍어가 들기를 기원한다. 또한 보살과 마을 유지들은 소지를 올리는데, 그 내용 역시 풍어와 바다에서의 무사고이다.

매구를 치면서 기원하는 것이 끝이 나면 각 상에서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서 물밥을 만든 다음 바다에 뿌리면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다 잘되도록 기원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제물을 음복하면서 매구를 치고 논다.

장지마을은 당제 수행에 있어 금기사항과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 마을 사람들이 당주를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살에게 의뢰해서라도 이를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명맥이 끊겼으며, 당집도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4) 유송리 송고마을 당산제와 세시풍속¹⁹⁾



송고마을 당제 - 중당제



송고마을 당제 - 용왕제

19) 이하 유송리 송고마을 관련 자료는 2013~14년에 걸쳐 마을에서 김성일(남, 1970년생) 등 마을주민의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유송리 송고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에 마을 뒷산의 상당과 마을 앞 소나무 숲인 중당에서 마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당산제' 혹은 '당주 모신다'고 한다. 매년 일진을 보아 당주 모시는 사람과 부당주를 선정한다. 당주를 모시면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으며, 안 모신다고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 당주 모시는 사람에 선정되면 대부분 거절하지 않고 그 일을 맡는다.

당주 모시는 사람에 선정되면 그날부터 금기를 지켜야 한다. 부부간의 합방은 물론 담배와 술도 금해야 한다. 대변을 보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밖에서 부정한 사람을 만날까봐 집안에서 근신한다.

제사 비용은 마을 자금으로 충당하는데, 당주 모시는 사람에게 현금 30만 원과 20kg 쌀 두 가마니를 주고, 매구꾼들이 쓸 고깔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하면 제사 비용으로 약 50만 원이 든다. 선정된 당주 모시는 사람은 제장과 그 주변을 청소하고, 자신의 집 대문 앞에 금줄을 친다. 부당주는 매봉산의 황토를 퍼서 제장에 가져다 놓는다. 상당 옆 계곡의 물을 이용해 쌀을 씻고 메를 짓기 때문에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장은 연장자 중에서 유고가 없는 사람이 목욕재계한 후에 여객선을 타고 여수에 나가 봐오는데, 제물 가격은 흥정하지 않는다. 장에서는 기름 한 병, 명태 한 마리, 백지 20장, 바가지, 양동이, 고무신 등을 구입한다. 기름은 제장에 불을 밝히던 것으로, 지금은 불필요한 데도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라 구입한다. 바가지와 양동이는 메를 지을 때 계곡에서 물을 떠다가 쌀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사오며, 고무신은 당주 모시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다. 고무신이 나오기 전에는 짚신을 삼아 췌다고 한다.

당주 모시는 사람 혼자서 제를 모시기 때문에 혹시 부정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사실을 감춘다고 한다. 만약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소문이 떠돌기 때문이다. 당산제를 잘 모시면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지고 있어 당주 모시는 사람으로 선정되면 대부분 정성을 다해 당산제를 모신다. 이 마을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당산제를 모시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를

묶어 두고 짓지 못하게 단속한다. 전에는 개를 멀리 데려가 묶어 놓기도 했다고 한다.

유송리 송고 동제의 유래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주민들은 1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당제의 연원은 조사자가 여수 전 지역을 통하여 유일하게 송고만 정월 초이튿날 제를 모시고 있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소라면 섬달천의 당제를 조사하던 중 섬달천이 초이튿날 지낸다는 것을 알고 그 관계를 주목하였는데 송고의 입향시조인 김해김씨 양단(良端)이 섬달천에서 살다가 조정의 명을 받고 사슴 사냥을 나왔다가 송고에 안주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송고 당제의 연원이 섬달천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주 모시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정월 초사흘까지 이어지는데 상당제, 하당제, 용왕제의 성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상당제는 메를 지어 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하당제는 제장에서 메를 짓지는 않지만 메를 가지고 가서 밥무덤에 헌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용왕제는 마을 사람들이 각각 상을 차려 용왕에게 축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매구굿과 결합되어 있다.

또한 당산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제와 하당제는 당주 모시는 사람 혼자 제를 모시지만, 용왕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한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하여 대동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까지도 30여 가구가 상을 차려 나와 용왕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제의가 쉽게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산제 제장은 모두 두 곳으로, 마을 뒷산에 있는 제장을 '상당'이라고 하고, 마을 앞 언덕에 있는 제장을 '하당'이라고 한다. 상당은 마을 뒷산 아래 계곡에 있는 바위들과 그 주변의 숲을 말하며, '사자나무'라고 하는 수백 년 된 거목이 바위 뒤에 우뚝 서 있다. 하당은 마을 앞 언덕에 있는 '밥무덤'과 소나무 숲을 말한다.

신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으나 상당신을 '당산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신' 혹은 '호랑이'라고도 부른다. 하당신은 '여당' 혹은 '여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신(地神)'이라는 설도 있다. 당산제를 모신 다음날 아침에 지내는 용왕제는 마을회관 앞 바닷가가 제장이다.

예전 당산제는 정월 초이튿날 밤 12시경에 모시지만, 메를 먼저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당주 모시는 사람은 밤 10시 30분경에 상당으로 올라간다. 상당에 올라가면 먼저 쌀을 씻고 불을 피워 메를 짓는다. 메가 다 지어지면 바위 위에 참종이를 깔고 명태 한 마리와 김[일명 해우]을 놓고 솔단지째 메를 올린 후 절을 한다.

상당에는 술을 올리지 않는다. 절을 한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금년 한 해 무사히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축원을 하면서 20여 장의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밥을 비운 다음 솔단지를 씻어 바위 밑에 넣어두고 밥만 가지고 내려온다. 그 밥은 당주 모시는 사람이 혼자서 먹는데, 다 먹으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한다.

상당에서 제를 모신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밥을 두 그릇 지어 한 그릇은 하당에 올리고 한 그릇은 용왕제에 올린다. 하당에는 메 한 그릇, 국 한 그릇, 사과를 진설한 다음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그런 다음에는 밥무덤에 메를 묻고 용왕제를 모시러 간다. 용왕제는 마을회관 앞 바닷가에서 모시는데 메 한 그릇, 국 한 그릇, 사과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제를 지낸 다음 바다에 음식을 던져 헌식한다.

당주 모시는 사람이 지내는 상당제, 하당제, 용왕제가 모두 끝나면 날이 밝는다. 오전 9시경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용왕제를 모시기 위해 마을회관 앞으로 상을 차려서 내온다. 이 용왕제에는 유고가 없는 마을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데 보통 30여 개의 상이 길게 놓인다고 한다. 개인들의 기원이 끝나면 바다에 음식을 던져 헌식하는데, 이를 ‘무래밥’이라고 한다.

부대행사인 용왕제는 마을회관 앞 바닷가에서 지내고 있다. 용왕제가 끝나면 매구를 치는데, 매구꾼으로 15명 정도 참여한다. 매구는 대부분 마을회관 앞에서 치는데 이장집, 어촌계장집, 당주 모신 집에는 꼭 매구를 쳐주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한두 집 더 쳐준다. 전에는 열흘 넘게 치기도 했으나 요즘에는 서너 집을 도는 것으로 끝난다. 그 이유는 매구를 잘 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주 모신 집에는 꼭 매구를 쳐주는데, 그러면 그 집에서 매구꾼들에게 떡국을 끓여 준다.

“바닷일을 하는 사람이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 큰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당산제와 용왕제를 모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편이다. 현재 금오도 내에서 두포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제사를 모시고 있어 여느 마을과는 다르게 동제의 전승의지가 강하다.

자율관리어촌계로 선정된 후 어촌공동체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하였고,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매구진흥회 등 외부단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가장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5) 유송리 여천마을 당제와 세시풍속²⁰⁾

여천마을에서는 선달 그믐날 밤 해시로부터 정월 초하루 자시에 걸쳐 올렸던 제사와 삼월 보름날 밤 자정에 올렸던 제사를 당제라 부르고 있다. 정월달과 삼월달 서로 다른 달, 다른 날로 나누어 올리는 두 개의 제의인데도 마치 하나의 제의인 당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적어도 삼월 보름날 밤에 올리는 제는 산신제임에 틀림없는데 함께 포괄하여 당제라 하고 있다.

11월 20일 동회에서 당주 1명(부부)을 뽑는다. 당주의 제일 7일 전부터 목욕재계를 하며 일체의 출입을 삼간다.

제당은 시멘트 벽돌 2칸 집으로 1칸은 제실이고, 1칸은 부엌이다. 제실에는 흰 수염에 상투를 튼 산신의 초상화가 있다. 제물은 산채와 과일 등으로 간소하게 차리며 제비는 마을 공동자금으로 사용한다.

선달 그믐날 밤 12시경에 먼저 산신제를 올린다. 특시발(뚝배기)에 메를 담아 두 그릇을, 고사리, 콩나물, 도라지나물과 꽃감, 김 등을 차려 놓는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은 놓지 않는다. 헌작은 하지 않고 재배를 한 후에 마을 집집마다 일일이 당주가 소지를 올린다. 음복을 한 후 제물은 땅에 묻거나 뿌리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당주 부부만 먹는다.

또 칠성제를 아울러 올리는데 매 7공기, 정화수 7그릇을 차려 놓고 재배한다. 역시 젓가락이나 숟가락은 놓지 않는다. 이 칠성제의 제물도 당주가 가져다가 먹는다.

20) 여천마을은 동제 등 무형문화 관련 제보자를 찾지 못해 조선대학교국사연구소·전라남도·여천군, 『여천군의 문화유적』, 삼화문화사, 1988년, 264~266쪽에서 발췌한 자료임.

지앙(産神, 三神)에도 특시밭에 메를 담아 올린 후 재배를 하고 바위 밑 땅에 묻는다. 이상의 세 가지 제의를 통틀어 산신제라 일컫는데 정월 초하루 새벽 첫닭이 울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정월 초하루 오후에 헌식을 한다. 집안에 재앙이 있거나 부정한 일이 있는 가정은 제외하고 각 세대마다 1상씩 제물을 차려가지고 마을 앞 선착장으로 나온다. 당주 부부가 차려 나온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매구꾼들은 매구를 치면서 주위를 돈다. 각 가정에서 가지고 나온 상 앞에 주부들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매구가 그치면 제주를 올리고 재배한다.

이때 매구꾼도 절하는 동작을 하며 절주를 맞춘다. 각 상에서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한데 모아서 지푸라기로 만든 꼬랭이 속에 넣고 술도 붓는다. 그 꼬랭이를 마을 동수(洞首)가 풍농, 풍어와 해난사고가 없고 병마 없는 한 해가 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 줍소사 빌면서 바다에 띄워 보내면 모두가 다같이 일어나 재배한다. 그 뒤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매구를 치면서 즐겁게 논다.

또 삼월 보름날은 산신님의 생일이라 하여 제사를 올린다. 다만 마을에 사망자가 있다든지 어린애를 낳았다든지 또는 다른 재난이 있을 때는 제를 올리지 않고 궤제(闕祭)를 한다. 밤 11경에 제당에서 제를 올리는데 이때에도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제사를 올리는 시간에 온 마을 사람들은 통행하지 못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하며 개와 같은 가축들도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물은 특시밭에 메를 담고 고사리나물과 콩나물을 올리고 재배한다. 제사가 끝난 후에도 매구는 치지 않는다.

온 마을 사람들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당제를 모셔 오고 있다. 특히 당주는 제사 후 1년 동안 근신해야 하는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술도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초상집, 결혼, 출산, 생일잔치를 하는 집에도 가서는 안 되며 짐승을 잡는 집에도 갈 수 없다. 이렇게 철저히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당주 본인에게 재앙이 생긴다고 믿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재난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당주의 이러한 금기생활은 다음 해의 당주가 결정될 때까지 즉 그해의 11월 20일까지 지켜져야 한다. 70~80년 전에는 산신제를 모실 때 암컷, 수컷 호랑이 두 마리가 지켜보며 따라다녔다고 한다.

2) 금오도의 송광사

함구미마을 뒷산에는 6,000여 평쯤 되는 넓은 평지가 있는데, 산봉우리 바로 밑에 있는 이곳을 이곳 사람들은 ‘절터’라고 부르고 있다. 옛날 어떤 도사가 이곳에서 지팡이를 한번 내리쳐 절터를 만든 뒤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는데, 하루는 상좌 아이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기 위해 쌀을 씻던 중 그만 잘못하여 수십 길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어버렸다. 도사가 이곳을 떠나면서 지팡이를 쳐 산봉우리를 무너지게 하여 절의 흔적을 없애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상좌 아이가 쌀을 씻던 곳을 ‘뜨물통’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쌀을 씻던 절벽 위에는 쌀뜨물처럼 보이는 하얀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은 실제로 절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보조국사가 모후산에 올라가 좋은 절터를 찾기 위해 나무로 조각한 기러기 세 마리를 날려 보냈는데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 국사전에, 한 마리는 여수 앞바다 금오도에, 한 마리는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송광암 자리에 앉았다고 하며, 이곳에 절을 짓고 송광사와 송광암으로 불렀다. 이것을 삼송광(三松廣)이라고 한다고 전한다.

광무 3년(1899) 돌산 군수 서병수가 편찬한 『여산지(廬山誌)』에 “고려 명종 25년(1195) 보조국사 지눌이 남면 금오도에 절을 짓고 이름을 송광사(松廣寺)라고 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함구미 뒷산의 절터는 송광사의 옛터로 추정된다.

『영은징오기(靈隱澄寤記)』에 따르면 송나라 영종 경원 원년(1195) 보조 국사 지눌이 금오도에 정성스럽게 절을 지었는데, 이름을 송광사(松廣寺)라 했다.

『부사귀객기(浮槎歸客記)』에 따르면 은적암 또한 보조국사 지눌이 지었는데, 금오도와 조계산의 송광사를 왕래하면서 잠시 머물던 곳이다.

조선 후기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세울 때 함구미마을의 소나무를 이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비사리나무 한 그루를 순천 송광사로 가져가 통나무를 길게 파 금방 지은 밥을 퍼 놓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구유(구시)’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3) 기독교

금오도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904년이며, 우학리교회는 여수에서는 세 번째로 설립된 교회이다. 섬이 크고 마을이 많다 보니 교회도 많은 편이다.

(1) 우학리교회

1904년 4월 5일 남면 우학리 냉수동 322번지에서 안돌영·김문옥의 두 가정이 모여 가정 예배를 본 것을 시작으로 우학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학리교회는 순수하게 이 지역 유지들의 힘으로 설립된 교회이다.

초대 전도인인 최진막 조사가 우학리에 파송되어 본격적으로 기독교 교리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최진막 조사의 인도하에 1906년 4월 5일에 설립 예배로써 본격적인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후 처음에는 목포 주재 맹혈리 선교사가 목회 활동을 하였으며 1913년 순천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설치되면서 그곳 소속인 변요한 선교사가 우학리교회의 초대 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교세를 확장하게 됨에 따라 1915년 4월, 66m² 규모의 예배당을 마련하고 2대 교역자로 강병담 조사를 청빙하였다. 강병담 조사는 이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 1925년 3월 중국 건축 기술자를 고용하여 적벽돌로 된 건평 99m²의 변식 스타일로 지어진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1932년 5월 김문옥이 초대 장로로 장립(안수 목사가 장로로 선정된 신자에게 그 교직을 줌)되어 초대 당회가 조직된다.



현 우학리교회



우학리교회(2008년)

1938년 1월 이기풍 목사가 5대 교역자로 자청하여 부임하였다. 1938년 9월에 열린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지만, 우학리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 194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60년대 초 사이에는 교인 출석수가 3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부흥하였으며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낳는 산파 역할을 하였다. 1970년 4월 제1차 예배당 증축 공사를 하였고, 1976년 12월 제2차 증축을 통해 연건평 528m²의 2층 건물로 완공하였다. 2001년 7월 예배당 외벽을 적벽돌로 치장하였고, 2022년 예배당을 재건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1904. 04. 05. 우학리(냉수동) 322번지 안귀봉의 집에서 안규봉, 김문옥 두 가정이 가정예배로 시작
 - 1906. 04. 05. 교회설립 예배
 - 1911. 사립학교 개원(1921. 보통학교 개명)
 - 1950. 09. 28. 황도백 집사, 곽은진 집사, 백인수 성도, 안경수 성도, 손양원 목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교
 - 1972. 07. 28. 예배당 증축(50평), 원학교회 분립
 - 1978. 04. 20. 예배당 증축(80평), 두모교회 분립
 - 1981. 03. 심미교회 분립
 - 1983. 12. 27. 예배당 개축(160평)
 - 1997. 04. 20. 친교실(식당) 신축(35평)
 - 2010. 03. 27. 교회 100주년 기념관 및 이기풍목사 순교기념관 개관
 - 2022. 예배당 재건축

(2) 남면교회

1994년 1월 9일 설립되었다. 같은 해 11월 29일 우학리 689-1번지에 32평 규모의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남면교회

(3) 원학교회

1972년 3월 19일 교회가 설립되었다.



원학교회

(4) 두모교회

1978년 4월 20일 우학리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으로 우학리교회에서 분립하여 두모리 556번지에 26평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였다.



두모교회

(5) 직포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1990년 8월 24일 두모리 1973번지의 윤연순 씨의 집에서 첫 예배를 시작으로 같은해 9월 7일 두모리 986-5번지에서 직포기도처로 직포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1993년 11월 1일 두모리 986-8번지에 43평 규모의 예배당을 신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이필립 목사가 시무 중이다.



직포교회

(6) 초포교회

1991년 8월 10일 교회를 설립하였고, 1993년 11월 1일 두모리 986-8번지에 43평 규모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



초포교회

(7) 향금교회

1971년 4월 13일 유송리 954번지(함구미마을)에 1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다. 1990년 12월 20일 유송리 982번지에 81㎡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하였으며, 2010년 3월 15일 여천교회와 합병이 승인되어 2010년 7월 19일 교회가 합병되어 현재는 폐교되었다.



향금교회

(8) 송고교회

1966년 3월 13일 유송리 672-3번지에 벽돌슬레이트 16평 규모로 건물을 짓고 송고교회를 설립하였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장원모 목사가 시무 중이다.



송고교회

(9) 여천동항금교회

1992년 8월 15일 유송리 129-4번지의 이보안 씨의 집에서 교회창립 예배를 드리고 1993년 8월 24일 유송리 416-4번지에 예배당을 준공하였다. 2010년 3월 15일 함구미의 항금교회와 교회합병이 승인되어 2010년 7월 19일 여천동항금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병 예배를 드렸다. 2024년 1월 1일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조후연 전도사가 시무중이다.



여천동항금교회

(10) 유포교회

1958년 4월 6일 우학리교회에서 분립되어 유송리 241-1번지(대유마을회관)에서 처음 개척예배를 드렸다. 1960년 10월 유송리 115-1번지에 목조함석 20평 규모의 예배당을 신축하였고, 1977년 12월 22일 30평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87년 5월 60평 규모의 예배당을 신축하였고, 2007년 8월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2024년 1월 1일 현재 김희문 목사가 시무 중이다.



유포교회

(11) 심미교회

1981년 3월 우학리교회에서
분립되었다. 1982년 10월 15
일 심장리 616번지에서 기도
처로 개척 예배를 드렸고,
1983년 8월 1일 심장리 539
번지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1984년 3월 14일 예
배당을 준공하였고, 1986년
10월 9일 예배당을 봉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심미교회

(12) 예수사랑교회

2016년 10월 3일 남면 미포
길 60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
로 2024년 1월 1일 김종자
목사가 시무 중이다.



예수사랑교회

(13) 장지교회

1979년 7월 11일 심장리
220-3번지에 벽돌슬레이트
27평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대한예수
교 장로회 소속 교회이다.



장지교회